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2월 18일(음력1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461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불교인구 · 활동 多 줄었다

불교인구 99년 49% 2003년 47% … 2%P 감소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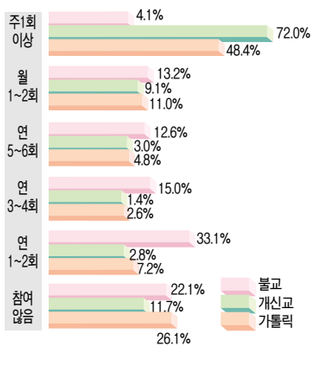
주1회 이상 활동참여 불교 4.1% 개신교 72% 가톨릭 48.4%

"타종교 비해 20~30대 격감… 청년포교 외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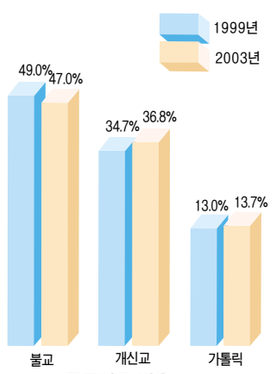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발표

통계청이 2월 12일 발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2000년대 들어 다소 늘었으나 불교인구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 참여도' 역시 다른 종교에 비해 턱없이 낮아 매주 1회 이상 종교 활동을 하는 개신교인이 10명 중 7명인데 비해 불교신자는 100명 당 4명꼴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전국의 만 15세 이상 7만여 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인구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99년 53.6%에서 2003년 53.9%로 약간 늘었다. 종교인구 중 개신교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99년의 같은 조사와 비교해 볼 때 34.7%에서 36.8%로 2.1% 포인트 증가했으며, 가톨릭도 낮긴 하지만 증가 추세(13.0%→13.7%)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불교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9년 49.0%에서 47.0%로, 오히려 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종교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종교활동 참여〉



〈종교인구 비율〉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인구센서스처럼 전수 조사가 아닌 종교인구 조사일 경우 조사 시점이나 표본 선정에 따라 들쭉날쭉한 면이 있는 만큼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조사가 많아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표본 수가 확연히 크고, 또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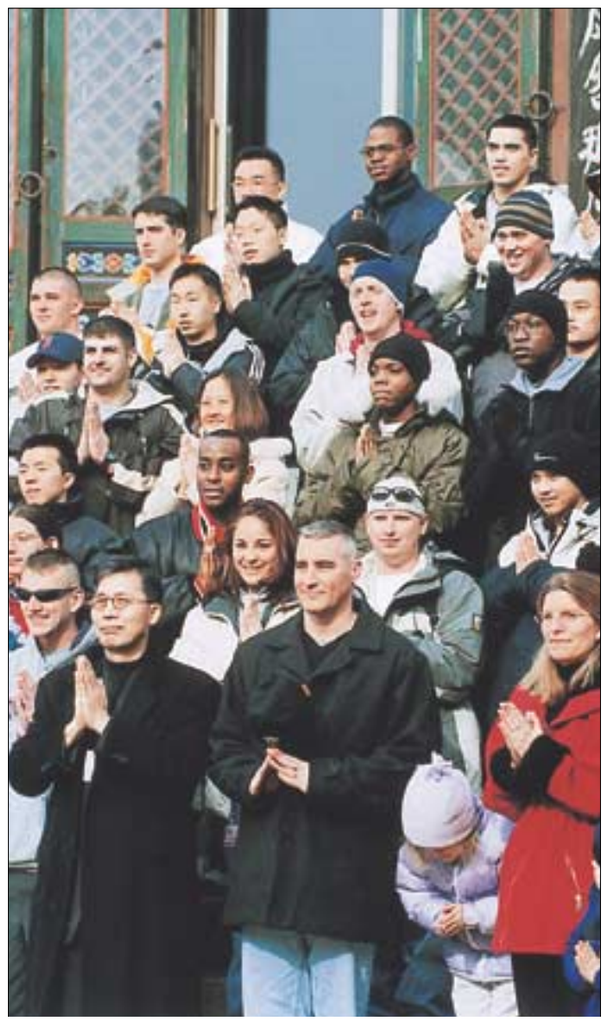
통계청의 85년, 95년, 99년 조사 결과를 연령에 따라 분석한 적이 있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포교사회학과)에 따르면 불교인구 비율이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한 인구 비율보다 높아지는 연령이 85년 조사에서는 30대 이전이었는데 95년부터는 40세까지로 늦춰지고 있다. 갈수록 20~30대 연령층에서 기독교 신자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등한시한 결과"라며 "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층 불자가 줄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나서지 않는 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 활동 참여도는 이번에도 다른 종교에 비해 매우 낮았다. 주 1회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불교의 경우 4.1%에 그쳤다. 개신교를 가진 사람이 가장 활발해 72.0%가 주 1회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가톨릭은 응답자의 48.4%가 여기에 해당됐다. 이에 비해 불교신자들은 연 1~2회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3명 중 1명(33.1%)이 이렇게 답했고, 연 3~4회(15.0%) 월 1~2회(13.2%), 연 5~6회(12.6%) 순이었다. 불교의 경우 '부처님 오신 날' 1년에 1번 절에 가는 불자가 많다는 반증이다.

물론 매주 예배를 보는 교회나 성당과 초하루 · 보름 법회를 주로 보는 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일요법회, 주말법회, 거사법회, 부부법회 등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법회를 개발해 신행 활동 참여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 불교계에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화두를 다시한번 던져준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미8군 장병 100여명 봉은사 탐방

미8군 소속 장병 100여명과 그 가족들이 한국 불교를 배우기 위해 2월 13일 이른 아침 서울 봉은사를 찾았다. 국제포교사회 안내를 받으며 대웅전, 탑, 미륵대불 등을 둘러보고 불교의 인사법인 합장도 배웠다. 사진=고영배 기자

감은사지 서탑 등 8월부터 전면보수

감은사지 서(西) 삼층석탑(국보 제112호)이 8월부터 해체 보수되고,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과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20호), 삼층석탑(석가탑 · 국보 제21호)은 전면 보수정비 된다.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단장 윤광진 · 이하 사업단)은 "지난해 실시한 석탑 4기에 대한 안전진단 내용을 12월 문화재 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보수 정비키로 결정했다"며 "이달 중 설계용역을 발주해 감은사지 서탑 해체 보수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까지 전면적인 보수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60년 전면 해체 보수됐던 감은사지 서탑은 44년 만에 다시 해체 보수하게 된다. 사업단의 안전진단 결과 감은사지 서탑은 신문왕 2년(682년) 만들어진 이후 1300여년을 바닷바람 염분에 노출돼 가장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화가 심해 석탑 부재 곳곳의 표면이 떨어져 나가고, 3층 옥개석 받침석이 내려앉아 있는 것은 물론 부재가 맞닿는 부분이 5㎝이상 떨어져 있다. 또 1 · 3층 옥개석 등에는 암석이 떨어져 나간 뒤 생긴 구멍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사업단 고정주 씨는 "해체 보수 방법이나 순서는 일단 3층 옥개석을 해체 한 뒤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올 것"이라며 "부재별 처리 방법은 관계전문가들과 합의를 거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11면으로 계속

"종단협 소속종단, 임업용 산지내서도 불사"

산림청, 종교시설 가능단체 인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은 별도로 종교법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업용 산지 내에 불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지역 등을 제외한 임야에 법당, 요사 등의 건축불사가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최근 종단협 회원 종단은 임업용 산지에서 종교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종단협 소속 25개 종단을 인정해달라는 문화관광부의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임업용 산지 내 종교시설 건축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단체에 한해 가능했었다. 박봉영 기자

선원장 초청 대법회 무여 스님 '화두 드는법' 2월 22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각 종단 모든 공고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나누고 손잡으면 세상은 '따뜻'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운동은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연계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연중 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 이렇게 전개합니다

- 종단 · 단체 나눔운동 홍보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 나눔의 손잡기 기금
- 마일리지 및 쿠폰 기부
- 나눔의 손잡기 가게 선정
- 불자기업과 함께 사회공헌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 헌혈증 및 골수, 혈소판 모으기
- 보고싶은 가족찾기

온라인 캠페인 www.buddhanews.com

동참문의 및 제보: (02) 722-4162~3
www.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32면

'할'



그림 · 조태호

- 무구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마음이 밝으면 신이요, 마음이 편안하면 신이다.



목마는 김에 물고 돌사람은 술을 주네 / 하산 스님 지음 (도광원 조실) 300㎜ 한정
푸른 풋푸르를 차나눠 신명이 솔모 앞네 / 성산 스님 지음 (삼각산 도도사 회주) 300㎜ 한정
마음 한번 바꾸면 가기가 극락 / 법성 스님 지음 (전 사회복지법인 정광원 이사장) 250㎜ 한정
집착하지 아니하면 참고 적응해서 벗어난다 / 인환 스님 지음 (동국대 명예교수) 300㎜ 한정
발 밑에 닿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을 / 원라 스님 지음 (고로 선경암 한주) 200㎜ 한정
나무 참생명, 무하님 생명 / 관밥 스님 지음 (천사수행회 회주) 300㎜ 한정
산위로 이어진 계단들으로 길 / 법주 스님 지음 (소리산 달마선원장) 150㎜ 한정
물 흐르고 꽃이 핀다 / 자안 스님 지음 (고해사 승가대학 원장) 250㎜ 한정
나무로 만든 물이 밥에 숨피느니 / 혜총 스님 지음 (갑보사 주지) 200㎜ 한정
법 자체는 허물이 없는데 / 성수 스님 지음 (갑보산 석탑사 조실) 300㎜ 한정
조건 따라 생겨난 것은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 / 도성 스님 지음 (혜조사 법주) 200㎜ 한정
금악산 아무래 결월이 높고 / 일운 스님 지음 (금악산 대련사 주지) 100㎜ 한정
새바기 청으로 청조가 새벽 / 도우 스님 지음 (삼각산 도선사 염불선원장) 300㎜ 한정
거곡을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는 법 / 지홈 스님 지음 (모악산 불갑사 조실) 300㎜ 한정
따뜻한 사람은 염으로 말해고 / 혜성 스님 지음 (삼각산 도선사 회주) 300㎜ 한정
명월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 / 성공 스님 지음 (안양사 조실) 300㎜ 한정
천지는 나와 더불어 그 루리가 같고 / 구암 스님 지음 (전 법화종 종정) 300㎜ 한정
상명을 나누어 주신 영혼의 어버이 / 효산 스님 지음 (오봉산 오봉사 회주) 150㎜ 한정
성구보리 수화중생의 본뜻을 찾아 / 천운 스님 지음 (도봉산 대흥사 조실) 100㎜ 한정
자체로운 자는 세달음을 여루고 어려석은 자는 방사를 이룬다 / 일휴 스님 지음 (지악산 여수암 주지) 300㎜ 한정
산목대기 푸러 있는 스목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말이 스스로 지다라 / 혜점 스님 지음 (보리산 법주사 회주) 300㎜ 한정
물위에 비친 달빛이 다무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 정무 스님 지음 (서운산 석남사 주지) 300㎜ 한정
공정산 산정에 아위들이 하늘 높이 날며 오르고 / 대장 스님 지음 (금정산 범어사 선덕) 150㎜ 한정
나와 너가 따로 없는 곳에서 연꽃은 피어나고 / 법안 스님 지음 (전 동지총소년의 집 원장) 70㎜ 한정
주장자를 들으니 십천대천세계가 버릴 것이 하나 없고 / 지성 스님 지음 (팔공산 동화사 주지) 300㎜ 한정
하루하루, 그때그때, 두두물물이 수행이고 좋은 날디고 진리 / 도업 스님 지음 (동국대 불교문예대학 교수) 300㎜ 한정
나의 또 하나 다른 생명으로 피어나는 꽃을 본다 / 진관 스님 지음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300㎜ 한정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하나무에 같이 피니 / 종성 스님 지음 (갑해선원 주장) 300㎜ 한정
결하등잡은 진정한 대승보살행 / 법타 스님 지음 (조계종 해외종무원장 · 영파장) 300㎜ 한정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1세트 (책 1권 + CD 1장)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송료별도) ※10권 구입시 20만 원 (송료무료) 구입문의 : 02-446-0393 입금계좌 : 신한은행 215-01-000491 장인구



'일터 불심'을 배우자

최근 몇 년 사이 직장불교는 공무원 불자회 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급속한 발전을 했다. 이는 '보살불교'로 지칭됐던 우리 재가 불교에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종단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관심을 두고 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시점에, 직장불교의 발전은 사회 각 분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불교 발전의 지원세력이자 종단 외호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직장불교가 몇몇의 원력 있는 출 · 재가자들의 노력에 의해 발전해 왔지만 다른 종교와 같이 범종단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오히려 종단 포교 역량의 지도 범위를 벗어나 불자회의 조직과 운영의 관여,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의 신도회화, 지도법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찰 주지와 같은 역할, 직장 단체장의 종교 성향에 영향을 받는 일, 지도법사 부족, 수행 도량의 부족 등은 직장불교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직장불자회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단 산하단체로 오인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직장과 소속 불자 지도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종단 포교단체와의 불충분한 의사소통, 포교단체의 권위적 자세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분명한 '배움과 실천' 의지
결속력 · 대외활동 등 귀감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지성불교, 거사불교의 핵심이 될 직장불교의 활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직장과 불자, 종단이 함께 협력하여 연구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직장불자회는 불교회의 존립 목적 등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직장과 사회에 기여하고 불교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종교활동은 직장이 추구하는 목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의 장점을 목표 달성과정에 접목시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고, 그 구성원인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여 자신과 직장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이에 종단은 직장불교의 중요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범종단적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신행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불자회가 각 직장 직능단체간 벤치마킹의 상대로서 조직의 활성화, 우리말 의식과 경전에 의한 가르침과 신행, 불우이웃 돕기 등 대사회적 기여, 종단 발전에 있어 직장불자들의 역할 등을 상호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직장불자회는 각 직장과 불자, 종단 지도자가 벤치마킹(Benchmarking)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되어야 하며 조직의 다양화와 불교적 일체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도자의 리더십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인드라망 구성으로 정보의 교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통합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김진홍(대한민국 경찰불교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美 의회도서관 종합목록집

조계종도 禪도 없다

27만 색인 주제어 중 한국불교 200개 이하
영문 한국불서 부족이 원인… '세계화' 무색

미국 내 의회도서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의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불교관련 영문서적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서목록집의 주제어조차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출판되는 주요 서적, 논문을 관련 내용과 주제로 분류한 <미국의회도서관 종합목록집(LCSH,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의 27만 여 주제어 색인 중 한국불교 관련 색인은 200여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2002년 제 25차 개정판 기준).

이 목록집에는 '불교(Buddhism, Buddhist)'를 주 색인으로 약 1500여개 이상의 전 세계 불교서적, 관련 논문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 한국불교 서적은 개괄적인 한국불교 교리와 배경, 역사 등에 대한 것뿐이다. 게다가 한국근 · 현대불교와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등 주요종단, '선(Seon)' 등 한국수행법에 대한 키워드는 찾아볼 수 없다. 또 한국불교 역사서적이 1392년까지 명시된데 비해 일본불교 색인은 서기 794년부터 1945년 이후의 역사 서적을 비롯, '젠(Zen)', 조동종, 정토종, 임제종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 의회도서관은 1899년부터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위해 목록법, 분류법 등을 도입, 1970년대부터 매년 종합목록집을 발간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도서관이 어떤 종류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인 이 목록집은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 도서분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일본, 티베트 관련 영문 불교서적이 수천 권에 달하는데 비해 한국불교 관련 서적은 30여 권에 그쳐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색인학을 공부한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www.buddhapia. com)의 청월 스님은 "한국불서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색인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한국불교의 활발한 국제포교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문서적이 제공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 출판사와의 연계, 한국불교 영문서적 출판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스님, 평소에 공부하세요"

조계종, 3·4급 승가고시 강화
산림입방전 4과목 시험
수행이력 등 활동도 반영
외국인 스님 '한국말' 평가

바야흐로 스님도 공부 안 하면 제대로 대접받기 힘든 시대가 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2월 9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3 · 4급 승가고시 방법을 대폭 수정하며 '승가고시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요지는 고시를 수계산림 입방전에 봄으로써 '승가고시 = 통과의례'라는 관행을 벗어나 평소 실력을 닦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는 것.

비구(니)계 수지 후 10년 뒤 치르는 3급 승가고시 산림(10월 18~24일)의 경우 입방 전 공통필수인 <금강경> 시험을 보고 산림 후 2차 고사(15과목 중 3과목 선택)를 보던 지난해 방식과 달리 올해는 입방 전에 4개 과목을 한꺼번에 치른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수행이력과 활동을 고시 점수에 정식으로 반영(총점의 20%)키로 했다.

올해부터 고시와 수계산림을 아예 분리 · 시행하는 4급 승가고시(3월 12일 중앙승가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기준 없이 대부분 합격시켜준 외국인 사미(니)에 대한 특별전형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승가고시 외에 면접을 통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행이력과 교리이해 수준을 평가하여 고시 합격 여부를 가린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올해는 3 · 4급 승가고시에서 '선시험 후산림' 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평소 자기 수행과 공부에 더 매진해 자기 수행의 증진은 물론 대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법장 스님 전방부대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 등과 함께 새해를 맞아 전방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2월 13일 육군 모부대를 방문했다.

국방부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의 안내로 진행된 방문에서 법장 스님은 철책선을 도보로 둘러보고, 내무반에 들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남북통일에 대한 법문을 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사설사암법 보완 필요"

특위, 집행부에 개정 요청

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는 2월 11일 재가자 창건주 사찰의 경우 창건주 권한을 당대만 인정하는 것은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보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상정 토록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장 효림 스님은 "현재 종단에 등록 · 관리되고 있는 사찰현황을 보면 사설사암의 숫자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설사암이 종단 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설사암 종단 관리시스템 점검과 대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특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임시종회 3월 16일

조계종 제162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20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다. 200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 특별분담 사찰 결산검사의 건,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 동의 등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조계종 국제부 신설

조계종 사회부에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국제 업무 담당부서 신설은 구성원들이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종단 조직 진단 결과 나온 뒤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2월 11일 밝혔다. 현재 국제 업무는 사회부 담당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특별법 관련 심판은 적법

천제 스님, 법규위 입장 재확인

조계종 법규위원장 천제 스님은 2월 10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화합과 법치확립에 대한 법규위원장의 입장'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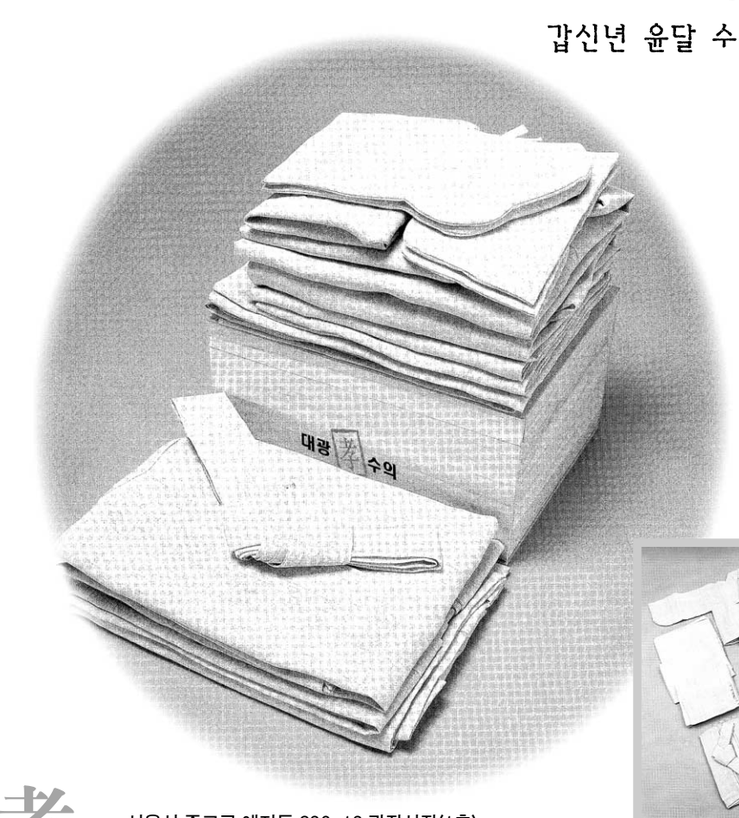
천제 스님은 "법규위원회의 적법한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 총무원이 재심사 신청자들에 대해 승적정정 조치를 이행한 바 있으나, 불과 이틀 만에 일부 소수 중앙종회의원들의 종헌개정을 통한 사면요구에 따라 다시 유보한 것은 유감스럽고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재심사 계류 중인 자들에 종헌개정을 통해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서가 징계확정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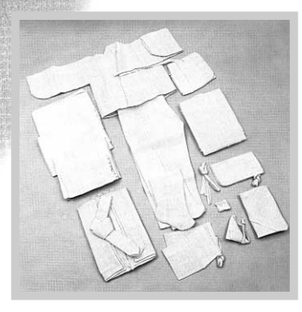
스님은 또 "법규위원회는 종헌이 보장한 최종의 심판기구이며, 그 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법상식"이라며 "'해종 행위 특별법에 관한 심판'은 지극히 적법한 판결로, 그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동우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직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출가-열반절 수행하며 '뜻깊게'

조계종 포교원-중앙신도회 정진주간 선포
각 지역 사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출가절인 2월 27일부터 열반절인 3월 5일까지를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조계사에서 매일 '108배 참회발원 정진 법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전국 사찰에서도 참회기도, 경전독송, 일일출가, 고승초청법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계사에서 매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 법회'는 중앙신도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파라미타 등 종단등록 포교 · 신도단체와 직장 · 직능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며 단체별로 돌아가며 법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과 개별 사찰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조계사(02-732-2115)는 이 기간을 '발심정진주간'으로 정하고 5가지 실천사항 지키기, 일일출가, 매일 사시예불 때 108배 참회하기 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용주사 수원포교당(031-255-2692)은 매일 오전 10시 108 대참회기도를 하며 마지막 날에는 8일간의 기도 공덕을 영가천도제로 회향할 예정이다. 통도사 부산포교원(051-816-2241)은 매일 저녁 7~9시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통해 부처님 출가 정신을 되새기며, 화성 신흥사(031-357-2695)는 3월 7일 '일일출가 수련대회'를 갖는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053-474-8228)도 2월 27일~3월 5일을 '부처님 닮기 용맹 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매일 2시간씩 참선하기, 매일 108배 두 번씩 하기 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다. 창원 성주사(055-262-0108)는 매일 오전 10시 큰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고 108배 참회 기도를 하는 '니르바나 정진 대법회'를 올해로 7회째 봉행한다.

서울 구룡사(02-575-7766)는 사시예불을 한 시간 앞당겨 매일 오전 9시부터 <금강경> 사경, 108배 참회 등을 계획하고 있고, 대구 법왕사(053-766-3747)도 매일 오전 9시부터 하루에 1000배씩, 8일 동안 1만 배를 하는 '1만배 정진 대법회'를 갖기로 했다. 권형진 기자

나를 던지니 내 마음이 보여요

/현장에서/ 대불련 겨울수행학교

전국서 모인 30여명 다보수련원서 수행



법당 앞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함께 서로에게 합장을 하는 학생들.

'조그만 표주박에/ 정성스레 생명을 담아/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최재훈(동양대 02학번) 학생의 메모장 中-

2월 1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관 앞마당. 생활 속 수행을 위한 젊은이들의 정진, 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강지혜) 3박 4일간의 '겨울 수행학교'는 작은 컵에 담긴 '생명수'를 지켜내려는 서툰 몸짓으로 시작됐다.

한 컵의 물이 내 생명이다. 오르막길에 흔들리고, 쌓인 눈길에 요동치며, 계단에서 첨벙되기까지 한, 그러나 멈췄을 때는 다시 고요해지는…. 컵 속의 물이 내 인생과 또 내 마음과 닮았다는 생각. 30여명의 학생들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뒷사람을 위해 제 생명을 떨어가며 수행에 한 발작씩 다가가고 있었다. 이어 진행된 예불시간. 김태영 법사의 '안수정등(岸樹井藤) 강의와 실수'가 열렸다. "넝쿨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실제를 되돌아보고 현재에 감사하는 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습(習)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학생들은 수행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첫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튿날, 이른 새벽부터 법당을 찾은 학생들은 새벽예불로 하루를 맞이했다. 새벽예불 후 학생들은 강의실에 모여 '나무(南無)'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부처님께 귀의해 절대 평안에 든다는 의미의 '안심입명(安心立命)' 도반 믿기 게임을 함께 했다.

10여명씩 한 조를 이뤄, 눈을 가리고 정해진 방향 없이 몸을 내맡긴다. 법우를 믿지 못하면 불안함에 몸이 굳어져 결국 땅바닥에 떨어지고, 믿으면 한없이 편안해지는 게임. '나무'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몸과 마음을 맡기는 연습을 한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했다.

불불상념(佛佛相念)의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도 해보고, 부촉염불과 절수행 등을 통해 나와 너의 의미와 본질을 되새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행을 몸에 익히고 있었다.

"신입생을 맞기 전에 제 자신부터 돌아보고 올바른 수행법을 익히려고 참가했는데, 수행학교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후배들에게 회향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자꾸 드네요." (김낙의, 숙명여대 02학번)

"수행이 어렵지 않다는 것, 순간순간 인식하지 못한 채 놓쳤던 것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석재, 충북대 02학번)

4박 5일간의 수행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고 얻은 것은 제 각각이지만 단 한가지. 나를 던지고 나서야 비소로 무한한 응답이 찾아온다는 것만큼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괴산=김은경 기자

불교 종립대 졸업식

동국대 서울캠퍼스를 시작으로 불교 종립대학교가 일제히 졸업식을 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2월 13일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불교학 관련 박사 3명과 석사 10명을 비롯해 박사 93명, 석사 611명, 학사 2,413명 등 모두 3,1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중앙승가대학교는 19일 오후 2시 본관 대강당(자비관 4층)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불교학과 18명, 역경학과 6명, 포교사회학과 10명, 사회복지학과 31명 등 모두 65명의 스님이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진각종립 위덕대는 17일 오후 2시 인문관 강당에서 제5회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556명, 석사 48명 등 총 604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권형진 · 박봉영 기자



2월 13일 열린 동국대 서울캠퍼스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스님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교법사 지위 높여야"

법장 스님 지적

2월 9일 열린 전국교법사단(단장 김형중, 명성여고)과 불교교육연합회(회장 홍기삼 동국대 총장) 신년하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종립학교에서는 교법사를 도덕교사로 취급하지 말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휘와 권한을 줘야 한다"며 교법사들의 지위향상을 강조했다.

잇달아 열린 포교단체 신련하례회에서 조우영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미국과 호주 등 최소한 2곳 정도에는 국제포교사가 안정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을 총무원 산하 단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북한산 · 천성산 가장 큰 피해자는 불교계"

이병인 교수 토론회서 지적

북한산 · 천성산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공동대표 일면)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2월 10일과 1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과 조계사 불교대학 4강의실에서 '2003 환경운동 심층평가와 새로운 운동방향' '북한산 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활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는 북한산 · 천성산 문제로 인해 "나름대로 불교계가 이 시대 환경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평가했으나, "불교계의 제1공약을 불교계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잘못된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 자연을 살리고 수행환경을 지킨다는 명분과 실리를 갖고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불교계 자신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비록 북한산관통도로가 정부와 조계종 총무원이 합의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사회적인 의미는 결코 폄하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관통반대에 참여한 주요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사회의 도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을 통한 대응을 해가자는 결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들었다.

박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은 저지 운동 과정에서 불교환경연대의 위상과 활동에 대해 "불교환경연대가 독자적인 행보를 하지 못했으며 조계종도 시민단체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이었다며 "사안별 대응에 치중하다보니 근본 해결에서 멀어질 수 있는 문제, 일시적 대응과 전문성 부족, 연대활동의 느슨한 결합 등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5월 봉축열차 운행

종단협-철도청 '이견'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월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올해 봉축열차를 운행하기로 결의했다. 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 '극복과 나눔, 함께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월 한 달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각 종단은 협찬을 약속했다.

그러나 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테마열차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봉축열차 운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청 등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화재위험 노출을 이유로 테마열차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지난해에는 봉축열차가 운행되지 못했다.

박봉영 기자

한-아세안 청소년 한국서 만난다

미래지향적 교류행사
월정사 등 방문 하기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현성)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2004 한 · 아세안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 행사를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서울과 강원도에서 펼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120명의 대학생 대표와 한국 대학생 대표 68명이 함께할 이번 교류행사는 아시아 공동체 미래건설을 위한 대화와 친선의 장으로 마련된다.

개회식은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각국 참가자들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또한 이날 개회식에는 참가국 대표들이 함께 꾸민 '한 · 아세안 우정의 조형물'이 공개되고 외교통상부 최영진 차관의 기조강연과 아세안 회원국 대표대사인 다코 산타나나반 주한말레이시아 대사의 축사 등이 이어져 행사를 뜻 깊게 할 예정이다.

10일간 함께할 각국 참가자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대산 월정사 방문과 겨울스포츠 체험활동, 음식축제, 한국불교 참선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외에도 '아시아 역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경희대 정진영 교수(국제관계학)의 강의와 '아세아협력과 지역통합'이란 주제의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통장 쌀레흐 씨의 강의 등을 통해 '한 · 아세안 청소년 선언문'을 채택한다.

김은경 기자

2004년도 법사양성을 위한 동산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경전)	법화경(3)	박 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 · 팔리원전)	팔천송 반야경	김형준	팔천송반야경(1)(2)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2시	능엄경 보경소(4)	송찬우	능엄경(1)(2)(3)(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4시	근본불교 (수행론 구차제정)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9) 금강경 법화경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4년 2월 1일~ 2004년 3월 6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2004년 3월 8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4년 3월 4일(목) 오후 4시 ● 능엄경학과 : 2004년 3월 9일(화) 오후 2시
4. 입학금 이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DONGSAN 법사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직장인을 위한 동산불교대학(3년과정)

신규강좌

불교문예창작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 2시개강

과 목	· 문학의 이해	· 미학①(동양미학)	· 미학②(서양미학)
	· 문예사조사	· 불교학 이해	· 불교사상사
	· 불교문학	· 장르별 창작실기	· 문예작품감상(학생작품)
	· 문예작품감상		· 작품창작지도
지도교수	· 김영무(극작가, 희곡작가협회 부회장)		· 신세훈(시인, 한국문협 이사장)
	· 김홍우(동국대 예술대 학장)		· 박진서(수필가,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 백시종(소설가, 한국문협 이사)		· 채상우(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출강)
	· 신상성(소설가, 용인대 교수)		· 무진장스님(동산불교대학장)

불교한문학과 (3년과정) 정규반,통신반 2004년 3월 4일(목) 오후 7시개강

과 목	· 한문법 (1) 한문법(2)	· 신심명, 육조단경 · 명심보감, 장자, 주역, 논어
	· 능엄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지도교수	· 김형중 (동대부고 교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교수(승가대), 무진장스님, 김병조 교수	

다도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9일(화) 오후 2시개강

과 목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 제다학(1)(2)(3) · 한국의헌다례 · 다와정신 · 다구학 · 차와선 · 차도문헌 · 차식물학 · 차성분학 · 차품평학 · 차시장학 · 사찰다도법
지도교수	· 이귀례 교장선생님 / 선혜스님 / 박희준교수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 2시개강

이론 실기	· 단청이론, 실기 · 기초 선긋기 · 불화이론, 실기 · 사왕초, 보살초, 여래초그리기 · 사불이론, 실기
지도교수	· 윤열수교수(문화재전문위원) · 법인스님(한국사불수행연구회 원장) · 김익홍교수(전 동국대)

▣원서교부처 : 본 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2004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2년과정) 불교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정규과정 (2년)	실습편 : 무진스님 전통 의식 작법 실습	이론편 : 심만춘스님 전통 의식 작법 이론
야간과정 (1년)	지도법사 : 양성도 예경의식 • 헌공의식 • 법회의식 • 시다림(매장,화장) • 천도의식	
바라과정 (2년)	지도법사 : 지도스님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나비춤 • 전통천도작법 교육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야간반 30명(1년)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4년 3월 6일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1:00 ~ 3:00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야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바라반)

3. 개강일시 2004년 3월 6일(토) 오후 1시 (정규반) 10일(수) 오후 7시 (야간반) 5일(금) 오후 3시 (바라반)
4. 입 학 금 일십만원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6.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의식 · 교육도량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병원과 교도소 누비며
포교하는 비구니 스님들

'동업중생'이라는 말이 있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의 삶은 어떠한가? 행복한 사람보다 고통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행복을 주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을 덜어주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명약이다. 특히 한순간의 실수로 격리되어 죄 값을 치르는 사람이나 몸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과 같은 포근하고 자상한 비구니스님들의 손길은 교도소 · 병원 등 고통이 있는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병상을 법당 삼아 병마극복 도와요


스승과 제자는 병원포교에 원력을 세웠다. 혜광 스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무관 스님. 벌써 13년째 국립경찰병원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보살피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혜광 스님 지문 스님 혜도 스님 무관 스님 무구 스님

스님들은 중생이 아프고 힘들 때, 이들을 찾아가 보살피는 것은 수행자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입을 모은다. 병원은 부처님의 동체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수행처'라는 것이다.

국립경찰병원 혜광(서울 참나선원장) · 무관 스님. 사제지간인 이들 스님은 13년째 병실을 지키고 있다. 매일 500개 병상을 돌며 환자들을 위로한다. 스승은 환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제자는 쾌유 기원 기도를 올린다. 병원직원불자회도 이끌어 일과 신행의 일치를 언제나 강조해 지금은 모두들 열혈 직장불자들이 됐다.

국립경찰병원은 특성상 다친 전경과 의경들이 많이 입원한다. 따라서 스님들은 전 · 의경 포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전 · 의경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책임질 '씨앗'이라는 것이 이들 스님들의 생각이다. 때문에 신세대 유행음악 CD 등을 입원한 전 · 의경들 병상 머리맡에 놓아주곤 한다.

아예 병원 근처로 이사 온 '자취생 스님'도 있다. 서울보훈병원 지문 스님. 따로 절이 없다. 병원 법당이 집이자 수행처인 셈이다. 새벽 4시면 출근(?)하고, 늦은 저녁에야 강동구 등촌동 자취방으로 돌아온다. 이러기를 11년째다. 스님은 간병인불자회인 '보은회'도 만들어 환자들과 함께 해왔다.

병원 포교에 원력을 세운 스님들의 역량은 자원봉사조직 운영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서울 경희의료원 혜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4년 전 불교호스피스 '불교비아라'를 결성해 염불공양과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업무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이 병원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불교비아라가 90% 이상을 소화한다.

동국대 경주 · 경주한방 · 포항병원 3곳의 종립병원을 맡고 있는 무구 스님(동대 경주병원 약사전 주지)도 자원봉사활동 전문가다. 지난 2003년 동국학원 재단에서 파견 나온 스님은 특히 지역 사찰의 신도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병원 봉사는 재가불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신행'이라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서울아산병원 지홍 스님(암사동 정향사 주지)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15년 전 병원 개원과 함께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님은 병원에서 '슈퍼우먼'으로 통한다. 환자 상담 및 위문, 불교행사 주관, 임종봉사, 뇌사판정위원회 활동 등 잠시라도 쉴 틈이 없다. 자다가도 병원에서 호출이 오면 뛰어나간다.

서울대학병원 은진 스님(청량리 청량사)은 16년 넘게 병원에서 살다보니 의료지식이 웬만한 의사 수준 빰친다. 환자들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 지 알 수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병을 이길수 있도록 환자들의 마음이 편안해 지도록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재소자들 닫힌 마음 찬불가 부르며 '활짝'

흔히 교도소, 구치소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국가로부터 그 죄값을 치르는 곳을 교정기관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은 모두 44곳. 이들 교정기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정행정을 위해 민간인 교정위원을 두고 있다. 교정위원은 크게 종교분과위원회와 교화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스님들은 대부분 종교분과위원회 소속으로 교정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 교정위원은 모두 463명. 이 가운데 비구니 스님은 모두 44명으로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으나 활동면에서는 왕성한 편이다.

교정위원의 주된 일은 수계법회, 초파일 등 불교 종교행사를 주관 하는 것.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며 재소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교정 활동도 늘고 있다. 재소자와 신도와의 자매 결연을 통한 교화를 비롯해 가족 문제, 출소 후 취업 문제 등을 상담해 주는 역할까지 다양해졌다. 특히 여자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비구니 스님들의 상담이나 교정 활동은 상당하다. 교정기관 공무원들은 비구니 스님의 교정활동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교정기관에서 왕성하게 교정,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비구니 스님으로는 법운 · 정진 · 재신 스님 등이다.


재신 스님 법운 스님 정진 스님

법운 스님은 80년 인천소년교도소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20년 이상 교정기관에서 재소자 교화활동을 펼쳤고 지난해에는 그 공로로 법무부에서 수여하는 상인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자 재소자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교정 활동을 시작했다는 정진 스님은 찬불가를 통해 재소자 교화에 매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마음의 위안을 주는 방법으로 법문 보다는 노래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재소자와 함께 피아노 반주로 찬불가, 동요 등을 부르면 잠시나마 웃게 되고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는 것 같다며 1984년부터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찬불가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매월 교정기관을 위문하는 재신스님. 1969년 교정 공무원이었던 신도와의 인연으로 춘천 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의 교정기관을 찾아다니며 왕성한 교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재소자 교화를 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스님은 지난 2월 11일에도 신촌 봉원사의 후원으로 떡, 과자, 음료수 등을 재소자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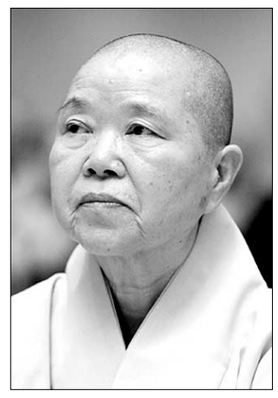
그 외에도 덕심, 법조, 혜광, 지원, 혜욱, 증휘, 정보, 천불, 명신, 법기, 혜제, 정현, 은혜, 도월, 도승 스님 등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묘희, 일효 스님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지만 수십년간 교정 활동을 해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5> 명성 스님

비구니 수행 · 교육체계 확립



"올해는 제8차 세계여성불교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일화(世界一華) 정신에 입각해 국경을 초월, 전세계 불교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도 운문사 회주이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인 명성스님. 2월 9일 비구니회관에서 만난 스님은 올해 비구니회의 최대 현안인 세계여성불교대회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70이 훌쩍 넘은 노장이지만 아직도 선재동자와 같은 천진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명성 스님에게서 평생을 비구니 수행과 교육을 위해 매진해 온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1931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명성 스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불현듯 떠오른 자아에 대한 근본 물음을 풀기위해 1955년 해인

운문승가대학 열어 후학 양성에 매진

사에서 선행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당시 선행 스님의 은사이신 본공 스님은 손주 상좌로 들어온 명성스님을 보고 '훗날 대강백이 될 것'을 예언했다고 한다. 필연이었을까? 1967년 해인사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명성 스님은 당대의 대강백 관응, 경봉, 운허, 만우, 탄허 스님 문하에서 공부했고 마침내 성능스님 회상에서 전강을 받았다.

"성능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을때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느날 노장님께서 불러 갔더니 자신이 깔고 앉아 있던 좌복을 내어주시면서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러시면서 '오늘부터 전강한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파격적인 전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강을 받은 이후 선암사 강원에서 3년을 강의한 명성 스님은 종단 교육의 현실을 절감하고 교육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래서 스님은 서울 청룡사 강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현대식 교육을 받기 위해 동국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불교학자였던 김동화 박사를 지도교수로 유식을 전공, 석 · 박사를 마친 스님은 다시 산중 강원으로 돌아왔다.

명성 스님은 1987년 국내 최대 비구니 강원인 운문승가대학, 97년 비구니 강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인 운문승가대학원을 개원하며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체계를 확립했다.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운문사를 현재 40여동의 전각을 갖춘 대가람으로 변모시켰다. 이 모두가 후학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수십년 운문사에 주석하며 비구니 수행 · 교육 체계를 확립해 온 명성 스님은 최근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능력이 부족하다며 극구 사양했지만 비구니 원로 스님들이 몇 번을 찾아와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지난해 10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올해 비구니회의 활성화를 위해 비구니 회관을 교육신행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승가대학 강사, 선원 수좌 등의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매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을 위해 다도, 명상, 꽃꽂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전국 비구니 스님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쉽게 포교하며,
21세기의 풍요로운 삶을 생활불교의 실천수행으로.....

금강불교대학 2004년도 신입생 모집
(사이버 동영상강좌 = http://www.kkbuddha.net)

1. 모집과정
불교기초과정
불교 전문 과정-(포교사)
장례지도사 과정-(장례지도사)
공통 : (컴퓨터기초.기초의식.경전)

2. 모집방법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및 등록

3. 개 강
2004년 2월 7일

3. 입 학 식
2004년 3월 6일(토)오후1시

● 특전(자격) : 포교사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장례지도사 (한국장례업협회)

문의 : 금강불교대학 (www.kkbuddha.net)
경남창원시동정동708-48번지 (641-490) 전화:(055)253-0108 / 전송:(055)296-6200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법사의 삶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요.

출강 통신 법사 교육생 모집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법위를 갖추시고
불교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지원합니다.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시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4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팩스 737-5305

은빛 화음으로 회향합니다

부산에 첫 불교실버 '도솔합창단' 창단



부산 각 사찰합창단에서 활동했던 60세이상 여성불자들이 '부산도솔합창단'을 결성했다.

50~70대 여성불자 풍부한 성량 자랑
"음성공양으로 포교·봉사 현장 누빈다"

부산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실버합창단이 창단됐다.

60세 이상의 여성 불자들이 주축이 돼 창단된 부산도솔합창단은 2월 3일 첫 연습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화음을 고르며 노래 인생을 멋지게 회향할 준비에 한창이다.

2월 10일, 두 번째 연습이 열리는 양정불교회관 내 금정불교대학 강당을 찾았을 때, 두 번째 연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성량과 화음을 구사했다. 비결을 물었다. "부산의 주요 사찰이나 합창단에서 활동하던 단장님들이 많아요. 벌써 몇 십 년 동안 노래를 불러온 분들이라 개인기가 뛰어나요." 부산도솔합창단을 지도하는 이연화 씨는 이렇게 답했다.

이처럼 부산도솔합창단 단원들은 '실버'라는 별도의 단어가 무색할 만큼 수준급의 실력과 활동 경력이 쟁쟁하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산불교교육대학, 영주암, 선암사 등에서 합창단 단장을 지낸 이들이 노래를 통한 봉사와 회향을 서원하며 한마음으로 뭉친 것이다. 어느 합창단에 뒤지지 않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췄다는 자부심을 가진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20여명 정도의 단원들이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부산불교교육대학, 통도사부산포교원 합창단 등을 지휘해온 이연화 씨가 앞장을 섰다. 사찰 합창단을 지휘하며 나이 때문에 활동을 접으면서도 음성공양 올리는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단원들을 많이 접했다. 결국 그들의 좋은 목소리가 포교와 불교합창단 발전을 위해 울리게 해보자 마음을 낸 것이다.

"5년 전 벌써 실버합창단을 창단해 왕성한 선교활동을 벌이는 기독교를 보며 불교 실버합창단 창단을 서원하게 됐다"는 이 씨는 "사찰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찬불가를 통한 포교와 봉사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범어사합창단 2대 단장을 지낸 한재희(67) 보살은 "비록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50년 가까운 합창단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소식을 듣자마자 입단했다"며 환하게 웃어보였다.

부산도솔합창단은 6개월 정도의 연습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춰지면 봉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양로원, 고아원을 찾아 찬불가, 가곡, 외국곡 등 다양한 곡들을 선사하는가 하면 도반들의 49재 때는 극락왕생을 서원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게 된다. 특히 1년 뒤에는 정식으로 창단 기념 공연도 가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사찰에 가서 한국의 찬불가를 알리는 공연도 구상중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도심에 나투신 괘불 탱화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대구시 동구 선광사 외벽 빌딩에 봉안된 9m×7.5m의 괘불탱화.

대구 선광사 예산 스님 봉안
지하철 참사, 국태민안 기도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를 맞아 동구 도심 빌딩에 9m×7.5m의 괘불탱화를 모시고 49일간의 일천배 정진기도를 계획한 스님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대구시 동구 선광사 주지 예산 스님이 바로 그 주인공. 스님은 2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월 6일까지 49일간 안심 지하철역 3번 출구쪽에 야단법석을 마련하고 지하철 참사 사망자 196명의 원혼을 달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진기도에 들어간다.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불화를 통해 수행 정진하던 예산 스님은 "대구지역에 지하철 대참사를 비롯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각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도 빌어보자는 염원으로 괘불탱화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법당의 안팎이 따로 없이 부처님을 보면서 추모의 마음을 낸다면 원혼들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8일 입재에 들어가는 49일 일천배 정진기도는 4월 5일 회향 전야제 행사로 촛불 추모 대법회를 지내고 4월 6일 천도대재를 통해 회향한다. (053) 963-9945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

"이해와 화합으로 학교 이끌 것"
부산불교교육대 새학장 강선태 씨



부산불교교육대학 운영위원회(위원장 혜총)는 9일 교육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학장에 강선태(63 · 대성한의원 원장 · 사진) 전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차기 학장 선출 과정에서 박주천 부학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던 부산불교대학은 2월 14일 제13기 불교학과와 경전연구반 수료식, 17일 제22기 교리반 수료식을 갖고 신입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선태 원장은 학장 추천을 수락하면서 "포교사 고시 때마다 전국 최다 합격자수를 기록하는 명문 교육기관의 학장을 맡게 돼 짐이 무겁다"며 "학장 선출과정에서 있었던 마음 아픈 상처들을 잘 어루만지고 이해와 화합으로 학교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일 6시 코모도호텔 동백홀에서 학장 이 ·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용호복지관 언어치료센터 개소
아동 대상 '일대일' 치료 실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상상의 새, 가릉빈가.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가릉빈가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어치료센터가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에 문을 열었다.

2월 6일 개소식(사진)을 가진 용호복지관내 가릉빈가 언어치료센터는 언어발달이 다른 아동에 비해 늦은 아동이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말을 잘 하지 않는 아동,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아동 등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문을 열었다. 언어치료사 이미정씨가 센터장을 맡아 운영되는 가릉빈가 언어치료센터는 36개월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일 12시부터 7시까지 일대일 치료를 실시한다. 언어장애뿐 아니라 읽기, 쓰기 등의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임광수 낙동복지관 관장, 박용하 개금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혜총 스님은 "가릉빈가 언어치료센터는 아동들이 내면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대구 영남불교대 생명나눔 방생
장기기증 서약 헌혈로 법회 봉행



대구 영남불교대학이 장기기증과 헌혈 등 인간방생 차원의 새로운 방생법회를 주도하고 있어 화제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2월 11일 4층 법당에서 스님과 신도 500여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약 500여명이 헌혈(사진)을 하는 생명나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장기기증과 헌혈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잘 실천하는 일이며 불교계 전체로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회는 올해 두 번째 맞는 생명 나눔 방생법회로 올해부터는 일년에 두 번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 둘째 일요일에는 초파일 봉축행사를 맞아 두류야구장에서 생명 나눔 헌혈법회를 봉행한다.

배지선 기자

청도군 적천사 반야회 무료급식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초청 계획

시골마을 작은 사찰의 봉사회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청도군 적천사 반야회(회장 박영숙) 회원 10여명은 2월 10일 청도대한적십자 봉사회 경로식당에서 지역의 독거노인 4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다. 아침을 의례히 거르는 독거노인들은 따뜻한 점심 한 끼에 하루 배를 채우기에 점심 공양 배식은 11시부터 이뤄졌다. 이날 메뉴는 청도에서 유명하다는 추어탕. 추어탕 한 대접을 드신 어르신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1999년 결성된 반야회는 3년 전부터는 마을마다 경로잔치를 벌이는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故 안상영 시장 영결식
위패, 내원정사에 봉안



지난 2월 4일 새벽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한 고(故) 안상영 부산시장의 영결식이 8일 오전 부산시청 옥외공연장에서 부산광역시장(葬)으로 열렸다.

불교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사진)은 혜총 스님 등의 창혼(唱魂), 오거돈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영결사, 고인의 유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대성(범어사 주지 직무대행), 혜총(감로사 주지), 정련(내원정사 주지) 등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도했다.

유해는 영락공원 납골당에 안치됐으며 영정과 위패는 평소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내원정사에 봉안됐다. 천미희 기자

세계인 모두 도롱뇽 친구가 되어 주세요

4차 심리 앞두고 사이트 홍보
지율스님 '천성산 千人' 선언

도롱뇽 소송 4차 심리가 2월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율 스님은 해외사이트에도 '도롱뇽의 친구들이 되어 달라'는 내용을 올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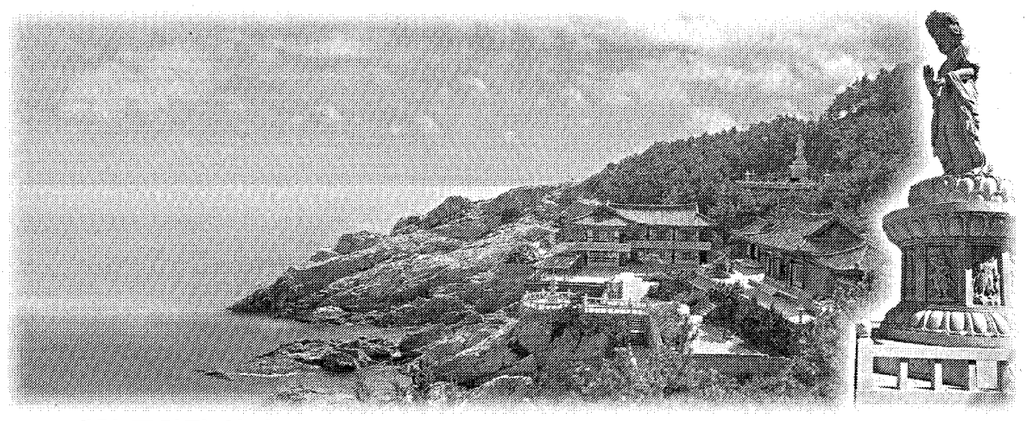
학생들이 재판장에게 쓴 그림엽서나 편지를 해외 환경단체나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띄워 도롱뇽 소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해외사이트를 공략해 도롱뇽의 친구들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다.

또한 지율 스님과 천성산보존대책위는 2월 안에 '천성산 천인(千人) 선언'을 갖는다. 지율 스님은 "천명의 성인이 났다는 천성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환경과 생명의 화두를 함께 풀어갈 천명을 모으고 있다"고 천성산 천인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29일, 3월 1일 양일간 천성산에서 낙동강까지 학생, 수녀, 스님,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습지투어와 생태독립선언 행사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3월초에는 일본 우는 토끼 재판 관련 전문가를 초청, 심포지엄을 가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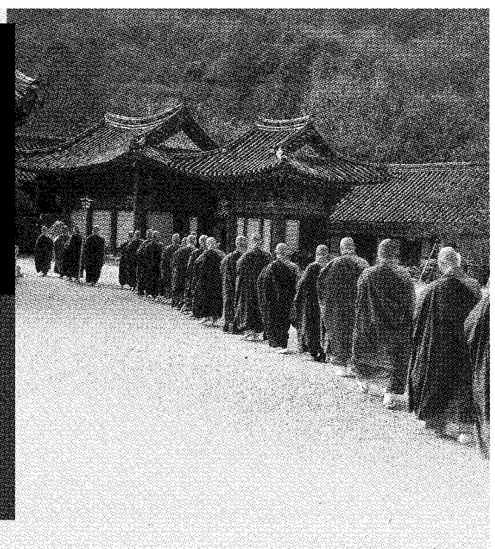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봉은사
육조단경 논강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기 간 : 불기 2548(2004)년 2월 21일(토) ~ 4월 10일(토)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장 소 : 보우당 •카페 : cafe.daum.net/haglim
•동 참 비 : 100,000원(교재 제공)
•접 수 : 봉은사 포교교육팀(516-5652, 3218-4811~17)

육조단경은 조계 혜능대사가 설법한 법문을 그 문하제자들이 기록한 경전으로 예로부터 선종의 제일 경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이래로 선종수사찰인 봉은사에서는 승가의 선수행 전통을 계승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오늘날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감로를 제공하고자 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논강을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선 수행이 정신문화와 삶의 문화적 대안임을 각인시키고, 선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문화가 미래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님들과 재가 신도들이 함께하는 사부대중 무차 논강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을 바랍니다.

논강일정표

	날짜	주 제	논주	논사		진행
1강	2.21	육조단경 사상1(돈오견성)	혜국스님	-	-	영진스님
2강	2.28	육조단경 사상2(좌선의 정의)	혜국스님	-	-	영진스님
3강	3. 6	육조단경 내용정리(참문)	혜국스님	-	-	영진스님
4강	3.13	육조단경에서 대승불교 수용	성본스님	-	-	법인스님
5강	3.20	육조단경(무상계)	지안스님	정각스님	이덕진	차 차 석
6강	3.27	육조단경(반야-중관)	이 중 표	각묵스님	박인성	용학스님
7강	4. 3	육조단경(불성사상)	김 진 태	세등스님	김재성	김 호 성
8강	4.10	육조단경과 실참수행	고우스님	-	-	영진스님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포교원 · 교육원 · 불교방송(BBS) · 불교TV · 불교신문 · 법보신문 · 현대불교신문

템플스테이, "한국 관광의 기본 코스"



오는 10월 충북 충주시에서 열리는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 동안에 사찰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조계사도 내 · 외국인을 대상으로 템플 라이프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템플 스테이가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주시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세계무술축제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세계무술대회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 이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적지 않은 외국인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주시, 무술축제 참가자
체험형 숙박프로그램 운영
조계사도 3월부터 월 1회
'템플라이프' 정례화

이에 따라 충주시는 외국인은 물론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사찰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축제 관람 및 문화유적 답사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찰생활 체험은 축제 기간 중 1박2일 일정으로 참선과 발우공양 등의 불교문화를 집중적으로 체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말 까지 희망 사찰 및 가능 인원을 조사해 프로그램 등을 결정키로 하는 한편, 9월까지 참가 신청접수를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주에는 대원사, 대원암 등 30여 곳의 사찰이 있으며, 현존하는 신라석탑으로는 가장 오래된 중앙탑과 봉황리마애불상군, 중원탑평리7층석탑, 중원미륵사지 등 삼국 · 고려 · 조선 시대 불교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조계사는 3월부터 내 ·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템플 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월드컵 이후 조계사를 찾는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개별 외국인 관광객들과 내국인들의 참여 요청이 늘어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템플 라이프는 참선과 다도, 발우공양 등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조계사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조계사 스님들이 직접 지도하며, 조계사 외국인안내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통역을 맡는다. 국내외 단체에서 참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원하는 날에 참여할 수도 있다.

조계사는 많은 내 ·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용주사 주변 대규모 택지개발 논란

제2교구차원 환경단체와 연합 저지
"문화재 · 조수보호구역 훼손 우려"

국보 120호 범종, 천연기념물인 회향나무가 있는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와 사적 206호인 융 · 건릉 사이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져 용주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는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일대 112만㎡에 오는 2008년까지 15층 아파트 3490가구 등 모두 39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3지구는 전체 개발면적 중 2/3인 84만㎡가 용주사와 융 · 건릉에서 반경 500m안에 포함된다.

주택공사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내 개발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공사는 2002년 11월 허가를 받은 상태.

용주사측은 택지개발을 위한 6차선 도로가 용주사 일주문에서 100m 거리에 건설되고, 천연기념물 외 도 문화재 7점, 문화재자료 2점 등 31점의 각종 문화재가 집중돼, 수행환경 침해 및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주사 교무 성무 스님은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능을 화산에 옮기며 다시 일으킨 사찰이며 융릉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건릉은 정조와 그이 비 능이기 때문에 용주사와 융 · 건릉은 하나의 '문화재 벨트' "라며 "2월 19일 열리는 교구종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려 오산 · 화성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원주사암련 회장 원행 스님

원주불교사암연합회는 2월6일 평원동 불교회관에서 지역 사찰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현 연합회장 원행스님(원주 구룡사 주지)을 회장에 재추대했다.

또 총무에는 성운 스님(용화사 주지), 재무에는 혜성 스님(천은사 주지), 감사에는 법선 스님(영금사 주지)과 정선 스님(극락암 주지)을 각각 선임했다.

한명우 기자

강화군, 보문사 잇는 교량 건립

우리나라불교의 3대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보문사가 위치한 강화 석모도와 강화읍을 잇는 교량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교량이 건립될 경우 보문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강화군은 "석모개발주식회사와 보성건설이 자본을 들여 석모대교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공사는 2007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강화군 외포리 선착장에서 뱃길로 10여분 거리인 석모도에는 월 평균 1만2천~1만6천여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보문사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전 · 의경 포교' 주력키로
올해 '경찰 불교회 활성화'

서울지역 경승실장과 경승스님 30여 명은 2월 11일 간담회를 갖고 올 한 해 '경찰불교회 활성화'와 '전 · 의경 포교'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불교경승단 서울지단장 지홍 스님은 "경찰포교는 경승스님과 경찰불교회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찰불교회를 새로 결성하고, 결성된 곳도 활동 강화에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60세 이상 노인

'이성 사귀고, 돈 벌고 싶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60세 이상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건전한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4명은 취업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이 지난해 12월 광진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노인 복지욕구 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노인들의 건전한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2.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상의 이유'가 47.1%로 가장 높았고, '외로워서'가 39.5%로 그 뒤를 이었다.

지금 성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26.1%가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의 80.8%는 월 1회 이상의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취업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41.9%가 '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의사가 반영됐다. 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부족현상도 지적됐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15.5%만이 '돈을 벌고 있다'고 답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우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절일 하면서 '불자 자부심' 느껴

경기도 광주 천룡사 유정근 거사



천룡사 앞에 있는 밭에서 얼지말라고 겨우내 덮어 두었던 비닐들을 뜯으며 땅을 고르고 있는 유정근 거사.

먼거리 출퇴근하며 3년 도량 정비
자기집 가꾸듯 경내 돌하나도 소중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도량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웅읍 천룡사 유정근 거사(48)의 각오가 이렇게 비장할 정도로 남다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가 지난 3년동안 도량 불사에 흘린 땀방울의 의미 때문이다. 자기집을 가꾼다해도 아마 이만큼 정열을 쏟지는 못할 것이다. 자신의 집인 성남에서 천룡사까지 1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지만 거의 매일 출퇴근(?) 하다시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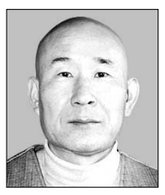
"처음에 직장일로 전기공사를 하러 이곳에 와보고 기가 막혔어요. 덩그라니 다 쓰러져 가는 건물 두 채 이외엔 잡초와 칡덩쿨만 무성한 이곳이 어떻게 도량이 될까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못질에서 삽질까지 하시더군요. 그때 잠시 잊고 살았던 불심이 되살아납디다."

그때부터 유 거사는 주지 스님과 둘이서 낮에는 도량불사에,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에 매진했다. 우선 비만오면 잠기는 절 마당에 모래를 까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 대웅전에 전기공사를 하고 불상을 모셨다. 또한 대웅전 한켠에 주방과 주지 스님이 기거할 작은 요사채도 만들었다. 말 그대로 토굴에 불과했지만 맨주먹으로 손수 일구었다는 자부심만은 큰 규모 사찰의 신도 못지 않았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내 집은 남이 지어 준 것을 돈주고 쉽게 산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소중함이 덜 느껴지지요. 하지만 천룡사만큼은 화려하거나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그렇지가 않아요. 경내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만 봐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유 거사는 절 앞에 있는 밭에 자주 나간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고르며 채소 심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사찰 재정이 어려워 나눠 줄 것이 없어 인근 주민들과 신도들에게 채소 공양으로 새봄을 맞기 위해서다.

광주=김주일기자



추천의 말

벽암스님 천룡사 주지

여여하게 본분 다하는 불자

운수납자처럼 전국의 선방을 떠돌아 다니다가 수행 생활의 회향을 도량 불사로 결심하고 우연히 인연이 된 이곳 천룡사에 걸망을 풀었습니다. 내가 봐도 처음에는 허름한 농가인 이곳을 어떻게 도량으로 여법하게 바꿔 놓을까 걱정했는데 바로 유정근 거사가 나타나 큰 힘이 돼 주었습니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사찰에 와서 기도하기도 힘든 것이 요즘 속세인들의 삶인데 어려운 형편에 발품을 팔아가며 손수 자신의 집을 짓듯이 절 불사에 헌신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깨달음의 강좌

법륜스님의 금강경대강좌

2004년 봄, 절대적 자유와 완전한 행복을 위해 이 땅에 나투셨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금강경대강좌'가 전국 정토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법회는 부산 해운대 정토법당 개원기념 법회로 진행되고 기타 지역법당에서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 전국 11개 정토법당 지역별 일정표

법 당	요 일	일 정	수계식	연 락 처
서울법당	매주 수 / 목	3. 3 ~ 6.10	5 / 19(수)	02)587-8993
부산법당	매주 화 / 목	2.24 ~ 5.27	5 / 27(목)	051)747-9997
대구법당	매주 월 / 목	3. 1 ~ 6. 7	5 / 10(월)	053)744-3025
대전법당	매주 목 / 금	3. 4 ~ 6.10	5 / 21(금)	042)253-8990
청주법당	매주 화 / 수	3. 2 ~ 6. 8	5 / 14(금)	043)284-5951
마산법당	매주 화 / 수	3. 2 ~ 6. 9	5 / 12(수)	055)247-8991
울산법당	매주 화 / 금	3. 2 ~ 6. 8	5 / 7(금)	052)245-8995
광주법당	매주 월 / 금	3. 1 ~ 6. 7	5 / 17(월)	062)511-8990
제천법회	매주 화 / 수	3. 9 ~ 6.15	청주에서	043)648-0083
정읍법회	매주 수 / 금	3.10 ~ 6.16	광주에서	019-308-2731
제주법회	매주 화 / 목	3. 9 ~ 6.15	부산에서	064)724-7885

정토회 JungTo Society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585-16호 / 전화 02)587-8994 팩스 02)587-8998
http://www.jungto.org young@jungto.org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2004년 3월 11일 개강

제7기 기초반 제5기 경전반

● 기초반 : 매주 화 · 목 오후 2시 ~ 4시 ●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주요 특강교수진



지관 큰스님 – 前 해인사 주지, 동국대 총장 現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세 민 스 님 – 해인사 주지, 지장선원 회주
법 산 스 님 – 동국대 정각원장
현 각 스 님 – 동국대 선학과 교수
태 원 스 님 – 중앙승가대 교수
권기종교수 – 동국대 前사회교육원장
김용표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현 호 스 님 – 안양불교학장, 지장선원 주지
최영준거사 – 불교방송 진행자, 개그맨, 가수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6 홈페이지 – http://지장선원.kr 카 페 – http://cafe.daum.net / jijangzencenter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탕카(Thangkas)로 나투신 우리 큰스님

대원사 불화 불사 현장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티베트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보성 대원사는 지난해 사찰 입구에 티베트 양식의 수미광명탑을 건립했다. 가섭불의 사리가 봉안된 탑 안에 들어서면 입구양쪽의 사천왕상을 만나게 된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왕궁화가였던 믹말 씨가 조성한 티베트 전통불화이다.

믹말 씨는 인도 다람살라 사찰에 수많은 불화를 조성한 티베트 전통불화가로 요즈음 이곳 대원사에서 역사상 유래가 없는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근·현대 선지식들의 진영을 티베트 불화 탕카(Thangkas)양식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 현재 믹말 씨가 작업 중인 큰스님 탕카는 송광사 전 방장 구산스님과 지난해 입적한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이다.

티베트 탕카는 한국불화의 괘불과 같은 양식으로 주존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이지만 때론 보살이나 큰스님을 그리기도 한다. 한국의 탱화는 크고 절에서만 참배할 수 있지만 티베트 탕카는 작고 둘둘 말아 누구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티베트에서는 각 가정마다 탕카를 모셔 조석예불은 물론 집안에 드나들 때마다 예경한다.

지난해 12월 제작에 들어가 이미 제작 완료된 구산스님 탕카는 크기 45×65cm 비단천에 배경은 티베트 양식의 산수화가 그려있고 탁자에는 티베트의 금강저대신 양초와 향이 그려져 있다. 구산스님의 진영은 살아있는 듯 사진보다 섬세한 기법으로 묘사되어있고, 배경은 티베트 불화에 자주 등장하는 땅에 피는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점심공양 이외에는 줄곧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초상화 기법을 탕카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워낙 세심한 부분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상호를 그릴 때 신심이 절로 난다는 믹말 씨. 어려서 탕카를 처음 배울 때 3년간 연필로 부처님 상호-몸통-장식물 순으로 스케치만 했다. 그러다 2년 넘게 채색하는 법을 익히고서 스승으로부터 인가 받아 독자적으로 탕카 제작에 들어갔다.

티베트 불화는 사리불이 제시한 제작법에 따른다. 신체뿐 아니라 복장, 장엄구 등 모든 피사체가 정확한 비율과 형태로 통일되어있다. 티베트 불화가라면 스케치를 배우는 단계일 때 신체 각 부분을 비율에 따라 그리는 연습을 거듭 반복하기 때문에 인물을 그릴 때는 말 그대로 눈감고도 그릴 정도다. 그렇지만 이번 큰스님 탕카는 예외다. 탕카에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옷을 입듯 속옷에서부터 한겹한겹 붓으로 옷을 입혀야한다. 그래야 탕카 주인공의 옷을 입고 있는 품새가 나고 금방이라도 일어설 듯 하다.

큰스님 탕카를 그리면서 믹말 씨는 섬세한 부분의 붓 터치 땐 숨을 장시간 멈춘다. 잠깐이라도 숨을 쉬기 위해 붓을 멈추면 그림의 생명까지 멈춰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구산스님 탕카를 보고 있노라면 살아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그러니 누구든 탕카 앞에 서면 저절로 합장 예경하게 된다.

한국의 작은 티베트로 불리는 대원사는 최근 사찰 앞에 자리한 티베트 박물관과 수미탑의 벽화작업을 마쳤다. 이로써 대원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티베트 불교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게 됐다.

2001년도에 개관한 티베트 박물관에는 주지 현장스님이 15년 전부터 모은 티베트의 탕카, 만다라, 밀교법구, 민속품 등 1000여 점의 티베트 미술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이번 큰스님 탕카 제작도 티베트 불교 문화보급에 앞장서오고 있는 현장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조사전이나 진영각에만 모셔져 있는 큰스님 진영을 재가불자의 가정으로 옮겨 생활 속의 불교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티베트 탕카를 이용한 것입니다. 큰스님 탕카가 완성되면 인쇄물로 다시 제작해 인연 있는 신도들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 첫 작업으로 은사인 구산스님과 선방수좌시절 많은 가르침을 준 청화스님을 추모하는 뜻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했다. 다음엔 통도사 초우스님을 예정하고 있으며, 계속해 큰 스님들의 탕카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청화스님 탕카 마무리를 하고 있는 믹말 씨의 작업은 이달말경 모두 완성된다. 대원사는 큰스님 탕카를 오는 4월1일부터 3개월간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에서 '티베트 왕궁화가 특별전'을 갖고 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특별전에는 믹말 씨와 티베트 왕궁화가들의 탕카가 함께 전시된다.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 061-852-3038)

글·사진= 이준엽 기자


탕카로 그린 송광사 전 방장 구산스님. 구산스님 영정은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듯 하지만 이 역시 그린 것이다.

큰스님 진영, 티베트 불화 양식에 접목
사실적 묘사로 사진을 보는 듯 섬세
사리불이 제시한 기법따라 피사체 통일
믹말 씨 구산스님, 청화스님 작업 중
최근 박물관과 수미탑 벽화 마쳐


대원사 내 티베트 박물관.



믹말씨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그림에 소질이 있던 믹말(Migmar·36세) 씨는 13세 때 티베트 라사에서 탕카의 명인 '폽겔' 산하에 들어가 그림공부를 하고, 인도로 망명해 다람살라 티베트 도서관에서 5년간 '샹게이시' 스님 밑에서 탕카를 그렸다. 그 후 왕궁화공이 되어 후진양성을 하다 2년 전 한국에 와서 한국 불화와 티베트 탕카를 비교 연구하고 있다.

왕궁화공, 양국 佛畵 비교 연구
한국 - 황금색 위주에 자유로와
티베트 - 다양한 색상 정확한 표현

"티베트 불화는 꽃이나 자연환경이 자주 등장하는데 한국 탱화는 불상위주로 구름장식이 많으며,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에도 티베트는 바탕 위에 덧칠을 하는데 반해 한국은 그림을 먼저 그리고 농도(물을 이용)의 강약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양국의 불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믹말 씨는 또한 "부처님 상호도 한국은 노랑과 황금색 위주이지만 티베트는 빨강 노랑 하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한다"며 "티베트 불화는 사리불이 제시한 기법에 의해 상호, 수인, 비율을 정확하게 그리는데 반해 한국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믹말 씨는 "티베트의 전통불화는 중국이 1979년부터 티베트 문화를 허락하면서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어 아직 탕카를 제작할 인재가 흔치 않다"고 소개하고 한국의 큰스님 탕카 조성을 계기로 집집마다 불화를 모셔 불자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했다.





조계종 구족 ·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 4월 8~17일 열려

제24회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이 4월 8일~14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다. 이어 15일부터 제12회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이 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구족계 산림에는 2000년 4월 이전 사미계를 수지한 사미 · 식차마나니로서 강원 · 중앙승가대 · 동국대 불교대학 · 기초선원을 졸업하거나 1995년 이전 출가자로 선원에서 8안거를 마친 사미 · 식차마나니가 참가한다.

식차마나니 산림은 2002년 이전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기본교육기관에서 3학년(사교반)으로 재학중인 사미니를 대상으로 열린다. **권형진기자**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준비 진각종,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5월 26일. 그러나 벌써 봉축행사 준비가 시작됐다.

진각종은 2월 16일부터 3월말까지를 봉축행사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참여기반 확대와 신행의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봉축행사를 통해 밀교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것. 지난해에 비해 한달 가량 준비를 서두른 이유도 '진각종 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종단과 산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봉축시스템을 갖춰나가는 한편 종단문화와 종책의 홍보, 종단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종단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 발굴을 비롯해 봉축시상제 등 경연대회 상설화를 통해 진각종과 불교에 대한 관심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하단체별 연희단 구성, 밀교문화 재연을 위한 연구, 다양한 장엄물 제작, 문화공연 기획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개성 영통사 기와 지원 재개 천태종, 23일 4차분 북송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가 추진하는 개성 영통사 복원용 기와 지원이 2월 23일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8일 전달할 예정이던 4차분은 북측의 사정으로 취소됐었다. 이어 1월 12일 계획됐던 재전달도 무산된 바 있다.

북한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가 2월 3일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측에 보낸 전문을 통해 "2월 23일 4차 기와지원 물자를 받으면서 대표단 10명의 1박 2일 개성 체류와 역사문화유적 참관에 이상이 없음을 알린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는 4차분 6만5천장을 2월 23일 전달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비구니강원 세운다

울산 보덕사에…3월말까지 학인 모집

태고종이 종단사상 처음으로 종립 비구니강원을 설립한다.

태고종 총무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소재의 보덕사에 종립 태고비구니강원을 설치하고 3월말까지 학인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강주와 강사, 교과, 개강일시 등 강원 · 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태고종은 비구니 스님들의 전문수련을 위한 연수원도 보덕사에 설치 운영한다. 강원과 연수원에 필요한 강당 · 도서관 등 부대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1970~80년대에는 파주 범륜사와 서울 천중사에 비구니강원이 설치되기도 했지만, 이는 전 종정 보성 스님과 덕암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들의 원력으로 세워졌을 뿐 종단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태고종 내부에서는 1천명이 넘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비구니강원과 선방 등 교육 ·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여기에는 선암사강원에서 사미 · 사미니 합동교육으로 진행되는 미비한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 비구니강원 설립으로 태고종 승려교육 강화계획이 활기를 띠게 됐다. 태고종 총무원은 태고비구니강원을 선암사강원과 함께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년 과정인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하면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선암사 또는 태고비구니강원을 수료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태고종립법 개정을 비롯해 종단의 승려교육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관련법령 제 ·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방불교대학은 기본교육기관, 강원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태고비구니강원을 1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전문교육 도량이면서 종단의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법인 설립 등 조직강화 주력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 올 종무계획·주요 사업

지역 교구 현실에 맞게 31곳으로 확대 재편성



총화종이 조직력 강화에 나선다. 17개 교구를 31곳으로 세분화한 데 이어 3월에는 중앙종무기관 주요 임원진을 대폭 교체한다. 또 문화복지교육관 불사를 통한 사회활동 확대, 종도 원력을 담은 원찰 건립 등 굵직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종무원장 남정 스님으로부터 종단의 변화와 운영계획을 들었다.

▶종단 운영계획은

종단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를 '조직력 강화의 해'로 정했다.

종단의 힘은 강한 조직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조직력 극대화를 실현하는 조직은 많지 않다. 그만큼 조직력을 갖추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종단은 소속 사찰 수는 많으면서도 그에 맞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총화종이 앞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견고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이런 뜻에 동참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사찰은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이뤄진 불교재산이므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우선 지역교구가 17곳에서 31곳으로 늘었다. 기존의 교구 분할 기준은 광역시 · 도별 구분이었다. 그러나 1개 교구가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다보니 교구종무원의 역할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교구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교구 활성화와 지역사찰의 역할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문화원장 등 6부 원장과 각종 위원회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3월 2일 있을 예정이다. 교구세분화에 따른 지방종무원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도 같은 날 이뤄진다. 이를 계기로 종단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종단운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간부들이 종단관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총본산 역할을 하고 있는 남양주 수진사에 문화복지교육관 건립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 포교 공간으로 활용될 문화복지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천5백평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곳에는 어린이집, 종단 산하 신행단체, 노인요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종도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원찰 건립 불사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원찰은 교육 · 행정 · 수행의 중심지로 종도들의 큰 원을 담은 도량이 될 것이다. 총무원장 임기인 2006년까지 부지 선정과 불사계획 수립 등 불사준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3월 14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되는 해외성지순례와 6월 보살계 수계법회, 9월 전국방생법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승려 재교육을 위한 종도 연수, 한일불교 교류, 한중일 불교 교류 등도 추진한다. 이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간부진 개편 등 인사 쇄신도 이뤄질 것이다.

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금강대 올 예산 77억5천만원

천태종 종립 금강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이사장 도용)은 2월 6일 열린 제19차 정기이사회에서 77억5천4백여 만원의 금강대 예산을 의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종석(종교학) 최기표(천태학) 김창남(일본어) 염죽균(중국어) 마이클 리브(영어) 등 5명의 교수 임용을 확정했다. 천태종에서 금강대에 지원하는 전입금은 70억 2천4백여만원으로 총 예산의 90.6%를 차지한다.



천태종 유치원교사 교리강좌

천태종 종립 유치원 교사 불교교리 강좌가 2월 7~8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는 전국 17개 유치원과 2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태종의 신앙' '부처님의 생애'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관음정진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장 용암 스님은 "종단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아동들에게 불교를 쉽게 전달하는 현장 포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종단소식

어린이 졸업 수련법회

천태종은 2월 21~23일 총본산 구인사 관성당에서 제18회 천태종 어린이 졸업 수련법회를 연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6학년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이번 법회는 불교와 천태종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한 관음정진, 종정 도용스님 친견, 모둠 예술제, 눈썰매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수련회를 수료하고 중 · 고교생으로 구성되는 전국학생회로 가입하게 된다. 한편 천태종은 4, 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회 활동에 대한 취재활동을 벌이는 '법화꽃' 기자를 선발한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의정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곰두리네집이 3월 단기보호센터를 개소한다. 낮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과는 달리, 단기보호센터는 하루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은 물론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1)829-8294

중국 보타사 등 성지순례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항주 항산사, 보타산 보타사, 낙가산 보은사, 조은사 등지를 순례한다. 이 순례에는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교무부장 혜경스님 등 종단 소속 스님들과 불자 5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51)466-3977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의 특별한 도반

일터신행, 그 속에 '특별한' 도반이 있다. 직장에서 불심을 키우는 불자가족이 바로 그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신행의 거울'이 되어 주고 있다. 직장불자회에서는 핵심 일꾼, 집에서는 가족신행공동체를 일구는 일터불심들. 이들은 '가족애'가 '법우애'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신행활동을 하고 있을까? 2월 10일, 이들 가족의 불교사랑 이야기를 들여다봤다.



경찰관 이승석 가 수 공미영 부부



지하철법우회 심길섭 · 재창 부자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하는 이승석(왼쪽) · 공미영 부부.(사진 위)
심길섭(왼쪽) · 재창 부자. 서울시 지하철공사 법우회의 '터줏대감' 들이다.

부전자전 · 부창부수

'법우애'로 통하죠

이승석(38 · 청담) · 공미영(34 · 연화) 부부. 남편 이 씨는 경찰관이고, 부인은 가수다. 이승석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감사를 맡은 지 2년째고, 아내 공미영 씨는 '새내기' 대한불자가수회원이다. 결혼은 올 해 9년 차. 이제는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아는 '부부도반'이다.

불교와의 인연은 기독교 신자였던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교회 학생회장도 맡았고 성경퀴즈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 공씨도 교회 찬송가 반장으로 음악에 취해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이들 부부는 갑자기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불교로 돌아섰다. 이후 이 씨는 1989년 경찰에 투신하면서 공 씨는 불자가수회에 몸을 담그면서, 각자의 일터에서 신행의 깊이를 더해오고 있다.

심길섭(69 · 각원) · 재창(43 · 금산) 부자. 서울시지하철공사 법우회 도반이다. 아버지 심 씨는 지난 1991년 법우회 창립을 주도해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아들은 현재 총무부장을 맡고 있다. 시쳇말로 대를 이어 법우회에 충성(?)하고 있다. 아버지는 법우회 발전에 토대를 닦았고, 아들은 그 위에서 일터신행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같은 직장에서 피보다 더 진한 법우애를 나눈 이유는 뭘까. 이들 부자는 불교에서 살아가는 이치를 배웠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부처님 닮기를 평생의 서원으로 삼았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닮으려했다. 41년 철도인생이 그랬고, 아들이 1986년 서울시지하철공사에 입사한 이유가 그랬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이 씨 부부한테 딱 들어맞는다. 일터불자회에 대한 사랑도 똑 같다. 청년포교에 대한 열정은 더 대단하다. 남편은 전 · 의경 포교에, 아내는 군포교에 헌신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로 몰랐어요. 아내가 전방 GOP, 논산훈련소 등의 군부대를 돌며 음성공양을 하는 지를요. 집사람도 제가 전 · 의경 포교활동을 하는지 몰랐죠. 가끔 청년포교의 중요성을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맘이 통했었어요."

남편 이승석 씨의 말이다.

이들 부부는 각자의 일터에 '젊은 바람'도 일으켰다. 남편은 1994년 경찰청 불교회 활동 시절에 수묵화, 다도회, 찬불가 경연 등의 문화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참여를 폭발적으로 이끌어냈다.

아내도 이어 뒤지지 않았다. 2002년 대한불자가수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청년층을 위한 찬불가 보급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북동 길상사 합창단을 지도하는 것도, 경구를 노랫말로 담아 음반을 내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동안 우리 부부가 일터에서 신행활동을 해온 것은 엄청난 인연 복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같이 손잡고 보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말이예요."

아내 공 씨가 힘주어 말한다.

>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 과시
> 밀어주고 끌어주는 호법신장
> 화목한 가정 · 즐거운 직장 일궈

심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터에 '가족 신행' 붐을 일으켰다. 동료 중심의 모임 운영을 회원들의 아내, 남편, 아들, 딸들이 참여하는 법우회로 탈바꿈시켰다.

창립 초기부터 지하철 플랫폼에서 떡을 나눠주며 회원을 모집했고, 정기적으로 '철도 무사고 기원 및 여객 자살자 천도 특별법회'도 마련했다.

"회원들만의 법우회 활동은 한계가 있었어요. 회원들은 바쁜 업무로 법회 참석도 힘들었죠. 고민 끝에 우리 부자가 내린 결론이 바로 가족신행운동이었어요. 항상 사고 위험을 걱정하는 회원과 가족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더군요."

아버지 심길섭 씨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심 부자의 신행 운동은 1993년에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사 내에 자체 법당을 개설하고, 최근에는 법요집 <신수봉행(信受奉行)>을 발간케 한 원동력이 됐다.

"아버지의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야말로 법우회 일이건 집안이건 금방 공감대가 형성돼요. 법우님들이 '참으로 복도 많은 부자(富者)'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서로에게 신행의 호법신장이 되어주니 너무도 행복해요."

아들 심 씨가 환한 미소를 짓는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동두천시 공무원불자모임 '삼보회'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거룩한 사부대중에 귀의합니다.' 불가의 세 가지 보물인 '삼보'. 우리 동두천시청 삼보회의 창립 정신입니다. 지난 1997년 창립한 뒤, 지금까지 공무원 불자로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해왔습니다. 또 공직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지역불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삼보회가 동두천 지역의 유일한 직장불교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첫 출발은 이랬습니다. 동두천 일연사에서 동두천사암연합회 스님들을 모시고,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당시 동참했던 28명의 회원 얼굴에 가득찬 환희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으로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삼보회는 무엇보다도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재적사찰인 보문사에서 지도법사 중화사 주지 용하 스님을 모시어 감로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불자가 알아야 할 기초교리에서부터 사찰 기본예절, 자원봉사 활동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짬지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불자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은 일상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분기별로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 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일연사 주지 적연 스님이 직접 설명을 해 줘, 한국전통불교문화를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시간들이지요. 그간 순례한 사찰만 20곳이 넘습니다. 경기 봉선사,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김천 직지사, 경주 불국사, 대구 동화사, 순천 송광사, 김제 금산사 등 이름만 들어도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명산대찰입니다.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지역사찰과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매월 관내 사찰을 돌아가며 순례법회를 열었고, 2003년에는 사암연합회와 시청 소회의실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이어졌고, 우리 삼보회 활동도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 꾸준한 정기법회가 성공 비결
> 관내 사찰 순례하며 돈독한 '정' 쌓아



경기도 동두천시청 삼보회원들이 지난해 여름 경주 불국사 성지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삼보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정기법회의 주기를 한 달에 두 차례로 좁히고, 자원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주 모여 법에 대해 논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법음도 함께 나누고, 나누는 보살행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해부터는 덕망 있는 큰 스님들과 불교학 전공 교수님들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회원들의 불교공부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경전 독송 소모임 결성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숙표 총무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2004년도 1학기(11기생)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생 모집

1. **수업시간** : 불기 2548년(2004년) 3월 2일부터 ~ 6월 17일까지(15주)
2. **강의요일 및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까지(3시간 30분)
3. **모집인원** : 40명 4. **수 강 료** : 40만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6-24-0629-134 이우범)
5. **접수기간** : 2월 11일부터 ~ 3월 2일까지 ※ 전화접수 가능
6. **문 의 처** :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41-4 한성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사회교육원 교학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 4번출구, 전방 150m)
교학과 전화 : 02)743-0728, 0727 / FAX : 02)744-8480

※ **2년 전과정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 1학기 과정 수료생에게는 사회교육원 원장 명의의 종무행정 고위자과정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개설과목 –

교 육 내 용	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교 수 진
컴퓨터 교육 · 문서작성 기초부터 문서작성과 인터넷 활용법까지 (컴퓨터 1일 1대 실기위주)	매주 목요일 1교시 오후 1시 30분 ~ 3시	2학기 15주 30시간	한완상 총장 이우범 원장 황진수 교수 최용식 교수 김의식 교수 김세종 교수 이용윤 강사 이천복 강사 최미순 강사 강희종 강사 채지원 강사 류한평 강사 (※과정에 따라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명학(작명법) · 명리학 · 풍수지리학 · 불교미술 불교와 사회와의 연관성 강의, 승려복지, 불교미술, 임상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향기치료 성명학 · 명리학 · 풍수지리학 등 사회계층관련 심층강의	매주 목요일 2교시(A) 오후 3시 20분 ~ 4시 50분	2학기 15주 15시간	
종무행정과 정보 · 재산관리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부동산관련법 해설, 금융자산의 활용, 정보관리 등 심층강의	매주 목요일 2교시(B) 오후 3시 20분 ~ 4시 50분	2학기 15주 15시간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http://www.hansung.ac.kr/~socialedu 02)743-0727~9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봉 약천사 양력 3월 8일 행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아기 지장보살님

- 일 시 : 2004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11시 (음, 2월18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3월 8일 (음, 2월1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4월19일 (음, 3월 1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회당 별도
※ **위패비, 아기옷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고려불화 도자기판에 '환생'

도판 불화 제작하는 임남재씨

고려불화를 도자기판(이하 도판) 위에 재현하고 있는 도예가 행천 임남재씨(50). 분청사기 작가로 익히 알려진 그는 다완과 그릇으로 이미 수십차례 국내외 개인전을 가졌다. 하지만 임씨는 "고려불화를 도판에 재현해 보니 기존에 만들었던 그릇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30여년 흙을 만지며 살아온 그의 작업 끝자락에서 발견한 것이 도판에 고려 불화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도판에 석채로 그린 관음보살도.

일본서 고려불화 보고 큰 감동
30년 도예의 길 '대전환' 계기
숱한 시행착오 끝 비법 찾아내

"2년전 개인전시 때문에 일본에 갔을 때 우연히 고려불화를 봤지요. 우리 것인데 모두 일본에 있다는 것에 분통이 터졌어요. 오기가 생기더군요. 당신들은 비록 종이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도판 불화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각오를 세웠지요."

그때부터 그의 작업실은 찻잔과 그릇대신 도판불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도판 불화는 그릇 만드는 것보다 몇배의 시간과 정력이 소비된다. 우선 산청과 문경, 여주에서 파온 흙을 섞어 만든 분청사기로 사각형의 도판을 굽는다. 이때 도판의 두께는 같아야 한다. 도판 작업이 끝나면 고려불화의 초(楚)를 대고 불화 그릴 자리를 양각한다. 초벌과 재벌구이가 끝나면 그 위에 석채(石彩)로 정교한 고려불화를 그린 후 다시 굽는다. 얼핏 들으면 뭐 그리 어려울까 의아해 하겠지만 20시간의 초벌구이(900℃)와 10시간의 재벌구이(1230℃), 이어 10시간의 삼벌구이(1150℃)까지 끝내야 비로소 도판 불화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보통 한 작품 하는데 한달이 소요될만큼 정성이 깃들여져야 된다. 정교함과 화려함으로 종이에 그려도 어려운게 고려불화인지라 도판위에 그리는 데는 남다른 어려움이 많았다. 작업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불화를 그리기 전에 도판이 갈라지는데 있다.

"이 원인을 찾기 위해 처음에는 밤을 지새며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도판 자체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바람을 쐬게 되면 흙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 도판이 갈라지고 뒤틀리기 일쑤였지요. 또한 흙으로 빚은 사각형의 도판이 초벌과 재벌구이를 하면 20% 정도 줄어들어 그림의 크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돌가루다 보니까 화려한 고려불화를 재현해 낼 수 있는 색감의 표현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작업정교해 한 작품에 한달이상
석채로 채색, '수월관음도' 등 완성
5월, 20여점 서울서 전시 계획

석채를 구하러 미술품상에 가서 도판으로 불화를 재현한다고 하면 '돈키호테같은 미친 짓' 이라며 냉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런 말에 신경쓸 것이었다면 애초 흙을 만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주변에서 완성된 도판 불화를 보고 그저 "기도하고 싶은 발심이 생긴다"는 말이면 족했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현재 1m 가 넘는 크기의 '지장보살', '수월관음도', '백의관음도' 등 13점을 완성했다. 앞으로 5월 전시까지 10여점을 더 만들 계획이다.

고려불화 재현 작가인 강록사씨는 "흙의 특성상 색채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10여가지의 석채로 붓질을 수십번 해가며 고려불화를 그려낸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완벽하게 재현하지 않더라도 임씨의 작업은 고려불화를 다른 질감을 이용해 재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먼 길을 돌아온 임남재 씨의 영혼의 그릇은 바로 그가 신명을 바쳐 만드는 한점 한점의 도판 불화들이다.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세계적으로 정교함과 화려함을 인정받는 고려불화가 수백년간 변하지 않을 도자기 위에 환생하길 발원하며 작업한다는 임남재 씨.

문화 소식



가무악극 '소용돌이' 예술극장 공연
'신명' 되살리며 우리가락의 '모던화' 시도

'한국판 춤추는 오케스트라'를 표방한 서울예술단의 가무악극 '소용돌이'가 오는 2월 26~29일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려진다. 이번 공연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문화였던 사물놀이를 통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신명'의 의미를 되살려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예술단은 사물놀이에 담긴 우리 문화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세련된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번 공연에서 우리가락의 '모던화'를 시도했다.

먼저 동편, 서편 두 패로 나뉜 놀이패가 생동감 있는 연주에 맞춰 화려하고 다양한 춤과 놀이, 스피디한 이야기 전개로 잔치의 흥을 돋군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춤패와 소리패의 구분없이 전통 가락에 맞춰 다양한 도형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된다.

서울예술단의 주미석씨는 "우리의 사물은 풍물과 음악 노래 춤이 하나가 돼 관객을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시원한 울림…마치 山寺에 온 듯
홍석창 문인화전, 노화랑에서 28일 까지

화가 홍석창(홍익대 동양화과 교수)씨는 지난 40여년 전통 문인화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왔다. 문인이나 선비가 취미로 즐기던 문인화의 맑고 그윽한 세계는 홍씨 붓을 따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화선지에 스며들어 단순하면서도 시원한 울림과 향기를 자아낸다. 그래서 그의 전시장을 둘러보면, 잡다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한 산사(山寺)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다. 2월 28일까지 서울 관훈동 노화랑에서 열리는 '홍석창 展'은 2년 전 '채묵 40년 전'으로 화력을 돌아본 뒤 한층 여유와 자유로움을 풍기는 화가의 근작전이다. 매화, 국화 등 사군자를 소재로 한 '청(淸) I', '청향(淸香)', '유향(幽香)' 등 20여 점이 나왔다. (02)732-3558.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빙의, 그 영혼의 노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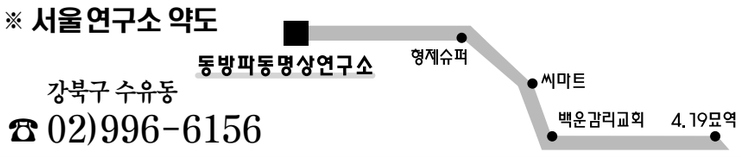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 연구소 약도



강북구 수유동
☎ 02)996-6156

「파동명상 요법」에 대하여

모든 존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있고,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발하고, 또한 *저마다 독특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황도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보병궁시대의 입구에 위치해 있는 이 시대는 영적靈的개화의 시기로 인간의 마음이 열려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교신의 실재성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교감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영성靈成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몸이 있고 없음으로 나뉘어 지고 영혼이 입는 외피가 육체라고 할 때 그 물질의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동의 주파수는 항상 우주공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TV나 라디오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온갖 방송을 다 듣고 볼 수 있듯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를 살다간 수많은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파동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볼 수 가 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영적 현상인 빙의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파동음을 들려주면 그 사람의 몸 속에 숨어 있는 빙의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때 그 존재들을 다루는 방법만 공부하게 되면 구병시식이나 제령, 천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혼요법이다. 또한 ***파동명상을 통해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의 주파수대가 높아져 영적능력이 향상 발달되며 수행자의 근기根氣에 따라 영통을 이룰 수 있어 중생을 제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 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 ~ 금) ◈ **강의장소 :** 서울,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국회통과된 '고도 보존특별법'

경주 · 부여 등 옛도시 '통째' 관리
예산확보 · 법적 근거 보완 '시급'

정치 · 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지닌 옛 도시(古都)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고도 보존특별법'이 2월 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 즉, 점(點) 단위 문화재 정책에서 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는 면(面) 단위 정책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법 상에서는 사찰이나 석탑은 보호가 가능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들어선 고층건물이 사찰 경관을 가로막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 그동안 자기 집을 보수하려다 범법자가 되기도 했던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 보존 특별법이란?

고도 보존특별법은 경주 · 부여 · 공주 · 익산을 고도로 지정해 해당 도시를 '통째' 관리하는 법이다.

고도는 이 네 곳 외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고도 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지역 내에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해 문화재에 관한 행위 제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특별보존지구'는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 건물의 신축, 증 · 개축 등 일체의 현상 변경이 금지되는 지역이고,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주로 특별보존지구 주변 지역으로 현상 변경을 제한해 고도의 역사 문화환경을 유지 ·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지정지구 내에서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토지 · 건물의 소유자가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들여야 한다.

2001년 11월 국회의원 159명이 서명, 김일윤 의원(한나라당 · 경주)이 대표 발의한 고도 보존특별법은 2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 작업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남겨진 과제들

특별법은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존할 문화유산은 확실히 보존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예산 확보, 문화재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총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 의혹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경주 지역에서만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4개 지역을 합할 경우 수 조원의 재정 지원이 예상돼 이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문제다.

이미 기획예산처는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한 바 있다. 특별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기금법을 따로 제정하거나 문화재 보호기금을 적극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일윤 의원측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은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예산은 대부분 국고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경주 지역만 1조 6천억 필요 추산
기금법 제정 등 적극적 조치 불가피
유관 법령과의 '상충' 합리적 해결을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보존특별법이 상충되는 문제도 주목해야할 문제다. 경주 등 고도로 지정된 네 곳의 유적지 대부분은 이미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법 상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현상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보존특별법에서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단, 시행령 제정 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문화재청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문제다. 권한이 위임되면 문화재청장이 두 번 똑같이 사인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사적과 윤순호 사무관은 "이번 특별법은 문화재 보존에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특별법 통과로 경주 지역 주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이사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4월부터 용산 이전 시작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오는 10월 '2004 세계 박물관대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일시 휴관에 들어간다. 70년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005년 용산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2월 10일 발표했다. 올 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점을 두는 업무는 단연, '박물관 이사'. 현재 용산 새 박물관 본관 건물은 95.4%의 공정율을 보여, 2월 말이면 본관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일부 사무실과 소장품 이전이 시작된다. 이전 할 소장품은 수장고 9만 2천점, 전시실 5천 3백점, 야외 석조문화재 32점 등 10만 점이 넘고, 5톤 트럭으로 400여대 분량에 이르러 그야말로 '문화재 대이동'이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5월 불상을 이전할 때에는 이운식(移運式)도 봉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 기자

불교관련 박사논문 7편 발표

2003년 전기 박사 학위 수여자들이 발표한 불교학 관련 논문은 동국대 4편, 상명대 1편, 원광대 1편, 홍익대 1편 등 모두 7편. 석사논문은 동국대 18편, 위덕대 6편, 서울대 2편 원광대, 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각 1편 등이 발표됐다.

논문 제목	이름	대학	학과
'도신장(道身章)'의 화엄 사상 연구	박서연	동국대	불교학과
원효의 보법(普法)화엄사상연구	석길암	동국대	불교학과
한국 불교무용의 사상적 의미와 문화 예술적 가치연구	김종형	동국대	불교학과
조선 후기 괘불 연구	이영숙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가여래 설법도상의 연원과 전개	김현정	상명대	사학과
사명지예(四明知禮)의 천대실상론 연구	박혜훈	원광대	불교학과
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도상 연구	이숙희	홍익대	미술사학과

1면에서 이어짐

이번에 보강처리가 결정된 석탑 3기는 감은사지 서탑의 해체 보수 이후 차례로 정비작업이 진행된다.

1996년 해체 보수한 후 8년 만에 다시 정비에 들어가는 감은사지 동탑은 그동안 '적심이 내려 앉아 탑 부재에 변형이 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2000년 실시했던 안전진단에서 표면 풍화와 생물 서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후, 2년이 지나서야 보수가 결정돼 석탑을 방치해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감은사지 동탑은 이번 안전진단에서 동 · 북측 1층 옥개석이 옥개받침석과 4.5cm 정도 사이가 벌어져 있고, 각 부재에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견돼 전반적으로 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불국사 다보탑은 조각이 정교한 만큼 석재의 피로도가 커 풍화가 심하며, 상륜부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대각선 균열을 보였다. 석가탑은 내시경 검사 결과 적심이 침하돼, 상 · 하층 기단 갑석의 모서리 들림, 하층 지대석 교란 현상을 보여 사업단이 해체보수를 건의하기도 했다.

해체 보수 공사가 결정된 감은사지 서탑은 미륵사지 석탑보수정비에 도입된 것과 같은 철골구조의 가설 덧집을 설치하고, 구멍이 난 부분은 동일한 석재를 깎아 넣거나 비슷한 재질로 메운다. 또 부재의 풍화가 심한 것을 고려해 우레탄 폼을 씌워 통째로 드러내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감은사지서탑.

불국사의 두 탑은 사찰 내에 위치해 있고, 불국사의 관람객이 많은 만큼 불국사 측과 협의해 공사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탑 정비를 위해 설치하는 비계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보탑 공사가 끝난 후, 석가탑 정비에 들어가게 된다.

오유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2>

허상과 믿음

믿음 중요해도 '맹목적'이면 미신
허상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 기르자

세상은 이미지(image, 相)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사람이 접하는 상(相)은 그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한다. 과거에는 먹고 자고 농사지으면서 구체적인 대상 속에서 살아왔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더불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TV 화면 속의 상과 같은 또 다른 의미의 허상(虛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TV에서 아무리 열띤 경기가 한창일지라도 그것은 얇은 TV 화면 속에서 경기의 표면만을 재구성한 빛의 변화일 뿐이다. 필자 역시 어릴 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그 속에 작은 사람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지난번 월드컵 경기 때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 얇은 유리판에 비춰지는 빛을 보고 열광하고 낙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참으로 괴기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다. 만일 누가 실제와는 다른 거짓 화면(相)을 비춰준다 해도 우리는 그 내용을 믿어 울고 웃고 할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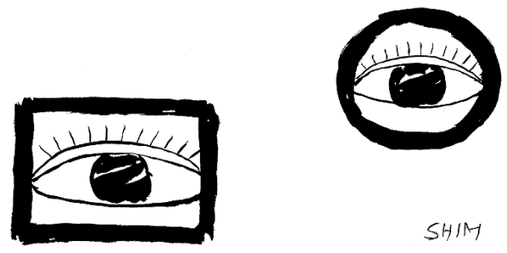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라는 것도 하나의 상(相)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 우리들 각자는 나름대로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따라 울고 웃으며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 우리가 의미부여한 허상인 경우가 많다. 허상에 흥분하는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또 다른 허상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재생산하는 구조가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相) 전달인 경우도 많다.

최근 뇌 연구의 발달로 전기적 자극을 통해 환자가 보고 받아들이는 이 세상에 대한 느낌을 실험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환자는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믿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相)이란 실체 없이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나를 둘러싼 상(相)을 믿고 받아들여 그것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을까? 한편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진정한 불자(佛子)라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로서 매(昧)한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상(相)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허망하게 보아야 한다. 부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닌 상이기에 그것마저 허망한 것이니 어찌 부처와 조사를 죽이지 않을 손가.

굳이 말하라 한다면 믿을 것이 없음을 믿어야 하고,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뱀처럼 지혜롭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어가면, 삼계유상(三界唯相)이요, 곧 삼계유심(三界唯心)이니 상과 마음이 다르지 않거늘 스스로 허공 꽃을 지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허상(虛相)에 휘둘려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 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3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가 초급반 (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나 중급반 (3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다 작법반 (6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라 고급반 (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국내 최초 숯의 신비함 힘!!!
숯가루는
차콜이라 불리우는 숯가루는 미국에서나 유럽에선 오래전부터 FDA의 공인을 받아 우수한 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있습니다. 또한 챠콜의 최대 장점은 몸속에서 흡착 해독 작용, 피를 맑게 정화 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 한방에서는 오래전 부터 백초상, 송인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 과
▶ 원적외선 방출 ▶ 미네랄 방출
▶ 탈취효과 ▶ 여과 해독 작용 ▶ 공기 청정


〈참숯원적외선 구이판〉

〈숯다기〉
• 한국 신기술 인정(제2003-024)
• INNO-BIZ 기업(제3031-0292)
• 벤처기업(제021323031-3-1276호)
• 특허(제0376124, 제0353684)
※ 참숯원적외선 구이판은
절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 타지 않습니다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방송(영) 및 도서출간
• KBS (2004년 1월 30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숯에대한 방영)
• 윤동역 PD의 검정숯이야기, 숯이 사람을 살린다, 이정림 숯가루 요법 등...
CA12 라이즈업 코리아 RiseUp Korea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5 킹덤오피스텔 709호
TEL. 053)753-5556 / 080-767-7700 FAX. 053)753-5569
http://www.riseupkorea.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재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일람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등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리산 선인에게 배운「황토사용법」을 보급하는 山人, 明德 洪炫普선생이 추천



건강 황토 단주 세트

정상가 : 60,000원 (15mm x 10개)
특판가 : 36,000원

정상가 : 55,000원 (10mm x 10개)
특판가 : 33,000원

■ 제품문의 : 02)732-1520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회청, 바라, 나비무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탄우 합장

02)939-3327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앙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토굴, 암자 구합니다

부산, 마산, 창원 근교

011-833-0374

토굴스님입니다.

경남지역의 외딴 촌집 보시할분 연락바랍니다

016-889-7926

당신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요 일	오후반(14:00~)	저녁반(19:00~)
월	명리학	사암침술학
화	명리학	사암침술학
수	사암침술학	명리학
목	사암침술학	명리학
금	정통 풍수지리	매화역수
토	명리학	사암침술학
일	사암침술학	명리학

※ 저자 직강으로 책임지도. 중복 수강가능하며 교재무료.
※ 매화역수 개인지도가능.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충남 논산

041)736-5700
016-422-5701

신심있고 가족처럼 함께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지역

054)742-5088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542-4848

행자를 모십니다.

▶ 고졸이상
▶ 만 40세 이하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 지원함

02)917-3363(정릉)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6-642-0059

전통의식, 각종법회행사 천도재, 49재, 기타불공 스님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1-9850-2946
053)653-0287

보리암 성보스님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빙의령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증업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구성학(九星學)강의

「구성학의 기초, 구성학의 사주풀이」의 저자 직강

02)2655-1016
011-340-147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도심에 있는 조계종 사찰

011-828-3618

신심있고 가족처럼 함께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50세 이상)

▷ 제주지역

064)746-05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 월 7일 휴무
▷ 45~55세

054)637-1489

기도스님 모십니다

수행하면서 법공부하실 성실한 스님을 원합니다

▷서울과 안성에 사찰이 있음

019-440-5127
02)578-5508

천도재 구병시식 태아영가 49재 천도 영가천도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태아영가 천도재 3月8日 봉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향토방 사찰

요양하실분환영

▷ 산수 수려함

경기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031)772-7296(종무소)
031)774-4750(주지스님)

소백산 제2지장보궁 내원암에서 조계종단 승려로 건당상좌를 삼아 관리운영을 맡길 스님을 구함
그리고 나무때는 토굴에서 정진할스님도 구함

▷소백산 제2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부전스님 50세이상 공양주보살 60세미만 구합니다

▷ 경기도

011-797-0068

여사무원 구합니다

▷ 숙식가능, 40세이상

공양주보살 구합니다

▷ 숙식가능, 45세이상
경기도 양주시

031)871-0101

총무님과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출퇴근 가능)
화정 광명사

031)978-9782
011-493-1121

비구,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2명
여직원 0명, 사무장 0명 구함

010-9829-3939

배우자 구함

鄭惠溶(49세)

大田에서 인테리어(건재)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학사, 학림사에 다니는 불자입니다.
同聲相應하며 同氣相求할 인연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하시고 인연이 되면 만나 뵙고자 합니다. 017-401-2023

부동산 담보대출

편안하고 신속하게 대출하세요

- 부동산 감정가 60%이상 - 담보사채
- 일반대출 - 매매잔금 대출 - 건설 관련 자금

(주)한국금융상품개발 02)3437-8282

* 금액에 따라 연금리 3%~12%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기도하시면서 대학원 진학하실 기도스님과 조계종단에 출가하여 대도를 성취하실 분께서는 연락바랍니다.

050-2000-2233

탈 종 공 고

•사찰명: 도담사 •주지: 선재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64-5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2004년 2월 18일

대한불교선각종 귀하

총 회 소 집 공 고

(사)군불교진흥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04년 2월 29일(일)오전11시30분
2. 장소: 전남 목포시 용해동 107-5 보현정사 대웅전
2. 안건: 1) 임원선임에 관한 건
2) 2003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3) 2004년도 예산승인에 관한 건
4) 2004년도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건
5) 기타의 건
4. 문의처: (사)군불교진흥회사무국 02)749-5135

- 이 상 -

※ 회원님들의 개인적 통보를 본공고로 갈음하며,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단법인국불교진흥회 회장 석정각 합장

불교대학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포교관리사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 동영상 강의 www.kbs.cc

착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눈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상
* 당뇨 등 다른질병으로 시력저하
* 눈 수술전후, 눈의 모든 불편증세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KIST KDAR03G-3K 식약청 2106909099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눈밝은 세상 (02) 2237-8004

http://eye88.hihome.com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목당易학연구원

작 궁 진 사
명 합 학 주
(개인지도)

02)969-3169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 주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강료 : 월 15만원(교재대금 포함)
▶ 수료후 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한국명리교육원

02)336-8484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 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H · P 011-741-0867

투자하실 분

5천만원 ~ 1억투자
(총지분 45% 배정)

▷**보유자산:** 공장 2억, 원료 및 제품 1억9천만원
투자하신분 재무담당 책임자로 근무가능
한약재 건강보조식품 생산업체

02)420-8083
011-9882-1526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232 – 4755 , 019 – 446 – 4755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포항
● 법당 :
● 요사 : 47평
● 시설비 : 2500
● 가액 : 1000/50

● 위치 : 부산
● 법당 : 36평
● 요사 : 150평
● 부지 : 800평
● 가액 : 25억

● 위치 : 경북
● 법당 : 2300평
● 건평 : 300평
● 가액 : 23억
신도시 중심가로 건물즉시활용 가능하고 도심사찰포교지로 최적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원 최적지 안내

● 위치: 서울 종로구 교북동 대로변
● 평수: 3층 30평
● 후불탱화 4, 영가전, 삼불전, 법당 방2, 식당, 화장실
● 몸만오시면 됨
● 보증금: 천만원 월:백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저렴 결정

011-392-6231
02)385-6708

음택명당(절터)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여주IC 5km
● 530평, 음택명당(정혈 있음)
● 가액 : 평당 30만원
● 도로에 인접해 있고, 조용하며, 풍치 안정되어 있음,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음, 정남향 마사토

017-275-5001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시내 서구청 뒤 자갈치 시장 5분거리 상가주택(약20년된 절)
● 대지: 22평, 실평수: 17평
● 1층 집 2층 법당, 삼존불, 약사, 산신, 용왕, 칠성탱화
● 가액: 9천5백(3천 융자) 실가액 6천5백만원

011-9273-2477

대한불교 중심지역 삼척포교당 안내

● 위치: 충청남북도 경계지역
● 부지 840평
● 건물 40평(대웅전 산신각 요사체)
● 교통편리(열차, 고속도로) 경관수려(앞강, 뒤산, 정남향) 신행정 수도 예정지 근접
● 가액 1억6천만원

041)868-4008

포교당 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암사전철역 부근 대로변
● 법당 35평, 방1, 넓은 옥상에 방3, 공양간, 활용가능평수 6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매매
●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2800만원. 옥상 사용 가능

011)714-3635
02)481-363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명산
● 부 지 : 460평
● 법 당 : 35평(목재)
● 요 사 : 90평
● 가 액 : 5억 5천

● 위치 : 서울근교
● 부 지 : 98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6평
● 가 액 : 1억 9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토굴안내

● 위치: 충남금산
● 대지 100평
● 건평 33평
● 가액: 6,500만원

011-9696-313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신도시 주엽동 (주엽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 단지)
● 시설 25평, 법당과 방 한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탱화, 시설A급, 3층건물에 3층 철학관으로도 적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천 2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40평(주차 8대)
● 가액: 9천만원

011-9802-313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영
● 대지: 150평
● 법당: 12평
● 요사채: 25평
● 가액: 9천5백만원

016-652-7547

사찰부지안내

● 성남시 분당 5km
● 대지 200평, 토목공사 완료
● 법당 45평 허가득
● 분당시범단지 전철역간, 마을버스 있음
● 가액 2억 5천만원

031)718-3114
011-9069-445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5억 8천만원 (대출가능)

● 위치 : 경기도 양평
● 부지 : 4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전세가 : 2억 5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 대지 58평 건평 60평 (현대식 주택 개조)
● 1층 요사채 2층 법당 내부깨끗하고 주위경관 아늑함 대단지 아파트 옆
● 사정상(공부하러감)매매
● 가액: 2억원

011-858-9450

소원성취척천 건강도지키는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포교당안내

● 위치: 방학동 방학3동 동사무소 근처
● 법당 3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2)3494-4962
011-669-3345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흥덕사지옆 흥덕사원
● 평수 : 총 60평 법당 15평, 방 4개, 거실, 목욕탕, 부엌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1-806-4867

절 터 안 내

● 위치: 경주 감산리
● 대지: 1200평
● 건물: 40평(기초 완성)
● 가액: 5천5백만원(절충가능)

018-523-9900

사찰안내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 대지: 100평
● 임법당(임대) 방3개, 주방1개
● 가액: 7천만원

011-888-0130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전기. 전화 유)
● 전1991평 (불사가능 터로 터 정리됨)
● 가액 5800만원

054)672-7619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2001년 준공) 심야보일러 설치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000평 준농림지로 형질 변경 가능함(대지) 칠갑산 장곡사 인접지역, 좌청룡 우백호 명당임
● 현재 선원으로 사용중
● 가액 1억 5천만원

011-434-7209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
● 부지: 1500평
● 법당: 40평(목제)
● 요사: 60평
● 양도가: 12억
● 산세 및 계곡좋음

011-688-352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특별조건: 납골시설 완비

011-9415-6831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청평 서울과 춘천 지하철 공사중 절밑으로 4차선 준고속도로 공사중
● 산세수려하고 경치 좋음
● 임법당 : 10평. 산신각
● 200평 대웅전 건축허가 필
● 평당 : 20만원

011-823-3562

암 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성군내
● 대지: 258㎡
● 건물 2동 청정하고 깊은 산속 초가상간 암자
● 전기 없음
● 가액: 상담 후 결정

053)611-9875~6
017-208-555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 대지 : 57평
● 법당 : 20평(2층)
● 요사채 : 32평(1층)
● 지하방 4개(세) 마당 : 주차함
● 법당, 모든집기 염가로 모셔갈분
● 가액 : 평당가격(전세도 가능함)

011)9637-2632

사찰안내

● 위치: 부산
● 대지 300평
● 임야 2천5백평
● 인등 3천개
● 가액 9억원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압구정 로데오거리 최요지
● 실내면적 약30평, 법당, 상담실, 공양실 창고
● 보증금 1천5백만원(월 70만원) 슴 3천3백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및 상담활동가능(조건좋음)
● 스님, 법사, 무속인, 철학원 용도
● 주지법사님의 유학관계로 급매함

02)3444-9335
011-9701-6500

사찰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자락
● 법당 8평, 요사 22평, 주차장 80평
● 조계종 스님 환영
● 가액: 전세 1억(절충가능)

011-826-5289

토굴 촌집 전세

● 위치: 부산시 기장군 죽성리 바닷가
● 대지 120평, 가옥 2채중 1채, 임법당 17평
● 가액: 전세 2000만원 시설 및 집기류 700만원

051)727-2116
019-546-21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택지 지구(내)아파트밀집지역(뒤)
● 면적 33평(공양 간 별도)
● 전세 3천만원(월세 없음)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장엄 화려함. 즉시 법회가능 (10년 포교지)

몸만 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234-3184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1천만원

011-226-28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 대지: 종교용지 400평
● 법당 30평
● 요사 50평 산신각, 용왕각
● 가액: 1억 3천만원

017-845-953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소재
● 대지 : 12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용왕전, 미륵대불 요사채
● 특징 : 산새수려하고 기도도량으로 전시내가 한눈에 들어옴
● 가액 : 7천5백만원(절충가능)

011-9754-0482

불교용품점(승복, 법복)

● 위치: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밑
● 방1개, 부엌1개 18평 살림가능
● 현재 상업중
● 보증금1000만원 월45만원 절충가능
● 물품대금 모두 3500만원(조절가능)

019-656-0480

사찰할만한 건물

● 위치 : 충남 홍성
● 2층 건물: 1층 80평, 2층 80평
● 대지 395평 1층 20평은 살림하고 있음
● 부속건물 따로 18평 화장실 4개 샤워장 계속나오는 물 약수물 있음, 산업용전기 130k동력있음
● 매매땅 외에 그냥 사용하는 주차장 약 500여평, 기타 약 2000여평
● 문중땅이 있음, 대형버스도 들어옴
● 가액 : 2억 5천만원(절충있음)

041)632-0546/02-546-4965
018-428-1199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임야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채 110평 1동
● 창고겸 숙식가능요사 45평 1동
● 위치 터 좋아 모든 포교, 사회 복지 활동 최적지
● 가액 : 3억 7천만원

011)9457-7060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충무시 근교 (버스종점 도보로 5분)
● 대지: 700평 임야 5000평 주차장 유
● 법당 20평 칠성각 10평
● 산신각 1동(목조)
● 요사채 2동 50평
● 계곡 청정 산세수려, 70년된 사찰
● 가액 2억3천만원

017-855-9551/055)637-1201

생명의 빛 신등의 비밀공개

-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어 세포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파괴된 염증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미량원소 조절의 신비에 있다.)

※ TDP에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분은 우송해드립니다.

미국 FDA검증(No.K875052)
한국 의약품안전청 허가(제수허 01-506호)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과 악성 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장기간 와병 생활로 등창 욕창이 심하신분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소화가 잘안되고 깊은 잠을 못자는 분
◆고질적인 치질 · 치루 · 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재증상)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전립선 기능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이 많으신분

유고 국제 박람회 금상 수상, 벨기에 부뤼셀 만국박람회 은상 수상

◆중국 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의 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한국 95년도 보건복지부 인정 독점수입
◆한국 각 종합병원, 보건소 등 200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중

건강백세 (특정 TDP치료기) 상담전화 02)457-2831~2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 (만삼 생즙 10㎏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入 : 20만 원) ● 2BOX (120포入 : 35만 원)
사 은 가
● 1BOX (60포入 : 15만 원) ● 2BOX (120포入 : 25만 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성산리
● 대지 125평
● 건물 30평
● 가액 7천만원

054)933-9931

경남 양산시 북부동

● 평수: 30평
● 큰방 2개, 주방 1개, 독채
● 역학을 할줄 아시는 분 환영
● 가액: 보증금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완비, 즉시입주가능

055)386-2376
017-563-4602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주택 밀집지역)
● 5층건물중 4층 단독 45평형
● 법당, 거실 넓음, 방2개, 창고방1개, 주방1개, 베란다, 화장실
● 보증금 1500만원 월 80만원 (수도요금, 관리비 포함)
● 시설비 1500만원

011-678-0807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주엽 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사찰부지안내

● 위치: 성남시 분당 5km
● 대지 200평, 토목공사 완료
● 법당 45평 허가득
● 분당시범단지 전철역간, 마을버스 있음
● 가액: 2억 5천만원

031)718-3114
011-9069-445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교통요지 마을인접 포교당으로 최적
● 대지: 약 100평 사용부지 200평이상
● 목조 임법당, 방2개, 입실주방, 욕실, 창고
● 불사가능도량, 집기일체포함
● 가액 8500만원

011-879-4791

일 주 문



'피스로드' 수련회 개최
경기도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나눔의집 강당에서 '제4회 피스로드(Peace Road) 수련회'를 개최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에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 스님(세계불교도우의회 상임집행위원)은 3월 2일자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임명됐다.



2004년 월례회의 개최
경기도 양평군사암연합회장 화암 스님은 2월 12일 양평군 법림정사 대웅전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2004년도 주요 행사 계획을 논의했다.



지역 노인에게 수의 20벌 기증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은 2월 10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지역 노인 20 여명에게 수의를 기증했다.



제2기 객원기자 워크숍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은 2월 21~22일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기자 만들기'를 주제로 제2기 중앙신도회 객원 기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2004년 KIST인 대상' 수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학습기억현상 연구단장 신희섭 박사는 2월 10일 서울 KIST 존슨강당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2004년 KIST인 대상'을 수상했다.



산악인불자련 총재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서울지부 김진관 회장이 최근 열린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재로 추대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전 현판식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소장은 2월 19일 오후 2시 새로 이전한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 내 신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042)860-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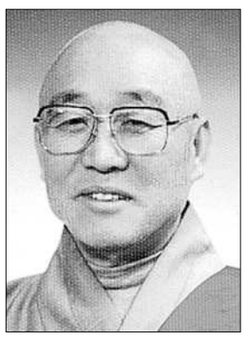
여수 향일암으로 성지순례
경상북도청 공무원 불자회 김영재 회장은 2월 7일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향일암 일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노인 대상 사서도우미 교육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은 3월 3일부터 2 달간 교사출신 노인을 대상으로 사서도우미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02)385-1351

"특성 · 차별화된 교육 실현"

동방불교대 신임 학장
법장 스님



"종단의 개혁불사와 맞물려 동방불교대학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종립 불교전문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종단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장에 최근 취임한 법장 스님(수원 대련사 주지 · 사진)은 새로운 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한 첫 조치로 종단 스님을 배출하는 승가과를 개설하는 한편, 부학장에 수암 스님(중앙교육원장)과 만춘 스님(봉원사)을 임명했다.

법장 스님은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제도가 시행되면서 승가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알차고 충실한 교과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승가과는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21세기형 교역자를 배출하는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또 9월 개교 예정인 동방대학원대학, 선암사 강원 등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특성화 · 차별화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동방대학원대학과 선암사 강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교, 불교미술, 범패, 승가과 등 각 과정의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교육'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박봉영 기자**

제주 분다클럽
13대 총회장 채승철 씨
캠페인 · 봉사로 지역불심 다져



"좋은 분다, 좋은 불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신행단체이자 사회단체인 분다클럽. 최근 정기총회에서 분다클럽 13대 총회장에 선출된 채승철(51 · 한라청정수산 대표 · 사진) 씨는 소임을 다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취임소감을 밝혔다.

"먼저 제주 불교계의 대화합을 위해 '불교사상 대법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눔실천회 제주도지회를 설립하고 장묘문화 개선 캠페인도 벌여 진정한 봉사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입니다."

이 외에도 최 총회장은 분다클럽이 시행해왔던 분다 대상(전통문화예술 · 효행 · 사회봉사 부문)을 더욱 활성화하고, 일일찻집 등의 수익 자선사업을 펼쳐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총회장은 "클럽 회원의 참여없이 제 뜻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부처님의 뜻을 밝히는데 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대불청 부산지구
26대 회장 류상영 씨
환경운동 업그레이드해요



"침체된 청년 불교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직 내실 다지기와 환경 사업 등 주제별 사업을 진행하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 청년 불자들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월 10일 소림사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제26대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류상영(46 · 법선 • 사진) 회장은 실천이 앞서는 청년 불교를 이끌어나겠다고 밝혔다. 21년 동안 청년불교운동의 일선에서 뛰어온 류회장은 부산지구 연수원장, 외무부회장 수석부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류회장은 3월 말, 신구 집행부의 이 · 취임식을 갖고 올해부터 신설하는 가칭 부산불교환경센터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불교환경센터는 2004년 대불청 부산지구의 역점 사업이자 장기적으로 진행할 사업으로 자문단 구성을 위해 환경전문가를 섭외중이다. 부산불교환경센터를 통해 환경에 대한 불교적 관점의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대외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불교의 사도들' 주인공 됐어요"

잠롱 前 태국 방콕시장 영화출연



독실한 불자인 잠롱 스리무앙(69 · Chamlong Srimuang • 사진) 前 태국 방콕시장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인물에 대한 소설을 각색한 영화 '불교의 사도들'의 주연배우를 맡는다.

태국 <네이션(The Nation)>지 2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독실한 불교신자인 잠롱 前 시장은 영화제작사 APSR의 출연제의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이 청렴한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그의 이미지가 배역에 적합하다고 설득해 마침내 출연제의를 수락했다. 그는 또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해 제작사 측은 이를 '잠롱 스리무앙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잠롱 前 시장은 "줄거리 전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영화"라며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롱 前 시장의 영화출연 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년 전에도 불교관련 영화의 주연배우 역할을 제의받았으나 당시에는 영화가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출연을 거절한 바 있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방콕시장을 역임한 잠롱 前 시장은 부정부패 척결, 민주화 운동 등을 이끌어왔다. **한상희 기자**

고려대장경硏, 영국서 자료 수집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불교언어 · 판본별 대장경 목록 정리 및 해제 작성' 연구팀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영국 불교학 관련 대학과 팔리어성전협회(PTS), 대영도서관을 방문해 통합대장경 목록 정리에 필요한 불교학 관련 원전을 열람, 관련 문헌을 수집했다. 연구팀은 옥스퍼드대 곰브리지 교수와 케임브리지대 콘 교수 등에게서 남방 불교국가의 대장경 결집 관련 최근 정보와 활용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문광부 종무1과장 김종율 씨

불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종무실 종무1과장에 김종율 부이사관이 2월 9일자로 임명됐다. 김 종무1과장은 1988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0년 문화산업국 방송광고과장, 2001년 국어연구원 서무과장, 2002년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 과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동산불교대 2004년도 입학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이 2월 7일 동산불교회관에서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불교학과 신입생 1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무진장 스님은 "한국불교를 바르게 공부해 포교에 매진하는 역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임대자행)는 2월 9일 장학금전달식을 갖고 천공 스님을 비롯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총 7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임대자행 보살은 "적은 돈이지만 지혜를 넓히고 마음을 닦는 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사

태고종

△재정경제원 재경부장=묵원 △대구 · 경북교구 종무원장=명진, 부원장=현수, 종회의장=징담, 종회 부의장=민덕, 감사위원장=혜주 △경남교구 종무원장=월봉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도종 스님

제주불교거사림회

△고문=김수진 · 진태준 △회장=김태봉 △부회장단=임태호(수석교무), 김세홍(총무), 박익준(재무), 김덕종(조직), 정성원(홍보) △연수원장=김명보 △감사=김명보 · 강기찬 △부장단=윤기홍(교무), 김한선(총무), 강종식(재무), 이순용(조직), 오현철(홍보)

「천문역학 六壬」誌 창간 기념 할인판매 안내

(2월 4일 부터 - 2월 20일 까지 15일간)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는 금번 당국의 허가를 얻어 **「천문역학 六壬」**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어 오는 2월 20일 3월 창간호가 전국에 배포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래의 **육임서를 한시적으로 30%할인 판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종전가격으로 환원됩니다.

할인도서 품목	종전가격	한시 할인 가격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2,500,000	**1,750,000**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	**910,000**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휴대용	1,500,000	**1,05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240,000**
■ 육임래정법 휴대용	310,000	**220,000**
■ 효사 육임 강의록	410,000	**287,000**
■ 효사 육임강의 비디오 CD	900,000	**630,000**
■ 육임 신수비결	300,000	**210,000**
■ 오행제례의식집	150,000	**105,000**
■ 태아길일길시선택분만비법	74,000	**51,000**
■ 육임지두생활비법	15,000	**10,500**
■ 육임비요형이상법	150,000	**105,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91,000**
■ 육임세밀정단법	100,000	**70,000**

● 문 의 : **02-993-8680**(담당 정주연)
● 입 금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배 본 : 입금후 다음날 도착시켜 드립니다.

전국 「육임학당」 수강 접수안내

본회는 2월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홀 에서 육임학당전국수료식을 거행하여 각 지역에서 육임을 공부하신 분들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는 2월부터 다시 학당을 여니 아래 일정에 맞춰 등록해 주십시오

육임학당 「전주숙」	**2월 8일(日)**	063-284-7714
육임학당 「광주숙」	**2월 9일(月)**	062-224-8680
육임학당 「진주숙」	**2월 10일(火)**	055-755-1644
육임학당 「부산숙」	**2월 11일(水)**	051-756-0141
육임학당 「대구숙」	**2월 12일(木)**	053-624-8680
육임학당 「효사숙」	**3월 13일(金)**	02-993-8680
육임학당 「강남숙」	**2월 14일(土)**	02-525-3039
(이곳 강남숙에서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등록비 **1백5십만원**
■ 교 재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서) 下(활용서)드림**
■ 마 감 **2004년 2월 7일까지 등록 요망**
■ 강 사 **고복자 효사**
■ 기 간 **3개월 13주 52시간**

● 문 의 : 위 각 학당 전화로 문의 하십시오.
● 입 금 : **우리은행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공 익 법 인 한 국 육 임 학 회



불자 세상보기

하 재 봉
문화평론가

'대박' 영화의 허와 실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가 서울 관객 1백만을 돌파하는데 여섯 달 걸렸다. 그러나 '실미도'는 일주일, '태극기 휘날리며'는 5일 만에 전국 2백만 관객을 돌파했다. 10년 동안 한국영화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관객점유율 15%의 한국영화가 50%대로 뛰어올랐으며,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던 서울 개봉관 숫자가 2백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는가, 그리고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던 영화산업에 대규모 자본이 밀려드는가, 우리는 설명해야 한다.

수용자와의 행복한 소통에 성공한 다른 대중문화가 그렇듯이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의 흥행 요인도 복합적이다. 한국 현대사의 감춰진 부분이 드라마로서 표현되었다거나, 한국전쟁이라는 소재에서 이데올로기를 탈색시키고 형제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대답한다면, 참으로 단순한 시각이다. 물론 국가라는 거대조직에 버림받는 실미도 부대원들을 통해 각각 왜소한 개인으로서 조직에 상처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관객들은, 자기동일시의 마취작용에 빠지게 된다. 어쩌면 이것은 '실미도' 흥행의 핵심 요인일 것이다.

또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군사정권하의 전쟁영화들보다 '태극기 휘날리며'가 훨씬 사상적으로 진일보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다. 전쟁 신들은 세계 최강 할리우드의 기술진들이 총동원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화면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한국영화사상 최대의 제작비인 148억원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톰 행크스 한 사람의 출연료보다도 적다.

'쉬리' 이후 한국 영화계는 대박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투자 자본의 회수 과정이 빠르고, 성공하면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화산업은, 벤처기업의 속성과 많이 닮아 있다. 지금 한국 영화는 기획 제작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전단계가 체계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기업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영화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 일상의 핵심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다. 영화를 둘러싼 우리 삶의 환경이 변한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 속도감 있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극장 상영이 끝나면 영화사 창고에 먼지 묻은 채 버려졌던 필름은, 지금은 비디오나 DVD, 혹은 TV 속 주말의 명화나 케이블 TV, 컴퓨터 게임 등으로 계속해서 몸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영화는 단독의 문화매체에서 고부가가치를 낳는 영상정보화 사회의 핵심 매체로 위치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예술 분야로 흩어졌던 고급 인력이 영화계로 유입되고, 전국 50여개 대학에 설립된 영상관련학과와 영상원 등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적 자원은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흥행에 성공한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예술로서의 영화가 아닌, 대중적 선전선동에 능수 능란한 재능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영민하게 대중들의 성감대를 건드리면서 제작하는 영화들이다. 그런 영화들의 상당수는 천박하고, 감성의 유효기간은 극히 짧다. 그래서 치고 빠지는 마케팅을 동원한다. 언론매체를 비롯해서 홍보에 대규모 물량공세를 투입하여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국의 많은 극장을 잡아 한꺼번에 개봉하여 단기간에 많은 관객을 동원하려는 '와이드 릴리즈' 전략은, 이런 상업영화의 필수적 마케팅이다.

관객 1천만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는 다양한 영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빠지면서 순식간에 영화산업은 왜소해 질 수 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세계는 지금 불교에 주목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미래 인류의 종교심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한국불교 선, 학(禪, 學)의 역사와 전통은 현대세계 불교의 중심에 자리매김 될 수월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불교권 국가 가운데 한국불교의 세계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서구권에서 떠올리는 불교는 티베트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이다. 티베트와 동남아 불교는 19세기부터 서구 학계가 직접 연구에 참여했고, 같은 시기 일본은 자력으로 서구사회에 일본 불교 알리기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때늦은 감 없지 않으나 조계종에서 국제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계에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외에 세워진 한국 사찰의 수도 130여 곳에 이르며,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된 외국인 수도 1백 명이 넘는다. 종단마다 영문 홈 페이지를 만들고,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국제

세계화, '인지도' 먼저 높이자

포교사회도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사찰의 신도나 포교사의 포교 대상이 한국교포에 머문다면 여기에 세계화라는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 불교학의 세계인지도가 극히 낮다는 것이다. 서구의 불교학은 지금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방대한 문헌자료와 연구물들을 토대로 하루가 다르게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한국 불교에 대한 자료는 서구 어느 도서관의 인덱스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불교학 자료의 영어 등 외국어로의 적극적인 번역과 소개 작업이 그동안 소홀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외국어로 된 한국불교학의 풍부한 인덱스는 곧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교학적 인프라다. 세계의 도서관에 한국불교학 인덱스가 잘 갖추어지려면 무엇보다 번역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수한 불교학 번역가 양성과 외국 출판사와의 연계 등이 이를 해결할 지름길일 것이다.

조계종에 새로 신설될 국제전담부는 아주 긴 호흡의 준비, 적어도 1세기정도의 장기적 계획과 실천으로 세계 속에 한국불교학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일해 주기를 당부한다.

■ 김징자(언론인)

이렇게 들었다 '팔경법'을 넘어

"나는 12년 동안 여인의 모습을 찾았지만 끝내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비유컨대 마술사가 환상으로 여자의 몸을 만든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여자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면, 옳은 질문이겠습니까?" <유마경>

<유마경>의 관중생품(觀衆生品)은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것을 권고한 후, 사리불로 하여금 분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천녀의 설법을 담고 있다. 위의 대답은 "여자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가?" 하는 사리불의 질문에 대한 천녀의 답이다. 이는 "나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는 조그만 법도 얻음이 없기에 이름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한다"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상통한다.

<유마경>과 <금강경>이 이른바 '여성즉신성불론(女性卽身成佛論)'의 입장이라면, 그 대척점에는 '팔경법(八敬法)'이나 '오장설(五障說)'이 있다. 100세 비구니라도 갓 수계한 비구에게 예경해야 하고, 여자는 범천왕이나 부처 등이 될 수 없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자로 몸을 바꾸어 성불한다'는 '변신성불론(變身成佛論)'이 있다. 부처님의 평등사상과 모순됨을 인정하는 교리적 고백인 셈이다.

남녀평등에 대한 불교교단의 문제의식은 이처럼 연원이 깊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6일 '선우논강'의 비구니 · 비구의 위상정립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럽다. "팔경법은 원점에서 무효화해야 한다(법인 스님)"는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면, "세간의 법으로 출세간의 법을 해석해서는 안된다(혜능 스님)"는 주장도 원론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할 일은, 남녀평등의 구체적 방안을 찾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 윤제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생각한다

"'주5일근무제'가 올해 불교 성패 좌우할 듯"

불교계는 올해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위사찰은 오는 7월부터 1천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예정인 '주5일제'와 관련, 사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호응을 받을 것인지 가늠해보는 한 해이자 적응을 위한 연습의 한해가 될 것이다.

사찰은 향후 1~3년 기간에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3의 경쟁상대에게 자기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될 확률이 높다.

올해는 또 조계종 종단개혁 10주년을 맞는 해지만 1998~99년 사태의 여진이 아직도 미봉된 상태로 있고, 위 사태로 인해 능동적으로 사회변화에 적응해 유연한 변화를 도모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떠밀려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과 우리 내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 안에서 긍정적 변화의 힘을 축적해야 한다.

불교계 주요종단의 신년사업계획은 그 무슨 건립 불사가 압도하고 있다. 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3개년에 걸쳐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고, 태고종도 '불교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고, 천태종은 구인사에 1백억을 들여 유물전시관을 짓겠다고 했으며, 진각종은 총본산 성역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센터'든 '전시관'이든 '총본산'이든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갈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수급하기 위한 '불사'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재 발굴 및 확보 능력에 따라 교단(사찰 및 단체)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종국에는 20:80(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커버하는)이라고 하는 '개미의 법칙'이 불교계에도 현실화 될 개연성이 크다.

2003년 불교계 활동으로 가장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단연 환경운동이었다. 북한산관통터널 공사 반대, 새만금 삼보일배, 천성산 관통터널 반대운동 등은 2003년도 가장 큰 환경 이슈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것들이 불교계 내부의 자정과 자기성찰적인 자세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사회적 공공선의 이슈에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불교인 각자 자기 자신의 변화, 기성제도교단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공동체의 변화, 시민사회공동체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윤남진 /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
(격월간 참여불교 1 · 2월호 기고문 요약)

독자 시

산속의 대중공양

비문에 새겨진
날마다 불렀을 자손들 이름
빗속에 더욱 선명하다
비에 젖어 축축한 풀잎 위에 엎드려
2배, 2배 올리고
뫼등을 쓸어본다
가시 억센 땅찔레 질타처럼 엉켜 있어
근근이 당기는데
붉은 피 솟아
두 어르신
피로써 맹세놓고 가라 하신 듯
그 뜻
헤아려본다

측백나무 몇 그루와
소나무 잉잉대는 바람뿐인 산속
기는 것들과 나는 것들 모두에게
술과 과일과 땅콩을 뿌린다
서 푼짜리 공양
쪼르르 밀어내고
살그락 살그락
청설모는 떡갈나무만 타고 오른다

오는 봄
초록빛 잔풀 돋아 오르면
텡텡 마른 북어 두드려
보푸라기 일궈 음복하리니
목청 고운 산새들
싸리잎 져 내리는
서러운 뫼등에 올라앉아
빈 산을 울려라

손한옥 / 시인협 회원 · 안양시 박달동

'현대'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6-4422

천년의 법향으로 발심·깨침 이끄는 신행·문화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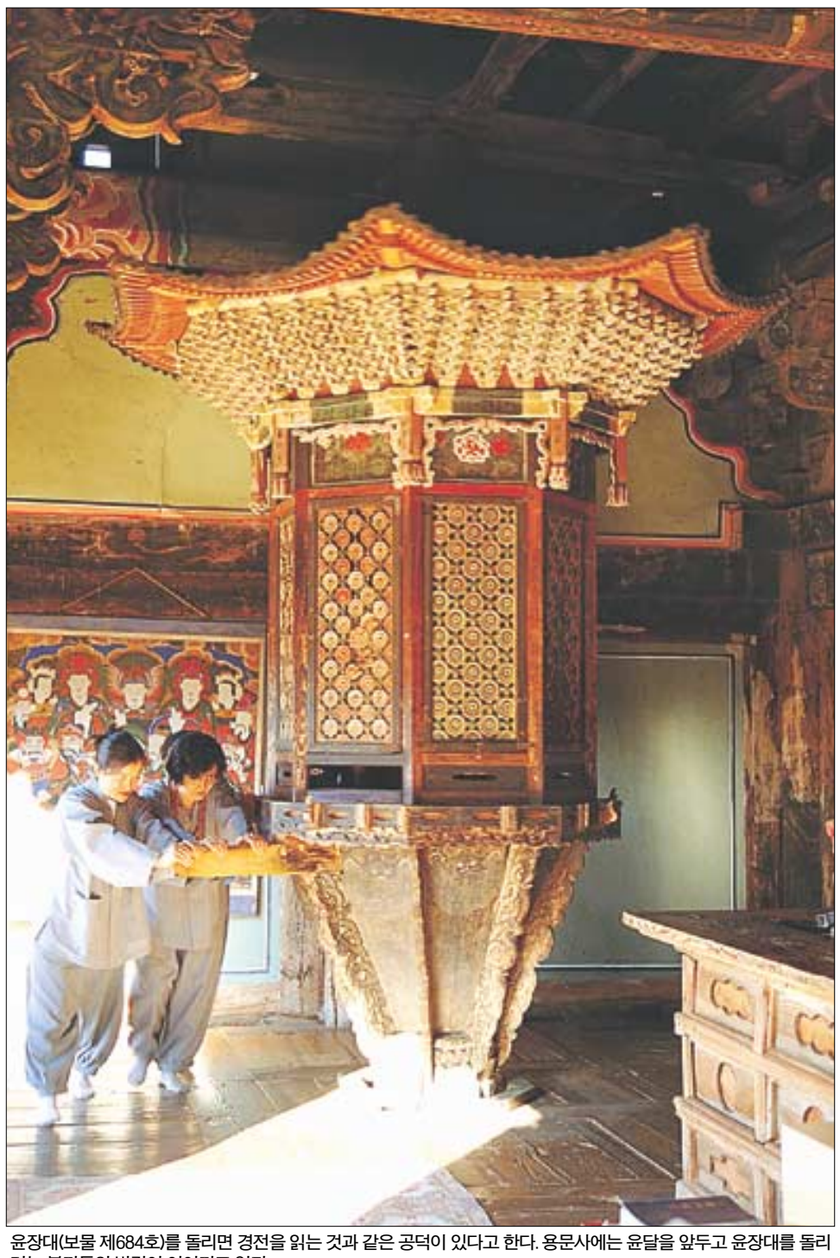
예천 용문사

"용문사에 이르니 산이 깊어서 세속의 소란함이 끊어졌네. 한 줄기 샘물소리는 가늘고 일천(一千) 봉우리 달빛이 고요하다. 고요히 깊은 반성에 잠겨지니 이미 내가 가졌던 것까지 잃어버렸다"

–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윤장대가 모셔져 있는 대장전(보물 제145호).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한다. 용문사에는 윤달을 앞두고 윤장대를 돌리려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하나뿐인 윤장대 등 국보급 성보 가득
환희심 절로 솟는 풍광… '삼사순례'의 중심

"용문사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처사님도 윤장대 돌리러 오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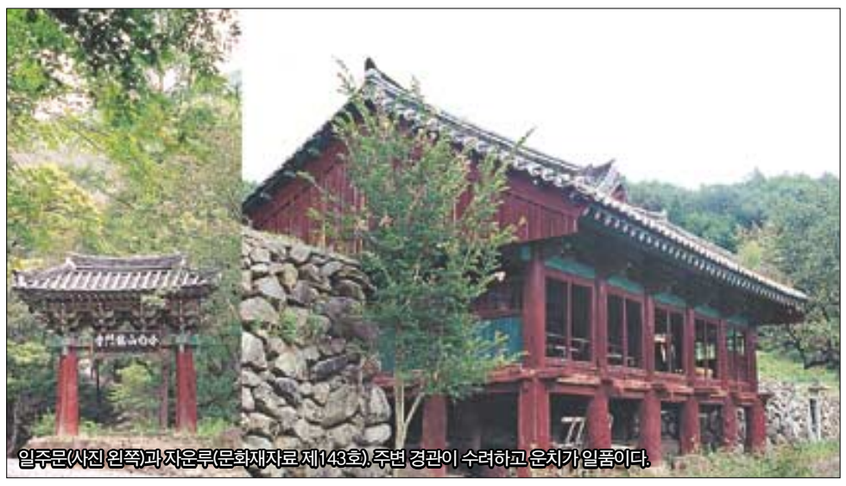
예천 용문사를 찾아가던 도중 만난 한 마을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 윤장대 얘기를 꺼냈다. 한국에서는 용문사의 윤장대가 유일하다고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내 주변 절경에 마음을 빼앗겨 잊고 말았다.

용문사에 도착하자 아늑하면서도 절경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전각들이 반긴다. 보광명전에 들어서니 세 분 부처님(주존불 비로자나불, 오른쪽 약사여래, 왼쪽 아미타불)이 그윽한 눈빛으로 맞는다.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이 "용문사에 이르니 산이 깊어서 세속의 소란함이 끊어졌네. 한 줄기 샘물소리는 가늘고 일천(一千) 봉우리 달빛이 고요하다. 고요히 깊은 반성에 잠겨지니 이미 내가 가졌던 것까지 잃어버렸다"고 노래했다니, 그 정취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에 위치한 용문사. 산세가 수려하고 울창한 수림이 운치를 더해주는 주변 경관만으로도 용문사는 방문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신라시대에 개창된 이래 1천2백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며 천년 고찰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가히 최고의 도량이라 할만 하다.


용문사 전경.


일주문(사진 왼쪽)과 자운루(문화재자료 제143호).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운치가 일품이다.

용문사의 역사를 보자. 용문사는 신라 제48대 경문왕 10년(870) 두운조사에 의해 개창돼, 고려시대에 들어 번창하면서 대가람을 형성했다. <증수용문사기>나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두운조사가 산의 동구에 이르렀을 때 산 정상의 바위 위에서 용이 나타나 영접했다고 해서 용문사라 불렸으며, 창건 도중 16냥이나 되는 은병을 캐내 절의 공사비로 충당했다는 기록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해 고려를 세운 후 936년(태조 19년)에 칙령을 내려 사찰을 중건토록 했으며, 고려 의종 19년(1165)에 다시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일으켜 93간의 대찰을 이루었다. 1171년에는 태자의 태를 봉안하고 축성수법회(祝聖壽法會)를 열었으며, 1173년에는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난을 일으키자 3만명의 스님이 동참하는 '3만승재(僧齋)' 대법회를 열기도 했다.

억불숭유의 조선시대에도 용문사는 왕실 지원을 받았다. 세조 3년(1457)에는 교지를 받아 잡역을 감면받았고, 성종 9년(1478)에는 소헌왕비의 태실(胎室)을, 1783년에는 문효세자의 태실을 봉안하고 소백산 용문사(龍門寺)로 명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절경(絶景)과 오랜 역사만으로 용문사를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용문사에는 국보급 문화재들이 천년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고,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수 있는 신행 · 문화 도량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불교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지역불교문화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다. 말로 다하며 선근공덕을 쌓겠다는 발심을 하면 부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주지 청안 스님으로부터 윤장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용문사를 찾아오던 길에 만난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났다. 왜 사람들이 윤장대, 윤장대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혹여 용문사 윤장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와서 한번쯤을 보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윤장대가 모셔져 있는 대장전은 용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으로, 단층 맞배지붕의 다포계 건물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남향으로 정좌하고 있는 법당이다. 우리나라 맞배지붕으로서는 가장 균형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려 명종 3년(1173)에 건축됐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과 경판을 모셔놓아 여느 전각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할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용문사의 본래면목이겠는가.

용문사에는 대장전(보물 제145호)을 비롯해 윤장대(보물 제684호), 목각좌상과 목각탱(보물 제989호), 세조의 교지(보물 제729호) 등 국보급 보물 외에도 아미타 부처님 1천 분을 모셔놓고 있는 극락보전, 고려 예종 때 건립된 자운루, 조선시대 제작된 괘불과 범종, 업경대가 있는 명부전, 안진오 스님과 권상노 박사를 배출한 영남제일강원 등 유서 깊은 전각들이 많다. 이들 문화재는 용문사 그대로가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역사적 위상과 명성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가운데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윤장대. 윤장대(輪藏臺)는 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부처님의 힘으로 호국을 기원하기 위해 고려 명종(1173) 때 자엄 스님이 조성했다. 부처님 법이 사방에 퍼지라는 의미와 우리나라의 지세(地勢)를 고르게 해 난리가 없고 비바람이 순조로워 풍년이 들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한다. <석문정통(釋門正統)>에는 '윤장대를 한 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기술돼 있기도 하다. 윤장대는 경전의 보관처이자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인,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윤달에 윤장대를 돌리면서 불심을 다지면 더없이 좋다고 한다. 윤달은 없던 것이 공짜로 생긴 달이므로, 윤달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윤장대를 돌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죄업을 참회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선근공덕을 쌓겠다는 발심을 하면 부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주지 청안 스님으로부터 윤장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용문사를 찾아오던 길에 만난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났다. 왜 사람들이 윤장대, 윤장대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혹여 용문사 윤장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와서 한번쯤을 보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윤장대가 모셔져 있는 대장전은 용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으로, 단층 맞배지붕의 다포계 건물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남향으로 정좌하고 있는 법당이다. 우리나라 맞배지붕으로서는 가장 균형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려 명종 3년(1173)에 건축됐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과 경판을 모셔놓아 여느 전각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교지(보물 제729호).


업경대가 있는 명부전 내부.


보광명전 삼존불.

대장전에 봉안돼 있는 목각탱은 숙종 10년(1684)에 대추나무로 조성된 것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각후불탱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장엄하면서도 화려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목각탱 앞면에는 삼존목불좌상이 놓여져 있는데,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안락과 평온의 극락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세조가 내린 교지(敎旨)는 용문사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경상감사와 예천군수에게 전지를 내려 절을 잘 보살피고 잡역을 면제해 주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시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찰 탄압이 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왕실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괘불, 회전문, 응진전 등을 둘러보면 용문사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용문사에서는 그렇게 천년 세월의 함성을 들을 수 있다.

용문사엘 가면 용문사를 기점으로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김용사, 대승사가 30분 이내 거리에 인접해 있어 삼사순례지로도 그만이며 10분거리에 방생지도 있다.

인터뷰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



"윤장대 돌려 업장 소멸하고 소원 성취 하세요"

"용문사는 양평과 남해에 있는 용문사와 함께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3대 용문사의 하나로 용의 심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명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인 것이지요."

용문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였나를 짐작케 하는 주지 청안 스님의 첫마디는 이곳의 지역명까지도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용문사는 과거 고려시대에는 3만승재(3만명이 모여 재를 지냄)를 열 정도의 대가람이었습니다. 또 근세에는 운허 스님이 주석했던 영남 제일강원이었지요." 이어진 스님의 말씀에 용문사의 장대한 역사가 드러났다. 장대한 역사를 가진 고찰이기에 용문사에는 대장전, 자운루, 목각좌상 및 목각탱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팔각 윤장대다.

"이렇게 좋은 산 좋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그동안 내륙오지에 위치해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는 스님은 용문사에 온 98년부터 법당을 비롯해 대장전, 진영당, 자운루, 명부전, 응진전, 동양각의 보수작업을 하나씩 마쳤다.

특히 대장전은 문화재 전문위원과의 수많은 회의와 고증을 통해 주춧돌까지 들어냈다가 다시 복원하는 대대적인 보강작업을 하고 작년 10월에 다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윤전법회를 다시 봉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윤전법회를 봉행해 불자와 일반인들이 윤장대를 직접 돌려볼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제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전국 어디서나 오기가 쉬워졌습니다. 대구에서는 1시간 반 서울에서도 2시간이면 올 수 있게 되었지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윤전법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스님에게 중앙고속도로 개통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0년부터 구상중인 템플스테이를 위한 요사채 불사 건립 추진과 함께 강원 개설로 과거 영남제일강원의 면모를 되찾기를 바란다"는 스님은 최근 용문사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자치단체로부터 개발비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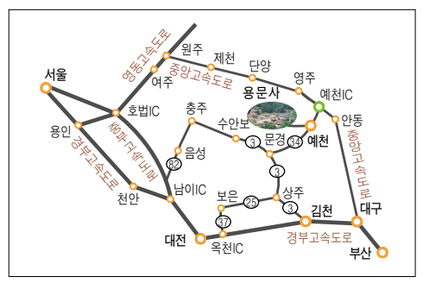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스님의 행보는 더욱 바쁘게 움직이신다. 과거 찬란한 대가람의 면모를 되찾고 새로운 불교문화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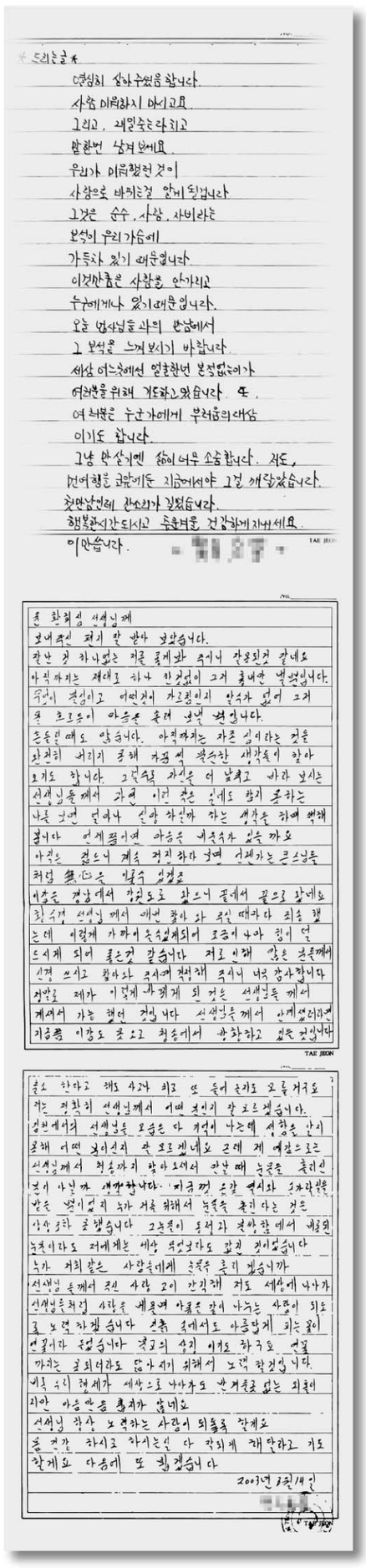
용문사 가는 길

-버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40~18: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예천 하차⇒택시(20분)

-승용차 : (서울)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예천IC
(부산)경부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예천IC
(대구)중앙고속도로⇒안동⇒예천IC

-전화 : (054)655-1011, HP 011-336-4665





드리는 글

연일히 살아주셨음 합니다.
사랑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일죽는다치고
딱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워했던 것이
사랑으로 바뀌는걸 알게될겁니다
그것은 순수, 사랑, 자비라는
보석이 우리 가슴에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한줄은 사람을 안가리고
누구에게나 있기때문입니다.
오늘 법사님들과의 만남에서
그 보석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곳에선 얼굴한번 본적없는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있습니다 ㅎ.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처님의대상
이기도 합니다.
그냥 한살기엔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도,
먼여행을 코앞에두고 지금에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첫만남인데 관소리가 길었습니다.
행복한시간되시고 우울증을 건강하게 자버세요.
이만줄입니다.

TAE JEON

조 환철님 선생님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것 하나없는 저를 좋게봐 주시니 감동되었 같네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하나 한것없이 그저 흘려만 넉었습니다.
주변이 정신이고 어떻게서 자유로워지 알지도 없이 그저
또 흐르듯이 아름을 흘려 보낼 뿐입니다.
주름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 가끔씩 작은 생각들이 찰아
오기도 합니다. 그럴적은 자신을 더 낮추고 바라 보시는
선생님을 떠서 과연 이런 작은 일에도 합치 못하는
나를 보면 얼마나 실망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떨쳐
봅니다 언제쯤이면 마음을 비울수가 있을 까요
아직은 젊으니 계속 정진 하라 하면 선배가는 큰스님들
처럼 無心을 말할 수 있겠죠
내장은 경상에서 감귤으로 왔으니 골에서 꼴으로 왔네요
황수경 선생님 에서 매번 찰사 와 주신 때가 다 죄송 했
는데 이렇게 가까이 주실게되어 오히려 나아 힘이 덜
드시게 되어 좋은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신경 쓰시고 찰사와 주시어 정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선생님들 께서
계셔서 가능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들 께서 안계셨더라면
지금쯤 이강도 못오고 청송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TAE JEON

글도 한다고 해도 부끄 러고 또 들어 온다고 오를 거지요
저는 정확히 선생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모르겠습니다.
겉으로서의 선생님들 모습은 다 커녕 나는데 생활을 같이
보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 제 예상으로는
선생님께서 청송까지 왕아오셔서 같은 때 동료들 후리인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짧 은 같 역사와 조직생활
없은 것이겠지 만나 서로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상상 조차 못했습니다 그는분이 동적과 천방할 에서 배울
노력이라도 저에게는 예상 되었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노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시 셨습니까
선생님 들께서 주신 사랑 그이 간직해 저도 세상에 나아가
선생님들처럼 사랑을 베풀며 아름은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도
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축 현에서도 아름답게 피는 꽃이
언젠가는 된답습니다 적고의 상징 이기도 하구요 언젠
까지는 꼭되더라도 닮아 지기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곳 우리 현세가 예상으로 나아가도 한계점을 없는 되풀이
되안 마음 한줌 흘러가 않네요
선생님 항상 노력하는 사랑이 되길 바래요
좋 건강 하시고 하시는일 다 작되게 해달라고 기도
할게요 다음에 또 뵙 겠습니다
2003년 3월14 일





'나 지금 떠납니다.
포기한 게 많습니다.
욕심 아닌 것도 내겐 욕심으로 느껴져 외면했습니다.
희망, 있었습니다. 살려주면….
하지만 알게 됐지요. 살고 싶은 생각조차 사치란 사실을.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그저 잘 죽길 희망했습니다.
다른 무엇을 희망하기엔 지은 죄가 너무 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갈 시간입니다.
그곳에 가면 용서를 빌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용서를 빌겁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일입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열심히 살아주셨음 합니다.
사랑 미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죽는다 치고 이 말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미워했던 것이
사랑으로 바뀌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순수, 사랑, 자비라는 보석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냥 막 살기엔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도, 먼 여행을 코앞에 둔 지금에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 어느 사형수의 편지 중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

전국 교도소 돌며 재소자 상담 봉사
별칭 짓기, 미술치료 등 교육프로 차별
사형수 위한 천일기도 팀원들의 큰 힘

"희망의 옷을 입혀 드립니다"

이 편지는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한 사형수가 지난 2002년 형 집행을 앞두고 다른 재소자들을 위해 쓴 글이다. 이 사형수는 당시 극적으로 감형이 돼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예외적인 감형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마음 속 응어리를 풀어주고, 불법에서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한 한 불자 교화팀의 노력 덕분이었다.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 황명숙(71 · 전 한양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윤순옥(52 ·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김필련(50 · 불교여성개발원 상임위원), 황수경(40 · 동국대 선학과 강사) 씨는 올해로 4년 째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청송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서 재소자 상담 및 정신교육을 맡아 봉사해 오고 있다.

처음 교도소 봉사에 발심하게 된 것은 김필련 위원이다. 1998년 교육계에 몸담았던 그에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교도관이 김천교도소의 청소년 수감자들의 정신교육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솔직히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처음에는 재소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가뜩이나 예민한 청소년 시기, 그것도 교도소라는 공간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난감했지요. 굳게 마음을 먹고 처음 김천에 간 날 저의 선입견은 쓸데없는 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이더군요."

이후 2000년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되고 복지분과가 생기면서 지금의 회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교화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3~4시간 거리의 김천교도소를 찾았다. 간식만 싸다주는 기존의 교화활동과 차별을 두기 위해 별칭 짓기,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교도소 방문 첫날에는 '당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 못가 그만 두겠지'라는 냉담한 눈빛뿐이었어요.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자 교육대상자의 3분의 1 정도가 반야심경을 독송할 정도로 불심까지 돈독해졌지요."(윤순옥 이사)

그렇게 꼬박 3년을 서울과 김천을 오가며 봉사했다. 그즈음 교육 재소자들의 대부분이 출소하게 되면서 근처 지역 사찰,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후속 봉사팀을 찾았다. 회비로만 변변히 꾸려지는 개발원 교화팀이 장거리의 교도소를 매달 방문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역 불자와 연계하는 것이 재소자들에게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도소 포교를 권유하니 '죄 지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 주느냐'며 한결같이 거절하더군요. 부처님 말씀에 자신도 모르는 조그마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을 내생에서 갚는다고 하셨어요. 재소자들이 원망의 씨앗조차도 없애 업장을 소멸하고 내생을 준비하도록 우리 불자가 도와야하지 않겠습니까."(황수경 씨)

교화팀은 또 재소자들이 편안히 '현생의 옷'을 벗도록 하자는 서원으로 2001년 10월부터 '최고수(사형수)를 위한 1000일 기도'를 시작해 얼마 전 600일 회향기도를 마쳤다. 평소에는 재소자, 교화팀원들이 각자 개인수행으로, 매 100일이 될 때는 함께 모여 회향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의 수행과 기도는 사형수의 감형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를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화팀원들에게는 그들만의 또 다른 서원이 있다.

"재소자들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우리 이웃입니다. 이들의 상처를 감싸주기 위한 사회적 제도, 물질적인 후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입니다. 평등과 자비의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기 위해 불교계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명숙 씨)

글=한상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재소자들의 편지에서 그들의 진정한 참회가 엿보인다.(왼쪽)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 윤순옥, 황명숙, 황수경, 김필련 씨(왼쪽 위부터).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삼사순례안내
<강화 보문사, 전등사, 선원사> ◎ 일시 : 2004년 3월 7일 일요일
◎ 출발지 : ❶동서울터미널 ❷모란시장 ❸곤지암 ◎ 출발시간 : 오전 7시

생전예수재안내 만49일간 봉행
◎ 입재 : 2004년 양력 윤 2월 29일 ◎ 회향 : 2004년 음력 윤 2월 29일

<<불설수생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승으로 부터 이른바 인생자금을 대출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업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만 한가지 다른 점은 이승에서는 자기자본이 충분하다면 구태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때는 누구나 받드시 그 돈을 받아야만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생들은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그 빌린 인생대출자금을 저승에 다시 갚아야 합니다. 그 상환하는 의식이 바로 [생전예수재]라는 의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절에서는 2000여년의 우리나라 불교역사상 최초로 [예수재의식]을 우리글 사언절로 완역한 만큼 국내에서는 가장 여법하게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3>

올바른 선지식을 찾자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선생 혹은 스승이라고 합니다. 선생과 스승의 어원적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선생 보다는 스승이라는 말이 무게가 더 있게 들립니다.

요즈음 시대에는 배울 거리도 다양하고 배우는 이도 많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지만,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는 스승을 두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스승을 선



지식(善知識)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선지식을 먼저 찾아야만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원각경> '보각보살장'에서 부처님은 올바른 선지식을 찾을 것을 권하면서 어떠한 선지식이 올바른 선지식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각보살에게 당부하신 내용은 첫째, 올바른 선지식은 상(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일체의 번뇌와 망상이 끊어져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높다는 생각, 낮다는 생각, 깨쳤다는 생각 등이 없이 그 마음이 허공처럼 걸림 없고 평등한 경지를 말합니다. 특히 올바른 선지식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고 말하거나 부처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행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올바른 선지식은 겉으로는 보통사람과 같은 허물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항상 범행(梵行)을 찬탄하고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행은 청정한 행으로 몸과 입과 뜻이 항상 맑고 깨끗하여 일체의 행위가 그릇됨이 없음을 뜻합니다.

셋째, 올바른 선지식은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과 같은 소승의 경지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성문과 연각은 깨달음의 경지가 완전치 못하고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사와 열반을 나누어 보고 중생과 부처를 별개로 여기며 지옥과 정토를 다르게 생각하는 등의 온갖 차별상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이 부족하여 수행하는 이들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넷째, 올바른 선지식은 작(作), 지(止), 임(任), 멸(滅)의 방법으로

몸과 마음 다 바쳐 귀의하고 공경을

수행을 지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각경>에서는 이를 선병(禪病)이라 하는데, 선병이란 잘못된 수행 방법이나 그 경지를 의미합니다. 작, 지, 임, 멸의 병폐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작은 마음으로 자꾸 분별하거나 꾸며내어 깨달음을 이루려는 방법이고, 지는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고 그쳐서 깨달음을 이루려는 방법이며, 임은 마음을 되는대로 놓아두거나 어딘가에 (예컨대, 자성이나 불성 등) 맡겨서 깨달음을 이루려는 방법이고, 멸은 마음을 아주 끊어 없애는 것으로 깨달음을 이루려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스승께 귀의하고 공경, 공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거룩한 수행자이건, 평범한 속인이건 구애받지 말고 오직 가르침만을 따르고 실천하셨습니다.

수행은 홀로 가는 길이지만 올바른 인도자 없이는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한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훌륭한 스승을 찾고, 온갖 정성으로써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행은 집착과 착각 벗어나는 방편"

미산 스님이 말하는 선 수행의 원리

삼법인·연기설·사제설 제대로 이해해야
분별심 버리고 생활 속에서 매 순간 깨어 있기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체계는 삼법인(三法印)과 연기설(緣起說)이며 실천체계는 사제설(四諦說)입니다. 이를 도외시한 수행법은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2월 10일 저녁 조계사 극락전. 2백여 재가 수행자들의 열기가 겨울 밤의 한기를 몰아낸 가운데 열린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의 '수행법 대강좌 결제' 현장. 이날 '참선 수행법'을 주제로 법문에 나선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 스님(前 백양사 참사람수행원장)은 선 수행에 앞서 삼법인과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모든 존재현상이 시간적으로 서로 조건지워져 있으면서 덧없이 변하므로 무상한 것이며, 또한 공간적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으므로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실체가 없어 무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삶의 시공간적 연기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존재현상을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적으로 어떤 실체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합니다. 사람들을 고통의 늪 속에서 허덕이게 하는 이런 집착과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편이 참선입니다."



메주 화요일 저녁, 수행열기로 뜨거운 조계사청년회의 '수행법대강좌 결제' 현장.



미산 스님은 "간화선은 붓다의 기본정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뛰어난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1972년 백양사로 출가, 동국대, 인도 푸나대 및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철학박사)한 후 백양사 참사람수행원에서 재가 불자들에게 참선 및 근본불교 수행을 지도해 온 미산 스님. 스님은 기초 수행 및 지도체계가 부실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간화선은 바른 수행 전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조사선은 기존의 교리적 언어의 관념화를 척파하고 어떠한 실체관념도 용납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과 언어로 붓다의 근본정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뛰어난 수행법"이란 설명이다. 초기불교와 선 수행에 대한 이론과 실참을 겸비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선 수행의 원리를 알아본다.

● 밖에서 안으로 '회광반조'

인도의 우화집에 보면 행복은 인간들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모든 물심(物心)의 현상, 즉 담마(dhamma, 법)는 항상 밖이 아닌 안에서만 처리되며, 5온(色 受 想 行 識)의 어떤 필터를 통해서 여과되느냐에 따라 행복 아니면 불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수행의 제1원리는 항상 마음의 빛을 '밖에서 안으로 돌이켜(廻光反照)' 이 물심 현상의 향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 '지금 여기' 일상 속에서

물심 현상의 향방을 면밀히 살피는 것, 즉 담마의 성찰은 바로 지금 여기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매순간 이어져야 한다. 지금 여기를 놓쳐버리면 담마는 모두 담마라는 관념(산냐)으로 변해버려 '나'라고 하는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다. 간화선의 경우 화두의 필터로 그 밖의 다른 수행법은 각기 다른 필터로 법의 관념화를 막는다.

● 화두챙김은 '사띠'

마음챙김은 사띠(sati, 念)의 우리말 번역이며 한역은 정념(正念)으로 번역된다. 간화선에서 '화두챙김'이 가능한 이유는 늘 화두를 놓치지 않고 면면히 이어지게 하는 것과 화두를 들고 성성하게 깨어 있는 상태는 사띠의 기능 때문이다. '챙김'이라는 능동적인 기능과 '깨어 있는 마음'이라는 수동적 기능을 조화롭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띠이며, 모든 불교 수행에 있어서 사띠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

● 간화선의 3요소와 5력

초기불교 수행체계인 37조도품에 있는 5근(五根)/5력(五力: 信 智 精進 定 念)의 경우와 간화선의 3가지 필수요건(大信心 大憤心 大疑心)을 비교해 보면 사띠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간화선에서는 대의심을 축으로 하여 대신심과 대분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의심은 지혜, 삼매, 그리고 마음챙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수한 심리현상이다. 대의심은 지혜의 근원지인 자성청정심에의 계합을 대전제로 한다. 의단이 형성되면 모든 분별경계가 붙을 수 없고, 의단 자체가 지혜의 발광체라고 볼 수 있다. 대의심이란 늘 화두와 함께 하는 것, 즉 화두챙김이 있으므로 가능하며 이것이 사띠이다. 사띠가 지속적으로 현전하면 안심을 얻고 삼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 분별심을 떠나 있는 그대로 보기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입장에서 물심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직관의 힘이 커진다. 애착과 증오의 분별심에 걸려 있으면 사물이나 현상의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분별심을 벗어나 평정심을 회복하면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직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

● 중도를 지키며 정진하라

화두 참구시 대분심을 발하여 공부하라 했다고 육단심으로 밀어부치면 상기병에 시달리게 되어 더 이상 정진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정진심을 늦추면 삼매에 추진력이 없게 되고 바로 혼침에 빠지게 된다. 중도를 지키며 긴장감과 추진력을 가질 때 최상의 정진 효과를 낼 수 있다.

● 팔정도는 불교의 종합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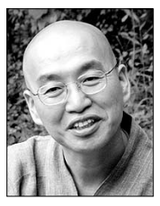
불교의 종합수행법인 팔정도 실천의 출발점은 정념이고 그 노력이 정정진이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집중에너지가 형성되면 정정,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정어, 정업, 정명이다. 팔정도를 계(戒, 정어, 정업, 정명), 정(定, 정정진, 정념, 정정), 혜(慧, 정견, 정사유) 삼학(三學)에 근거해 삶속에서 실천적 수행을 이어가야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법륜스님 전국 돌며 '금강경 대강좌'

2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2회 열려

<금강경>은 꿈에 취한 우리들의 온갖 망상과 고정관념들을 타파하는 선종의 대표적인 소의경전. '형상을 버리면 그 즉시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여래의 참 모습을 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금강경>에 대해 정토회(www.jungto.org) 지도법사 법륜 스님(사진)이 집중적인 강좌를 연다. 2월 24일부터 6월10일까지(매주 2회) 서울, 부산 등 11개 정토법당에서 열리는 '금강경 대강좌'가 그것이다.

법륜 스님은 "<금강경>은 '나다' '너다' '내 것이다'라는 모양을 사람, 물건 그리고 땅에까지 붙여놓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란 그러한 실체없는 형상들이 춤추는 방향대로 조종되는 꼭두각시에 불과함을 깨닫게 한다"고 말한다. 스님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종하고 있다는 착각일 뿐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못되고 있다"면서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금강경>의 정수를 전할 예정이다.

강좌는 매주 2회 오전 11시, 오후 7시30분 두 차례 열린다. 법회는 매주 2회 열리며 법당별로 날짜가 다르다. 서울(매주 수, 목) 부산(화, 목) 대구(월, 목) 대전(목, 금)청주(화, 수) 마산(화, 수) 마산(화, 수) 울산(화, 금) 광주(월, 금) 제천(화, 수) 정읍(수, 금) 제주(화, 목). (02)587-8993

佛經漢文科

통신반 · 출강반 募集

1. 募集期間 ▷ 전기 : 1월 15일 ~ 2월 15일(기간엄수)
2. 教育科目 ▷ 무량의경(漢文本)
▷ 묘법연화경(漢文本)
▷ 관 · 보현보살 행법경(漢文本)
▷ 교양과목(생활한자 5,000자)
3. 教育期間 ▷ 3년(6학기) / 통신반 출석반 동일
4.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통신반)
▷ 월1회 출석특강(통신반)
※ 본 연구소에서는 불경공부와 수행이 알음알이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5.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
6. TEL. 053)952-8711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社)國際語文研究所
所長 · 哲學博士 崔光永
대구시 동구 동대구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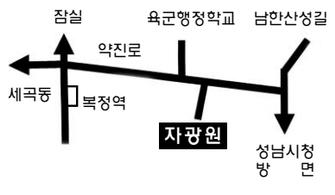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다려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작수 대진 합장



"이~~~ 뭐~~~ 꼬~~~"

동작 하나하나에 화두 싣고 몰입

탐 방 이선옥 선무동작명상센터

이선옥 교수(맨 왼쪽)가 선무동작명상센터에서 무드라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2월 9일 서울 평창동의 한 건물. 외벽은 수리에 한창이지만, 그 안쪽 어디에선가 흥겨운 라틴댄스 음악이 흘러나온다. 음악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동작명상 센터'. 선무(禪舞)로 널리 알려진 이선옥(포천중문의대) 교수가 이끄는 선무명상 센터다. 그런데 선무명상에 웬 라틴댄스?

라틴댄스로 근육 풀고…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의 연결은 거의 나선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운동은 직선형이죠. 나선형 운동으로 나선형 근육을 제대로 풀어주기 위해 이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골반을 앞뒤좌우로 움직이는 나선형 동작에 회원들 얼굴은 연신 웃음으로 싱글벙글이다.

"그냥 흔들면 안돼요. 앞으로 밀면서 단회향 수축하고, 뒤로 빼면서 단회향 이완…."

암호처럼 들리는 '단회향'은 '단전-회음부-항문'의 줄임말. 모든 동작은 단전-회음부-항문(이하 단회향)을 차례로 수축·이완하면서 진행된다. 회원들은 이 같은 나선형 운동을 통해 몸의 수축과 이완을 연습했다. 그러다 라틴음악이 잦아들고 본격적인 동작명상이 시작되자 화두를 품는 소리까지 터트린다.

"'이-'소리와 동시에 단회향을 수축하고 손목을 돌리면서 등 뒤로 가져갑니다. '뭐-' 소리와 동시에 양손을 등뒤에서 깍지끼고 좌우로 흔듭니다. 그 손목을 다시 돌리면서 단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꼬-'소리를 내면서 반복합니다."

단전-회음-항문 수축·이완

이뭐꼬(이것이 무엇인고?). 이는 "참선의 근본적인 화두로, 지금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듣는 이 주인공이 무엇인고?"라는 물음이다. 그 답을 위해 하나둘 근본으로 소급해가다 보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의심이 꽉 들어찬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자 생각 이전의 자리다. 그 자리가 '이뭐꼬'다.

다양한 손동작 무드라

이 교수는 단전부위에 이뭐꼬를 집관한 상태에서 동작 하나하나를 표현해 올릴 것을 주문했다. 동작 중 잡다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그 자리를 이뭐꼬로 대치시킨다. 기와 이뭐꼬, 그리고 동작이 하나가 되는 명상, 그것이 이 교수 선무명상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선무의 기초를 어느 정도 훈련한 회원들은 무드라(수인법) 명상에 들어가게 된다. 수인법은 불보살들의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만든 손동작이다. 이는 비밀스런 진리의 상징으로서 손과 손가락을 이용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인도의 여러 전통적인 춤에서는 손가락과 팔의 다양한 동작이 춤의 핵심이었다. 이 동작들이 곧 신의 언어이며 우주에너지와의 합일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의 수인법 명상 역시 그와 비슷한 맥락에 서 있다. 수업에서는 손동작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며 동작의 빠르고 느림, 높고 낮음, 넓고 좁음 등을 훈련했다. 회원들은 동작 하나하나에 이뭐꼬를 실으며, 또 그러한 몸짓에 흐르는 기를 관하며 소리없이 선무명상에 몰입해 갔다. 그리고 손과 마음을 단전에 집중한 채로 좌선에 들면서 선무명상 수업을 마무리했다.

수업에 참여한 김희영 씨는 "이뭐꼬를 간직한 채로 동작을 끌어내니 몸짓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며 "선의 전통도 잇고 몸과 마음의 안녕도 추구할 수 있는 명상법이 바로 선무명상인 듯하다"이라고 말했다. (02)391-6502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명상유행, 공허한 쇼핑될까 걱정"

인터뷰 이선옥 교수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명상센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서울 평창동에 동작명상센터를 개원한 이선옥(포천중문의대) 교수. 아주대 병원과 차병원 등지에서 암환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이 교수는 센터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강좌를 시작했다. 치유명상과 아트테라피(예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게 '선무명상' 지도를 자청하고 나선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무는 그가 1972년 참선의 '행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해 낸 무용요법. 그는 송담스님·숭산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선을 공부했고, 그것에 기반한 선무용으로 미국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선무는 전세계 무대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무대를 넘어 새로운 치유예술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올 2월에는 그의 문하에서 세계 최초의 선무치유전공 석사가 2명 배출된다.

그는 "명상의 유행이 '속이 공허한 쇼핑'으로 이어지는 것이 염려스럽다"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사실을 견지하고, 올바른 마음공부가 전제된 명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불교여성운동 활성화 선도

세계여성불자연합회 회장 쏘모 스님 (상)

"한국은 세계 여느 불교국가보다 비구니 승단의 위상이 확고합니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또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의 선불교 전통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교육과 수행'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교육·저술 통해 보살행 강조
1982년 한국 범어사서 수계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의 준비사항 점검과 세부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방한한 세계여성불자연합회 회장 까르마 렉시 쏘모(Karma Lecshe Tsomo, 한국법명 慧空) 스님. 스님은 사키야디타 서울대회 주제를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현재와 미래'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쏘모 회장은 8차 대회와 관련, "세계 최대 비구니 승단의 결집력이나 그 역량으로 볼 때 충분히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 세랍 59세의 쏘모 스님이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82년. 티베트 불교에 귀의했던 쏘모 스님이 티베트에서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어 대만으로 수계하러 가던 길에 우연히 한국을 들르게 됐다.

"당시 파리에서 막 돌아온 송광사 방장 구산 스님을 뵙고 함께 송광사로 가서 혜공(慧空)이란 법명을 받았지요. 그 때 마침 범어사에서 처음으로 비구니 계단(戒壇)을 연다고 해서 혜춘 스님(전국비구니회 前 회장)을 은사로 모시고 계를 받았습니다."

쏘모 스님은 미국 출생으로 티베트 전통에서 득도한 비구니로서, 하와이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와 비교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불교학과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쏘모 스님은 세계여성불자연합회의 약칭인 '사키야디타(Sakyadhita)'를 주도하며, 인도 히말라야 지방의 여성교육을 위한 불교교육 프로그램인 '쟘양 쵸링(Jamyang Choling)'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불교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쏘모 스님은 많은 저서로 여성불자들의 자각과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사키야디타: 부처님의 딸들(Sakyadhita: Daughters of the Buddha)> <미국 여성의 눈을 통해 본 불교인(Buddhist Through American Women's Eyes)> <고독한 자매들: 여성을 위한 두 전통의 수도 윤리(Sisters in Solitude: Two Traditions of Monastic Ethics for Women)> <문화를 넘어서는 불교 여성 : 달성(Buddhist Women Across Culturs: Realizations)> <흐름을 거스르는 수영: 혁신적 불교 여성(Swimming against the Streams: Innovative Buddhist Women)>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문제와 함께 사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쏘모 스님은 사키야디타 홈페이지(www.sakyadhita.org) 등을 통해 최근의 종교전쟁과 관련한 우려썩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스님은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종교학 붐이 일고 있다. 많은 문제들이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며 "불교의 수행이란 현명하고 도덕적이며 자비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처님은 '증오가 아닌 사랑만이 증오를 없앨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그의 황금율은 '네가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계속)

김재경 기자

釋經寺

대법회 비법 공개! 특강
- 부처님께 왜 절을 해야만 하는가?

◑ 첫째 :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절을 왜 하게 만들었는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열반(涅槃)과 해탈(解脫)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모든 중생들에게 절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 모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절을 통해 기맥과 혈맥의 기를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병이 낳을 수 있다.

◑ 둘째 : 우리는 과연 부처님께 항상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만 내가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가?

◑ 셋째 :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과연 법신은 움직이는가?

◑ 넷째 : 기도와 회향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특별법회와 절 비법 특강을 합니다.

삼학불교대학 입학안내

1. 승려반 (2년과정 수시모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6시 ~ 9시)
- 강의내용
▶ 천도재, 49재, 점안, 바라춤, 경전, 태징, 북치는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1. 복청계
2. 천수바라
3. 도량계
4. 거불
5. 헌좌계
6. 다계
7. 향수나열
8. 사다라니바라
9. 가지계
10. 하청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상점안

사주역학반 모집 (수시모집)
1. 사주학
2. 관상학
3. 성명학
4. 예방학

※ 경전 및 의식문에 나오는 한문을 한자 한자 풀이하여 강의하므로 한문을 모르시는 분도 수강하시는 데 불편 없으시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釋經寺
三學 佛教大學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산 2-2호
전화문의 : 032)462-7322, 463-1630, 469-8797, 011-322-1630
주지 최 해월 합장
• 오시는 길 : 동암역, 백운역 (간석3동 태화아파트 / 만수3동 벽산아파트 뒤)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문학인 양성과 전문프로인을 위한
불교문예창작과(3년 과정) 신규개설 !!

문예창작학과는 본격적으로 문예작품을 창작하려는 사람이거나 문학과 미학(美學)내지 불교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서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詩), 소설(小說), 희곡(戱曲), 수필(隨筆), 시나리오(TV극본·라디오드라마 포함), 문학비평(文學批評)수필(隨筆)등 각 장르별 문학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실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

▣ 교과목 및 교수(불교문예창작학과 : 3월 10일 개강)

학 과	교 과 목	교 수
1학년	· 문학의 이해 · 문예사조사 · 불교문화 · 문예 작품감상	· 김영무 (극작가, 희곡작가협회 부회장) · 김홍우 (동국대 예술대학장) · 백시종 (소설가, 한국문협 이사) · 신상성 (소설가, 용인대학교수) · 신세훈 (시인, 한국문협 이사장) · 박진서 (수필가, 한국수필가 협회 이사) · 채상우 (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출강) · 무진장스님 (동산불교대학장)
2학년	· 미학①(동양미학) · 불교학이해 · 장르별 창작실기	
3학년	· 미학②(서양미학) · 불교사상사 · 문예작품감상(학생작품) · 작품 창작 지도	

▣ 개강일시 2004년 3월 10일 (수) 오후 2시 개강
▣ 원서교부처 본 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자비수관(慈悲手觀) 수행자를 초청합니다

자비수관은 관세음보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비로움을 나타내며, 몸에 대한 갖가지 견해와 번뇌가 정화되니 마음의 본래모습을 드러내어 이 자비수로 대비심과 지혜가 드러남이 마치 한송이 연꽃이 마음속에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 강의개요(3개월 과정)

⊙ 개강 및 일시	· 개 강 : 3월 10일 (수) 오후 7시 · 기 간 : 3월 10일 (수) ~ 5월 19일 (수)
⊙ 장 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내)
⊙ 지도법사	지운스님 (전 송광사 강주) (인도 다람살라 수행)
⊙ 내 용	4년처 수행중 특히 "몸"을 정념으로 관찰하는 자비수관으로 관세음 보살의 지혜와 자비심을 증득함
⊙ 대 상	수행에 관심있는 분 30명
⊙ 수련 동참금	월5만원(교재제공) 국민은행 016-01-0226-236 동산반야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www.dongsanbud.net



동산 스님(1888~1965): 충북 단양 生. 범어사에서 용성 스님에게 득도. 한암 · 혜일 스님에게 사교 · 대교 배우고 마하연 · 상원사 등서 정진. '설법제일' 선지식으로 통했다.

네티즌 교리문답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문 지식(知識)과 지혜(智慧)는 어떻게 다른가요?(ID '우리를 탈출한 늑대')

답1: 지식은 지식과 지혜를 나눌려는 분별심이요, 지혜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지 않는 본마음입니다. (ID '김명강')

답2: 지식은 "지식과 지혜는 어떤게 다른가요?" 하고 물으면서 항상 의문 속에 있는것이고, 지혜는 "지식과 지혜는 어떤게 다른가요?" 하고 묻는 것에 걸림 없이 답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ID '사자뿔')

답3: 지혜로써 지식을 옳곧게 쓰는 사람을 성인(聖人)이라 하고, 지식으로써 지혜를 가려 굽게 쓰는 자를 범부(凡夫)라 하는 것입니다. (ID '조주')

답4: 지식이니 지혜니 하면서 지식은 나쁘고 지혜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편을 가르고 편식하는 것을 분별심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지식도 쓰고 지혜도 쓸 줄 안다면 이것은 보살의 마음, 반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도 지혜도 사실은 한 터럭도 반야를 벗어난 적은 없는 것입니다. (ID '야메중생')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㉛

불립문자(不立文字)-4

禪과 21세기

석가모니는 저술을 남기지 않았다. 대각(大覺)을 이룬 뒤 45년 동안 많은 설법을 했고 그것이 후세에 경전으로 편찬되었지만 그가 직접 글을 써서 남기지는 않았다. 아예 글을 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쓰기는 했는데 보존되지 않았는지,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아무튼 불교 문헌 어디에고 석가모니가 직접 글을 썼다는 얘기는 전혀 없으니, 아마도 안 썼던 듯하다.

그러고 보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칼 야스퍼스가 "축의 시대"라고 일컬은 때, 그러니까 인류의 고전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한 서력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서 활동한 고전종교의 종조(宗祖)나 대사상가 가운데에는 저술을 안 남긴 사람이 많다. 석가모니보다 연배가 약간 앞선다는 자이나교의 종조 마하비라도 글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도 저술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언행과 사상은 주로 제자인 플라톤의 저술을 통해서 전해진다. 플라톤의 <대화편> 등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늘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소크라테스의 면모를 오직 플라톤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으니 이를 두고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일컬을 정도이다.

위대한 사상가들 대부분 글을 남기지 않았다

공자는 오경(五經)을 편찬했다고 하지만 이는 교육을 위해서 기존의 고전을 편찬한 것이고, 그 또한 자신의 사상을 직접 글로 써서 남기지는 않았다. 평생토록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러한 언행과 사상을 담은 논어(論語)는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는 평생토록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주었지만 스스로 자기 사상을 글로 쓰지는 않았다.

예수도 글을 쓰지 않았다. 그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 가르침을 기록한 이른바 복음서들은 모두 제자들이 쓴 것이다. 훨씬 후대의 인물이지만 이슬람의 종조 무함마드도 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가 받은 계시와 설교는 이슬람 성전 <꾸란>으로 집대성되었지만, 그것은 무함마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찬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고전종교나 고전사상의 태두 가운데에는 <도덕경>을 썼다고 하는 노자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이 말은 많이 했어도 직접 쓴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문서들이 엄청난 분량이지만, 그 모두가 후대에 편찬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글을 쓸 줄 몰라서 그랬을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글을 쓰는 것을 두고 '소리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대사가 나오던데, 요즘에야 문맹률이 극히 미미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능력을 습득한다는 것, 그 정도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겨우 몇 십 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아주 높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터이다. 모르긴 몰라도 2500년 전에는 더했을 것이다. 하지만,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공자가 글을 못 배워서 안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혹시 그들이 자기의 글을 남기는 일에 대해 뭔가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문제를 가지고 독자들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좋겠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57>

대원정진력 주야신의 법문

법의 진실한 성품 이해하여 중생 교화

끊임없이 원 일으킬 때 보살행 정진 가능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대원의 정진력으로 일체중생을 구원하는 주야신(大願精進力主夜神)'이다. 그 주야신은 대중들 속에서 모든 궁전을 나타내는 마니장 사자좌에 앉아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의 빛을 그 몸으로 하여 두루 법계를 비추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두루 조복하는 몸 · 모든 선근을 닦는 몸 등 가지 가지의 훌륭한 모습의 몸(身)을 나타내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이러한 무량한 여러가지의 훌륭한 몸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선지식에게 열가지의 청정한 마음을 내었다. 그 중에서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 몸과 같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나로 하여금 부지런히 노력해서 온갖 지혜의 도를 돕는 법을 마련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② 선지식에 대해서 자기의 업과 과보를 깨끗이 해준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여 선근을 내기 때문이다. ③ 보살행을 장엄하게 해준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나에게 모든 보살행을 빨리 장엄케 하기 때문이다. ④ 모든 부처님 법을 성취하게 해준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나를 인도하여 도를 닦게 하기 때문이다. ⑩ 큰 이익을 마련해준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나로 하여금 모든 보살의 법에 자유롭고 편안하고 머물게 하고, 온갖 지혜의 길을 이루게 하며, 모든 부처님 법을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문에서 선재동자가 "이러한 마음을 내고는 저 주야신이 얻고 있는 여러 보살세계의 티끌 수 같이 많은 행(行)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 즉 선재동자가 주야신의 거룩한 여러가지 모습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냄으로해서 모든 세계의 모든 보살에게 공통되는 법(菩薩의 共法)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세계의 모든 보살에게 공통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체중생에게 두루 널리 선하고 자비로움을 베푸는 '보현행'이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바램(願)이며, 하시는 일(行)이다. 모든 세계 모든 보살에게 공통되는 법은 부처님들의 원행(願行)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念)함으로써 여실하게 증득될 수 있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이 해탈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자, 주야신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해탈문의 이름은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을 내게 함'이다. 나는 이 해탈을 성취하였으므로 모든 법의 성품이 평등함을 깨달았고, 법의 진실한 성품에 들어가 의지함이 없는 법을 증득하였으며, 세간을 여의었으면서도 모든 법의 모양이 차별함을 알고, 또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것의 성품이 실답지 아니하여 차별이 없는 것도 분명히 통달하였으며 또한 한량없는 모양의 육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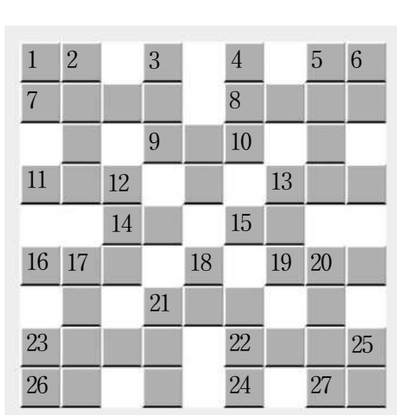
또한 잠깐잠깐마다 이러한 빛깔의 육신을 나타내어 시방에 가득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보거나 생각하거나 법문 말함을 듣거나 가까이 모시거나 하여, 깨달음을 얻게도 하고 신통을 보게도 하고 변화를 보게도 하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 조복시켜 착하지 못한 업을 버리고 착한 행에 머물게 한다. 선남자여, 이것은 큰 원력을 말미암은 때문이며, 온갖 지혜의 힘에 의한 때문이며, 보살의 해탈한 힘에 의한 때문이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힘에 의한 때문이며, 크게 인자한 힘에 의한 때문으로 이와 같은 일을 짓는다.

선남자여, 나는 이 해탈에 들어서 법의 성품이 차별이 없음을 알면서도 한량없는 육신을 능히 나타내며, 낱낱 몸마다 한량없는 모습마다를 나타내고, 낱낱 모습에서 한량없는 광명 구름을 놓고, 낱낱 광명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국토를 나타낸다. 낱낱 국토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심을 나타내며, 낱낱 부처님이 한량없는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지난 세상에 지은 선근을 열어 내나니 심지 못한 이는 심게 하고 이미 심은 이는 자라게 하고 이미 자란 이는 성숙케 하며, 잠깐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중생으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한다."

위에서 설하고 있는 '중생을 교화해서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은 일체법의 성품이 본래 평등함을 깨닫고, 모든 법의 진실한 본성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나 중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어 무량한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 수행하게 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다. 주야신이 한량없는 육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근본은 지혜의 힘이요, 대원(大願)의 힘이다. 특히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휴식이 없게 하는 데에는 대원의 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의 법문에서도 원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선지식의 명칭에도 대원이 모든 보살행을 정진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보살행의 정진은 대원에서 나온다. 끊임없이 원을 일으키지 않으면 보살행의 정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은행 등에 돈을 들여놓음 5. 이승에서 악업을 지은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 7. 춘부장 8.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 9. 미륵부처님을 모신 전각 11. 지리산의 다른 이름 13. 쇠고기 맑은 장국에 감자를 썰어 놓고 끓인 국 14. 선도(仙道)를 닦아 신통력을 얻은 사람 15. 기꺼이 재물을 내놓음 16. 충청북도 괴산군과 경상북도 문경시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 19.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짜여진 여행 단체 21. 자치단체로서의 시의 의결기관 23. 검찰의 부서 책임 검사 24. 화학전에 쓰이는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26. 공지(空地) 27. 압력을 바꿈.

세로 1.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이 무렵에 봄이 시작된다고 함 2. 의금부에서 죄인에게 매질을 하던 하례 3. 슬기와 인자와 용기를 아우르는 말 4. 부추로 만든 전 5. 야구에서, 투수를 대신하여 공격하는 타격 전문의 타자 6. 옥중에서의 죽음 10. 땅속의 마그마가 밖으로 터져 나와 퇴적하여 이루어진 산 12. 산을 맡아 수호한다는 신령 13. 물품을 검사하고 감정(鑑定)하는 관리 17. 구례군과 하동군의 경계에 있는 장터 18. 병을 잘 고치는, 이름난 의사 20. 한없이 넓고 커서 끝이 없음 21. 영화 개봉전 특정대상에게 미리 보여주는 행사 22.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23. 부인의 공덕 또는 공적 25. 대기의 압력.

다시 쓰는 택리지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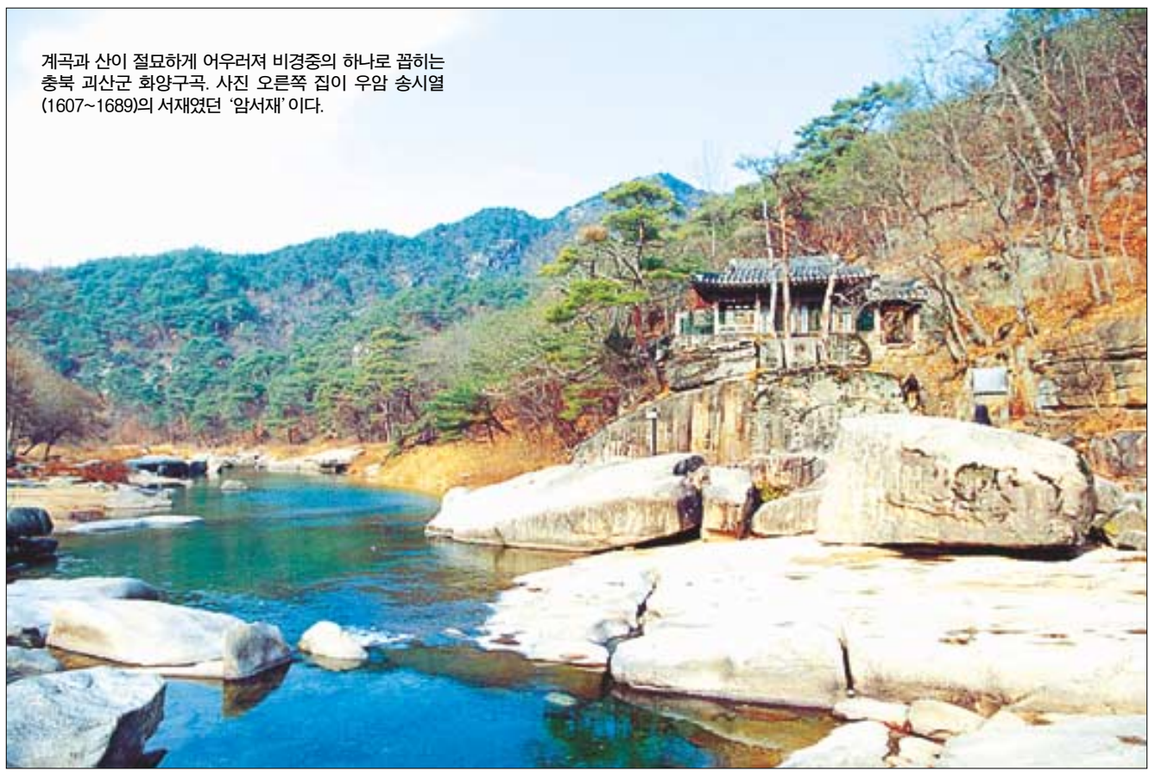
신정일 지음
휴머니스트 발행/각권 1만4천원



25년간 5대 강과 수백개 산 오르며
발품 팔아 쓴 땅과 사람의 역사



의성 고운사.



계곡과 산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비경중의 하나로 꼽히는 충북 괴산군 화양구곡. 사진 오른쪽 집이 우암 송시열(1607~1689)의 서재였던 '암서재'이다.

우리 산하에 스며있는 선인들의 숨결

요즘 흥행 대박을 터트린 영화 제목중에 '말죽거리 잔혹사'가 있다. 그런데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한테 '말죽거리'가 어디며, 또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한다.

'말죽거리'. 분명 서울 어딘가에 있을텐데, '말(馬)'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어렴풋한 짐작만이 난무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시대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가던 도중, 지금의 서울 양재역 부근에 유생 김이 등이 쑤어 올린 팥죽을 말 위에서 먹고 갔기 때문에 말죽거리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재야 문화사학자 신정일(50) 황토현문화연구소장이 쓴 <다시보는 택리지>를 펼쳐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지명(地名)의 역사를 알 수 있다. 25년간 우리 산하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그 안에 담겨 있는 오롯한 사연들을 채취해 책으로 다듬었기 때문이다.

제목은 <다시보는 택리지>다. 이번에는 <경기 · 충청편(1권)>, <전라 · 경상편(2권)>, <강원 · 함경 · 평안 · 황해편(3권)> 등으로 팔도 총론 편을 펴냈으며 나머지 지리 · 인심 · 산수 등 2~3권도 곧 출간할 예정이다.

원래 우리문화유산 답사기의 원조격인 <택리지>는 조선 후기 이중환(1690~1756)이 쓴 인문지리서다. 조선후기 당시만 해도 <정감록>과 함께 가장 많이 필사된 베스트셀러였다. 사화(士禍)에 연루돼 유배로 젊은날을 보내고, 실의에 빠져 살던 그가 20여년의 방랑생활을 한 뒤에 <택리지>를 썼다고 전해진다.

이에 못지 않게 저자인 신 소장도 '오른손에 <택리지>를, 왼손에 대동여지도를 들고 찾아나섰다'고 말할 만큼 우리 땅을 샅샅이 훑고 다녔다. 한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 등 5대 강과 수백개의 산을 오르내리며, 1,000회 이상을 답사했다.

이중환의 <택리지>가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면 250년 뒤에 출간된 <다시 쓰는 택리지>는 우리 산하에 녹아 있는, 또 그곳을 살다간 선인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느끼고자 했다. 우리 현재의 삶이 책 속에 더해진 셈이다. 그러다보니 곳곳에 그사이 사라져버린 나루터와 시장 등에 대한 저자의 안타까움으로 가득하다.

호남에서 유명한 포구가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던 백방포(白房浦) 였다. 현재의 땅끝마을 근처이다. 백방포는 중국으로 가던 유명한 바닷길의 출발지였다. 신라의 최치원이나 김가기가 당나라 유학 갈 때 출발하던 곳이었다. 순풍만 만나면 하루 만에 중국 영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도 이 포구에는 남송으로 출발하는 여행객들이 가족들과 이별하거나 기다리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간척을 해서 들판으로 변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인문지리로 포괄되는 여러 분야 중에서 역사와 인물지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안의 퇴계, 청양의 이몽학, 안동의 유성룡, 해남의 윤선도, 전주의 정언신, 합천의 정인홍, 평양의 정지상 등 역사적 인물에서부터 무명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지리적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봉화 청량사를 비롯해 공주 영평사, 동해 삼화사, 춘천 청평사, 대구 갓바위, 울산 석남사, 김천 청암사 등 30여 사찰의 역사도 소개돼 있어 불자들에게 유익한 사찰 안내서 역할도 겸하고 있다.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5박 6일의 짧은 일정만으로 다녀온 북녘땅을 집어넣은 것. 자료에 의존하고 이전 사람들의 답사기를 짜깁기하면서 가지 않은 곳까지 소개한 대목은 역시 발품을 안팔아서인지 땀냄새가 덜났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취지에 대해 "인문지리는 최소 50년 단위로 다시 쓰여져야 되는데 이중환이 <택리지>를 집필한 뒤 25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과 몇 십 편의 논문이 나왔을 뿐"이라며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명멸해 갔는지 시공을 뛰어넘어 시냇가에서 자갈을 고르듯 들춰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힘겹게 그 길들을 걸으며 느낀 것은, 산천이 나의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 그 길들을 올곧게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우리 문화유산의 진정성, 그리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경주 남산의 불상중 가장 크며 조각이 우수한 불상이 상선암 마애석가여래 대불좌상일 것이다. 아득히 깔린 경주 일대를 바라보는 부처님은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까?

▲견훤의 군사에게 포위당한 왕건은 신숭겸이 태조로 가장하여 수레를 타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함으로써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였다. 그때 신숭겸 · 김락 등 여덟 장수가 모두 전사하였으므로 이름을 팔공산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전문가 서평



역발상의 법칙
로버트 서튼 지음/ 오성호 번역
황금가지/1만5천원

얼마 전 설 연휴에 TV에서 본 '마우스 헌트' 라는 코미디 영화가 생각난다. 노끈 공장을 운영하던 구두쇠 아버지로부터 달랑 낡은 집 한 채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약간 모자란 두 형제가 영악한 주인공이자 그 집의 터줏대감인 생쥐 한 마리와 맞닥뜨리게 된다. 형제는 성가신 생쥐를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결국 그 집마저도 풍비박산이 나게 돼 실의에 빠진다. 하지만 생쥐는 두 형제에게 경영난에 빠진 노끈공장에서 실타래 모양의 치즈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형제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두 형제가 처음부터 노끈공장에서 치즈를 생산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영화도 재미없어졌을 것이고 두 형제 또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학자인 로버트 서튼 교수는 최근에 출간된 그의 저서 <역발상의 법칙(원제: Weird Ideas That Work)>에서 이러한 발상의 전환으로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역발상이란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 낸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전환적 발

엉뚱한 생각이 행복 부른다

HP · IBM 등 성공 기업과 12가지 실천방법 제시

상이며 12가지의 '역발상의 법칙'을 통하여 기존의 생각들을 해체하고 재조립해 혁신에 이르는 과정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역발상 12법칙'은 다음과 같다.

△기업 코드에 적응 못하는 '고문관'을 고용하라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고용하라 △필요 없는(혹은 없을지도 모르는)사람을 고용하라 △면접에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아이디어를 보라 △상사나 동료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마라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싸우게 하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을 주어라. 그리고 나태한 사람은 처벌하라 △실패할지도 모르는 결정을 내린 후 모두에게 분명히 성공한다는 확신을 주어라 △말도 안되는 것을 생각해 내고 실행계획을 세워라 △돈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피하든지 딴청을 부려 지루하게 만들어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마라 △과거는 잊어라. 특히 과거의 성공을 잊어라.

저자는 이와 같은 역발상의 법칙을 휴렛 패커드, IBM, 3M 등의 성공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여 설명하면서 몇몇의 선도적인 기업, 혁신적인 조직, 창의적인 아이디어맨들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가를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누구나 이러한 역발상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쉽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조직문화를 역설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존의 검증된 안정적인 방법을 고수한다는 것은 실패를 줄이고 당장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그것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낳고 관성적인 조직의 불문율을 만들어 창의적 인재의 진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의를 막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때때로 우리는 안정상태가 깨어질 때 분출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핵융합이 그렇고 정치혁명이 그러하며 인류를 진보하게 만든 위대한 발명도 그러하다. 이제부터라도 저자와 함께 기존의 발상을 뒤집는 역발상을 찾아서 스릴 있는 탐험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김홍기(레드플래그엔터테인먼트 대표)

불교성지순례
16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15일 (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만원
인도의 3월은 초여름으로 12월이나 1월달 보다 순례하기에 훨씬 기후가 좋습니다.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영축산,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 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 12일, 3월 4일, 3월 23일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9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58만불의 딴보디사원,최대의 불탑유적과 종)-양곤(쉐다곤대탑,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12일, 4월 10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기리야 고대왕궁-담불라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3월 23일, 4월 20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실크로드여행사를 방문하시는 분께 수미산 사진집을 드립니다.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山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 저자 인터뷰

'마음을 닮은 유전자' 낸 안인옥 씨



생명현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이 유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진화해 온 것일까?

최근 <마음을 닮은 유전자>를 펴낸 안인옥(51 · KT&G 원료연구소 책임연구원 · 사진) 박사는 '유전자는 마음을 닮아가며 진화하고 있다'는 가설로 책을 시작하고 있다. '아직 유전자와 마음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전제한 안 박사는 "물질적인 현상과 마음의 작용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생명체가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낼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생명체의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진화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연구원이기도한 그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된 것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자신이 마음과 유전자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유전자 진화 마음에 달려 있다

지난 2001년 6월, 한마음과학원에서 '유전자와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했던 안 박사는 이러한 주제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으로 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후 진화에 관한 공부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틈틈이 대행 스님의 법문을 읽고 또 읽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상호 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원들과 함께 책 내용을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갔다.

"진화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안 박사는 "우주가 생성된 후 물질과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음의 진화'가 이루어질 단계"라고 말한다. 이미 '마음의 진화'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화의 완성인 '성불(成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 깨닫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그 마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마음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안 박사는 "공부가 더 무르익으면 문명의 진화를 마음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글을 써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보살반가사유상(맨 왼쪽)과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국보 82호, 가운데), 송림사오층전탑사리기(보물 325호).

알고 나면 박물관이 보여요

신나는 역사체험 열려라 박물관

금동이책 지음
중앙 M&B / 전 3권 각권 8천원



박물관 소장 유물 배경 지식까지 입체적으로 해설

자녀와 함께 박물관에 가 본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끝없이 쏟아지는 아이들의 질문에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해 곤란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유물 옆에 놓여 있는 안내서는 자세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른이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 일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인 박물관을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신나는 역사체험 열려라 박물관>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산 해설사' 역할을 자처한 이 책은 우리나라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배경지식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문화재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박물관을 소개하는 책들은 많았지만 그 안에 소장된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는 책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우리 옛 도자기가 탄생되기까지'에서는 다양한 도자기 사진과 함께 도자기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각 부위의 명칭, 이름 짓는 법 등을 비롯해 고려청자의 제작과정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도공의 하루를 보여주는 '이야기 한토막'과 중국 도자기 무역의 주역인 해상왕 장보고 인터뷰와 우리나라 도자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린이 역사 신문', 다양한 문양을 이용해 도자기를 그려보는 '체험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뒷부분에는 중요 유물들의 사진과 설명을 담은 '숙제도우미'도 덧붙였다.

이번에 선보인 '국립중앙박물관편'은 유물들을 <도자기>와 <불교문화>, <그림>의 세 권으로 나누어 살핀다. 그 중에서도 2권 <불교문화>는 불교의 전래부터 통일신라시대와 고려 ·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불교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꾸며졌다.

1편 '살포시 미소 짓는 반가사유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불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그림 그리고 사진을 통해 설명한다. 2편 '불교를 허락하소서'에서는 불교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불상의 제작과정을, 3편 '통일신라, 불국토를 건설하라'는 불교가 꽃피운 화려한 불교미술을 보여준다. 4편 '숭불 정책과 억불 정책'은 고려시대의 숭불 정책과 고려불화, 금속활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지은 '금동이책'은 기획자와 작가, 그림작가, 디자이너들이 모여 어린이를 위한 책을 기획 · 제작하는 곳으로 앞으로 국립경주박물관 등 국내 주요 박물관에 대한 책을 펴낼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만화로 보는 우리절 설화와 전설

아름다운 우리 사찰 13가지 숨은 이야기

이규성 글 · 그림
운주사 / 9천원



우리나라 전통 사찰 어디에나 창건과 중창에 얽힌 설화나 전설이 전해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한 수단인 설화는 불교가 어떻게 이 땅에 전파되고 민중의 삶 속에 뿌리내렸는지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자료다.

<어사박문수>와 <석가모니 지혜동화> 등을 그린 만화가 이규성 씨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찰의 설화와 전설을 만화로 재구성해 <아름다운 우리 사찰 13가지 숨은이야기>로 펴냈다. 지은이는 "우리 선조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찰을 창건하고 불사를 일으키는 과정과 어떻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한다.

어부가 건져 올린 돌나한상을 모신 낙가산 보문사와 인호 스님이 목숨을 구해준 소 덕분에 중창하게 된 계룡산 갑사, 검단선사가 교화시킨 도둑들이 인도에서 온 불상을 모시기 위해 지은 고창 선운사를 비롯해 지리산 화엄사, 소요산 자재암, 영주 부석사, 무등산 증심사, 논산 관촉사 등 전국 13개 사찰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 **<한용운 평전>**(고은 지음, 향연, 1만3천원)

"그는 시인만으로 말해져야 하며 그것만으로 말해질 수 없어야 한다. 그는 승려만으로 말해져야 할 때 승려를 넘어서버린다. 그를 독립운동가로 강조하려고 하면 그런 입장을 어느덧 독선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는 근대 한국 최대의 전인적 규모의 사상가, 예술가,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서거 60주년(6월 29일)을 앞두고 1975년 출간됐던 평전이 재발간 됐다. 고은 시인이 지은 이 책은 어린시절부터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 불교 연구와 문학활동 등 만해 스님의 삶과 정신세계, 역사적 의의 등을 박제된 '영웅'으로서가 아닌 '인간 만해'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금빛비늘>**(이을 지음, 청어, 1만원)=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을 씨가 명상과 사색으로 인도하는 365편의 구도시를 묶어 펴냈다. 각 시마다 참선과 단전호흡, 명상 용어를 간략하게 풀어 놓아 시의 이해를 돕는다.



■ **<조선의 최후>**(김윤희 · 이욱 · 홍준화 지음, 다른세상, 1만2천원)=이 책은 '대한제국의 멸망'이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집권층의 부패라는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바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권위적 전제주의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고종에 대한 비판과 불합리한 경제정책의 허실 등의 고찰해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운명을 뛰어넘는 길	김지수	불광
3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4	아! 붓다	틱낫한	반디미디어
5	영가천도	우룡 스님	효림
6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녘
7	아름다운 우리 사찰 13가지 숨은 이야기	이규성	운주사
8	그 산에 스님이 있었네	효림 스님	바보새
9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10	불교수행법 강의	남희근	제자을 뿌리는 사람들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행자님을 모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현실속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실 분을 찾습니다.
새시대에 맞게 능력과 개인별 소양에 맞는 역할을 나누게 되며, 소정의 기간이 지난후 원력에 따라 상급반 진학 및 포교당 소임을 맡겨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스님되기를 맘먹고 계신분도 함께 이끌면서 수행할 것이며, 이미 스님이 되신분은 인연된 사찰의 소임 또는 학문적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되시길 바랍니다.

■ 스님이 되기를 바라는 행자
- 고졸이상, 50세 미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 기존의 스님이 되신분
- 승적증명서(종단구별없음)

■ 문의 : 041)732-5629, 041)734-5377
E-mail : budda9446@hanmail.net
H.P : 011-9402-5629

종각 대법종 불사 동참 바랍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인연있는 종각, 법종 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무량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은성사 주지 법륜

옛 신라에는 국운이 기울자 황룡사 9층 석탑을 세워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뤘고, 고려인은 호국의 일념으로 8만대장경을 조성하여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은성사 법륜 스님은 옛 신라인과 고려인의 진솔한 마음과 정성을 이어받아 3만 3천근 대 법종 탁발 불사를 시작하여 세계적으로는 불안한 핵 테러의 공포를 소멸하여 인류가 평안하도 하고 국내로는 정치적 불신과,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중생의 고뇌와 아픔을 소멸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 법종 불사가 원만히 예정대로 성료되는 2005년은 우리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입니다.
2005년 을유년은 해방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일제치하 36년의 고통과 설움에서 해방을 맞이 했듯이 삼천리 강산에 삼천만 중생이 새로운 희망을 맞도록 불제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 뜻깊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정성껏 동참바랍니다.

◆ 농 협 52013-56-014321
◆ 광주은행 148-121-656943 (예금주 : 법륜스님. 한길성)
※ 입금하여 주시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시를 은성사로 알려주시면 대 법종 및 동판에 이름을 각인합니다. 참여한 불자님들의 공덕이 만세에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은성사 주지 법륜 합장
은성사 종각 대법종 불사 후원회 회장 조영희(신도회장) 합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옥동 139 은성사
전화 : 063)561-1826 / 561-1783. 011-634-4498.019-501-1826

대한불교조계종 특수학교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 요강

본 학교는 어산작법(범패 · 무용)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으로써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 설립하여 이에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할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및 교육기간
1) 본 과 : 불전의식 전문과정 - 2년
2) 불전의식과 : 6개월
3) 작 법 과 : 6개월 4) 무료교양강좌 : 3개월

교육내용
1) 본과 및 불전의식과
- 일용의식 (도량석, 종송, 예경,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 상용의식 (불공, 천도재, 시식)
- 제반의식 (점안, 이운, 방생, 다비시다림, 관불, 통알, 소심경, 포살, 수계)
※ 범패작법도 병행해서 교육함
2) 작 법 과 : 바라무, 나비무 3) 교양강좌 : 불교의식의 탐구와 이해

응시자격
1) 본과 : 조계종승려로서 구족계를 수계한 자
2) 본과 외 다른과는 승려 및 재가불자도 가능함

입학원서(소정양식), 승적증명서, 조계종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각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2004년 2월 28일(토) 오후 3시

성북구 안암동 5가 8번지 대원암 (6호선 안암역) 교학처 ☎ 02)921-3425

※ 본 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졸업장과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짐.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장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시 사랑하는 사람 이자임 詩人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대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영혼 잠못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앉아
온 밤을
지새워 울고
못내 그리운 마음
그래 찾아 가고 싶어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관음종총무원장상)

박길복 (제주시 용담3동)

그리운 님 황금의 동상 <상>

밀가루 범벅으로 시작되는 하루…. 글자도 모르면서 오직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르침만으로 삶을 익힌 어머님의 일생. 그 속에서 너희들만이라도 글자를 알아야 한다는 아련한 일념을 키운 채 여자의 일생을 사시는 어머님, 오남매의 맏딸. 가난에 찌들고 배고픔에 익숙해지고…. 그러나 가장 큰 괴로움은 가진 것이 없다고 쳐다보는 친척들의 멸시와 눈총, 배가 너무 고파 밥이라도 얻어먹어 보려는 요량으로 눈칫밥. 하얀 이슬과 함께 삼키는 그 검은 눈망울….

그래도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고 10대의 작은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오직 충직한 삶의 철학으로 삼은 20대.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원한 동반자와의 만남에서 사랑하는 공주, 왕자님을 선물 받고, 어질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아련한 본능으로 해가 지고 태양이 다시 뜨는 동안 너덜거리는 고무치마에 고무 신발을 신고 이 땅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세파!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것은 아닌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다섯 살 난 딸의 급작스런 아픔으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갔다. 생사의 기로에서 무엇이 삶인지도 모르고 그저 착함만을 나의 신조로 알고 살았는데…. 무서우리만큼 처절했던 외로움과의 싸움! 그래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께도, 목사님의 강연에도 매달려 봤지만 나의 영혼을 의지하기에는 그 자리가 너무 싸늘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어머님과 함께 대바구니에 무언가 가득 담아 등짐지고 산 속 오솔길을 올랐을 때 힘들다고 짜증냈던 기억, 무릎이 터지도록 절을 하라시는 어머님의 엄격한 엄포에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예쁜 바지 구김살이 못내 안타까워 손으로 다림질하며 꾸벅꾸벅 절을 하던 기억….

아련한 어린 시절의 정서를 내 안의 의식으로 외롭게 자리하고 있어서인지 드디어 황금으로 된 동상을 모신 둥지를 찾았다. 그분은 나에게 따뜻한 미소와 저의 상처난 몸뚱이를 어루만져 주셨고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4월 초파일 전날은 하얀 고무신을 깨끗이 닦아 놓고 황금의 동상을 향한 그리움이 시작된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지런히 현관 앞에 놓여있는 고무신을 신고 치맛자락 살포시 바람결에 날리며 부처님을 찾아갔다. 연등에 촛불 켜고 곱게 타오르는



그림 · 김흥인

불빛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 건강을 빌며 앉아 있는 이웃의 모습…. 나 또한 그 모습과 바람이 같았을 것이다. 그 어느 곳이 상단이며 어느 쪽에 몇 번을 절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붉은 가사 수호하신 스님은 목탁치며 옹알옹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읽어 내려간다. 그 어떤 책을 보지도 않고 도란도란 앉아 노보살님, 잘도 따라 한다.

모든 의식이 끝난 후에 스님께서 모두 난데없이 동참하라 한다. 칠성기도 입제, 인등기도 입제, 동참하라신다. 무슨 말일까? 뜻을 알아야 하는데, 몇 번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민에 고민을….

어느 날 용기를 내기로 했다. 무섭고 두려웠지만, "스님! 인등기도, 칠성기도 입제는 어떤 뜻입니까?"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다. 숙제를 풀어낸 기분이었다. 맛있는 절밥 욕심에 잘 먹고 그냥 돌아온다. 산 속 오솔길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어느날 스님께 "부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쭈어 보면 절을 하라신다. 그저 따라만 오시라고 한다.

붉은 가사 갈색 가사의 개념도, 신심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불자의 호기심을 차근히 지도해주는 곳도 없었다. 혼자서 가슴만 애태웠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곧 부처님이라

딸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고난 찾아와
어릴적 어머니 따라 절에 다니던 일 기억
내면에선 '기막힌 메시지가 있을거야' 함성

하신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무언가 확실히 알고 싶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는 함성으로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에 교감하고 있음을 희미하게 체험하면서도 또렷하게 할 말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마다 4월 초파일, 이웃 어른들과 하얀 고무신 예쁜 한복 차려 입고 그리운 님 찾아가는 행복감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학교동창이 놀러를 가잔다. 부처님 공부 6년을 마치고 오신 스님이 계신데 같이 친견하자고 한다. 친구와 드라이브할 생각이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차창가로 쏜살같이 도망치는 바람결이 삶에 찌든 나를 행복하게 했다. 친구와 함께한 드라이브는 촌뜨기 철부지 40대 아녀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며 황홀하게 했다.

해안가의 초라한 암자! 20명 정도의 불자와 스님의 경건하게 염불하는 뒷모습만이 잠시 내 눈 안에 비쳤을 뿐, 나는 별다른 행동없이 친구 따라서 삼배하고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다. 절밥 맛있게 먹고 친구 덕분에 스님께 생전 처음으로 차 대접을 받았다. 온통 어리둥절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스님의 한 평도 안돼 보이는 공간은 그 어느 대리석 저택보다도 웅장했다. 스님과의 담소는 나의 때묻은 귀를 열게 했고, 나의 눈을 바로 뜨게 해주었으며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일깨워 줬다. 그리고 외롭고 삶에 지친 나에게 용기를 줬고 환희심과 희열을 주었다. 가슴이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었기에, 담을 그릇이 없어 넘칠세라 놓칠 세라 잊어버릴 세라 작은 노트를 꺼내 필기도 열심히 한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황홀함이 세어 버릴세라 침묵으로 가슴으로 흐르는 환희의 눈물을 삼키며 내 자리로 돌아왔다. 이미 불교를 스님들의 책으로 접하기는 했지만 내 안에서의 세계일 뿐, 그 세계 속에서 진리와 이치의 귀의함이 무엇인지도 모른 아낙네의 수행은 빗장이 열려있는 조건없는 외출이었다.

그 후 그 해안가 암자의 나들이는 친구와 함께 늘 미소로 함께 했으며, 그리운 님 기다리는 목이 긴 사슴처럼 파도가 출렁이는 그 작고 초라한 암자에 놀러가자며 친구에게 보채기까지 했다. 황금의 그 그리운 님을 향한 나의 영혼은 예쁜 꽃바구니 두 팔에 가지런히 안고 버스에 앉아 콧노래를 부른다.

온통 그 진리 속에서 차가운 나의 영혼은 위로 받고 있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장영효
문화방송 재무운영부국장

나는 원래 아침 잠이 없는 편이다. 보통 5시경에 일어나 신문과 TV를 보며 아침을 먹고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습관이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절에 가본 이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49재를 지내기 전까지 절에 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부모님의 49재를 지내는 동안 항상 머릿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 지내다 우연히 봉은사에 가서 불교대학을 다니게 되었다.

불교대학에 다니며 아침 생활습관을 조금 바꿨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참선도 해보고 독경도 하며 나름대로 신행 생활을 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휴가계를 제출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봉은사 아침예불에 동참을

죽음에 대한 생각, 새벽 예불로 극복
'금강경' 독송하며 긍정적인 생활

했다.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생활에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았다. 며칠 더 다녀보아도 오후에 피로함을 느끼는데 견딜만 하다고 생각되어 계속 다니기로 원을 세우고, 마침 봉은사에서 하안거 100일기도를 시작하기에 100일기도에 동참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8년의 세월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아침 예불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불 보살님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한다.

회사 직원들과 불교 신행 단체를 만들어 월정사로 순례법회를 다녀온 월요일 퇴근 무렵, 회사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그때 총무부장 직을 명 받았다. 이때 새벽예불에 나가는 것을 중단 해야 하는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다 계속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생활습관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다.

이듬해 정월 초하루 아침에 딸이 수능시험을 볼 때까지 금강경을 1일1회 독송하기로 원을 세웠다. 처음에는 독송시간이 20여 분이상 걸리던 것이 회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단축돼 300회를 마치고 나니 저녁에 시간이 허전하고 무엇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계속 생겼다.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다시 금강경 독송을 시작했다. 300여일 동안 습관이 된 모양이다.

이렇듯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행하지 않아 그렇지, 시작하여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것이 이상해진다. 이렇게 새벽기도와 금강경 독송을 수 삼년 하다보니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새벽에 지난날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참되게 살아가기를 발원하니 자연히 주변이 청정해지고 다툼이 없어지며 건강한 삶이 영위되어 즐거운 나날이 많아진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다툼이 없을 수 없고 괴로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한결 여유가 생겨 행동에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으니, 자연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게 된다. 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지난날 지은 업보로 생각하고 더 큰 불행이 안 생긴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계속)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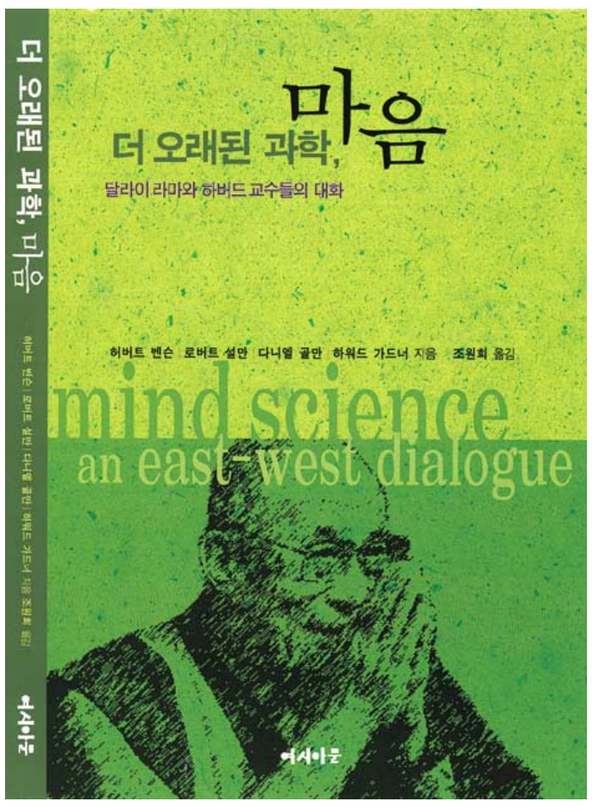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 · 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계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투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가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mind science

☞ 법보시 연락은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7>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할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중엔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의 학식은 너무나 심오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그의 행동은 탐욕에 얼룩져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친절한 언행을 하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한다. 요컨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바른 실천이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것이다.

<법구비유경>의 '슬천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 반특(般特)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머리가 좋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많은 아라한들을 시켜 날마다 가르쳤으나 1년 동안에 게송 하나도 외우지 못하였다. 그의 머리 나쁨은 4부대중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부처님은 그를 가엾게 여겨 몸소 한 구의 게송을 가르쳐 주셨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몸으로 나쁜 일을 하지 말라. 이와 같이 실천하는 자는 이 세상을 잘 지낼 수 있다."

그 때 반특은 부처님의 보살핌에 감동되어 그 게송을 그대로 외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나이 늙어서야 겨우 게송 하나를 외웠을 뿐이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 그리 신기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 너를 위해 그 이치를 해설할 것이니 주의해서 잘 들어라." 반특은 분부대로 경청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행위(살생, 투도, 사음)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행위(악구, 양설, 기어, 망어)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행위(탐욕, 분노, 사견)에 대한 것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유를 관찰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반특은 그 마음이 밝아져서 곧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뒷날 바사닉왕은 부처님과 대중을 왕궁에 초청하였다. 문지기가 반특을 알아보고 막아서서 말하였다. "그대는 사문으로서 한 구의 게송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초청에 응하려고 하는가? 나는 속인인데도 오히려 게송을 아는데, 아무런 지혜도 없는 그대에게는 보시한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반특은 문 밖에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 일을 알고 왕에게 반특이 아라한임을 말했다. 왕은 곧 반특을 청해 들이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반특은 본래 성품이 우둔하여 겨우 게송 하나를 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인연으로 도를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많이 배워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특은 겨우 한 게송의 이치를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는 고요해지고 깨끗해져서 마치 순금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면 한낱 정신만 해치는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많이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동이 착하지 아니하면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로 항상 부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모두 듣고 암기하였다. 그렇지만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아라한이 되지 못하였다. 부처님의 입멸 직후에 아라한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처음에 아난다는 이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알고 기억할 수 있었지만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난다는 불법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고 몸소 실천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어 결집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많은 경전 외워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 없어
단 한 구절이라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해야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비록 천 마디 말을 외우더라도 그 말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 한 마디의 법을 듣고서 온갖 악한 생각 멸함만 못하다. 비록 천 마디 말을 외우더라도 그 의미를 모르면 무슨 이익 있으리. 단 하나의 이치라도 듣고 실천하여 해탈하느니만 못하느니라.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이익 있으리. 단 한 구의 법 구절이라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여 도를 얻음만 못하느니라."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더라도 방종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다. 마치 목동이 다른 사람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다. 남의 집에 소가 몇 마리 있는지 아는 것이 목동에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의 경전을 외울지라도 탐욕, 분노, 사견을 없앨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해탈한 아라한이다. 따라서 우리는 쇼핑하듯이 이 경전 저 경전을 대하지 말고 자신의 근기에 가장 잘 맞는 붓다의 말씀을 새겨 몸과 마음이 나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 머리 나쁘다고 핑계삼을 일이 아닌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지상 백고좌

자나깨나 마음이 하나

무구스님

(본원종 부종정)

볕 따사롭던 2월 7일, 양평 강상면에 위치한 양자산은 군데군데 남은 눈으로 한껏 빛을 발했다. 곤지암으로 향하던 길머리를 돌려 양자산 방향으로 4km를 들어가서야 불사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서림사를 찾을 수 있었다.

본원종 부종정 무구 스님은 30년을 넘게 수행처로 삼았던 과천 유덕사를 떠나 지난해 12월 이 곳 양평군 강상면 송학3리에 새 도량을 일궜다. 소박한 촌로의 모습으로 기자들을 맞은 스님은 일배만 하라며 맞절을 했다.

"스님, 정든 수행처를 떠나 이 곳에 새 수행처를 마련했으니 마음자리도 새로워지셨겠어요."

"마음은 매양 한자리인데 새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순간순간 흔들릴 마음이면 70년 넘는 시간 동안 밥만 축낸 거지요. 새 것이라는 것도 다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새 것이랄 게 없거든요. 뭐가 새 것입니까? 서림사가 자리잡은 땅도, 터를 다진 돌도, 그 위에 올린 나무도 모두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새 것은 자네 마음 속에 분별심으로 있을 따름입니다."

무구 스님은 그랬다. 평생을 이 곳 저 곳에서 부처님 도량 일구면서도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아무 사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일과에

순간순간 찾아드는
숱한 번뇌망상 떨쳐낼때
비로소 수행 시작

서도 욕심 없는 스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사람들이 요즘 생활을 묻곤 하지만 딱히 해줄 말이 없거든요. 잠오면 자고, 배고프면 밥먹고, 잠이 안오면 염불합니다. 참선 하듯이 앉아서 염불하고 큰 소리로 염불하고 생각으로 염불하면서 살고 있어요."

큰 스승이 없다는 불평에 대해서도 무구 스님은 따끔하게 일침한다. "공부 안 한 사람 보기에는 큰 스승이 없어보일지 몰라도 전국 곳곳에 스승이 참 많아요. 제 공부 안됐다는 소리 않고 찾아다니지 않으면서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소리 하기 전에 하심을 먼저 실천하세요. 절에서 하심을 안하니 세상이 어지러운 것 아니겠어요? 절집안에 내려오는 하심하라는 가르침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라는 것이에요."



"공부 안한 사람 보기에는 큰 스승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전국 곳곳에 스승이 참 많아요." 무구 스님은 하심을 먼저 실천하면 만나는 사람 모두 스승이라고 말한다.

무구 스님은 오랫동안 염불수행을 해 왔다. 스무 철이 넘도록 선방에서 참선 수행에 매달렸지만 해답을 찾지 못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염불을 시작했다. 스님은 그때서야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내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께요. 내가 선방에 다닐 때 일이니까 참 오래 됐네요. 선방에 있는 수좌라고 다 수행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잘 하는 수좌가 있는가 하면, 졸다가 한 철을 나는 수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수행을 제대로 안하면 자기 몸이 망가집니다. 맨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졸기만 하니 소화도 안되고 쉽게 감기에 걸리거든요. 그건 제대로 된 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자기 몸뚱어리 하나쯤은 요리할 수 있어야지요. 참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데 자꾸 참선만 할려고 하니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참선을 해야만 수행하는 거라는 망상에 빠져 맨날 헛다리 짚고 사는 거에요."

스님은 평소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상원사 선방에서는 화두 들고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베푼 것은 남듯이 내가 클 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 문 열 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3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음이

하나로 통해야 깨닫는다



무구 스님은 자신에게 맞는 방편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고 강조한다.

잊는 연습 집중하는 연습 언제 어느때고 하라

세속생활엔 염불이 최적 두터운 업장도 절로 녹아

치열하게 용맹정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무구 스님은 결국 염불선을 택했다.

"요즘 한국불교에 선불교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한국불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참선이든 염불이든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골라야 해요. 그런데 선방에서는 무조건 선을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지금도 참선하는 스님들 대부분이 염불하면 부처가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불교에서 염불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한국불교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수행이 바로 염불이에요. 또 우리 근기에 가장 맞는 수행이 바로 염불입니다. 역대 어떤 조사 스님도 염불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참선을 해도 마음이 일여가 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고, 염불도 입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오매일여(寤寐一如) 마음이 하나로 통해야 깨달음이 오지."

스님은 오로지 하나로 통해야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순간순간 찾아드는 술한 번뇌망상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수행이 시작된다는 가르침이다. 스님은 번뇌망상을 거적 속에 가려진 벌레요 고약한 냄새라고 했다.

"날 좋은 여름날 마당에 거적을 깔아놓고 잘 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적을 깔아놓을 줄만 알았지 걷을 생각은 안하거든요. 장마비가 쏟아져도 가만히 놔둔단 말이에요. 나중에 거적 밑을 들춰보면 온갖 벌레가 자라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이 이와 똑같아요. 거적을 씌워놓으니까 자꾸 벌레와 냄새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태양을 비추면 벌레도 없어지고 냄새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태양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태양보다 강해서 아무리 업장이 두터워도 염불을 하면 번뇌망상이 사그라 듭니다."

무구 스님은 수행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불자들의 수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수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염불 수행을 권한다.

"세속생활에서 어디 수행이란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수행이 그리 쉬우면 다 부처님 됐지요. 하지만 수행에만 매달릴 수 없는 세속과 가장 잘 맞는 수행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빠르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성(高聲)염불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묵념(默念)염불을 해 보세요. 염불을 하면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정화되면 그 만큼 세상이 청정하고 우주가 정화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망상이 꿈틀거릴 여유를 주지 말고 삼매에 빠질 때까지 염불을 하세요. 수행이란 것이 장소와 시간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참선 하듯이 염불도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삼매에 들 수 있고 오온이 저절로 염불을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고 잊는 연습,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는 무구 스님. 수행하는데 승속이 따로 있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염불할 수 있어야 번뇌망상도 따라붙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덧붙인다. "누구든지 염불하라고 하면 '내 스승인 갑네' 하고 염불하세요. 그러면 극락이 가까워집니다."

양평=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무구 스님

192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17세 되던 46년 김천 김용사에서 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김용사에서 전문강원을 마치고 오대산 상원사, 율진 불영사, 문경 대승사 등지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이후에는 신흥사 주지, 원주 죽림사 주지 등을 지냈다. 그러나 60년대 정화의 뜻이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라 조계종을 떠났다.

89년 태허 스님 등과 정토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본원종을 창종해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본원종 부종정으로 양평 서림사에서 염불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무구 스님의 건강법

체증 · 감기 등 간단한 병 호흡으로 치료

무구 스님은 76세의 세납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잔병치레 또한 거의 하지 않는다. 이의 비결은 선방을 다닐 때 얻은 의학 지식에 있다.

모든 대중에게 각자 소임이 주어지는 선방생활에서 무구 스님은 주로 간병 소임을 맡았다. 변변한 약을 구할 수 없었던 당시, 의지할 데라고는 의학서뿐이었다.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약을 짓고 간병했던 것이다. 덕분에 스님은 해박한 의학지식을 갖춘 '한의사'로 불렸다. 무구 스님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건강법을 익히게 됐다.

"옛날에는 선방 한구석에 좁쌀을 매달아 두었어요. 결제철에 자리에 눕는 스님이 생기면 미음을 끓여 주기 위한 거였지요. 미음을 쑬 때는 물에 불린 쌀을 돌로 갈아 물에 섞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있다면 몇방울 넣고 잘 저어 끓이면 맛있는 미음이 되지요. 이 미음 한번 먹어보겠다고 대중들이 야단이었거든요."

선방에서의 치료법을 묻자 스님은 선방에 전해오던 몇가지 치료법을 들려준다. 주로 호흡으로 치료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선방에는 체하는 대중이 많습니다. 계속 앉아만 있으니 그럴만 하지요. 이 때는 입을 꼬옥 다물고 배가 부르도록 들이마신 뒤 서서히 입으로 숨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30분 정도만 하면 음식이 소화가 다 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체하면 음기가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집니다. 들이마신 숨을 오랫동안 뱃속에 두면서 양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따뜻한 선방에 앉아 있던 수좌는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거나 산책을 하다가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는 더운 열 기운이니까 냉기를 보양해야 하지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열기운도 있고 냉기운도 있거든요. 열기운은 내뱉고 찬기운만 몸에 쌓으면 됩니다. 방법은 숨을 한껏 들여마셨다가 '하'하고 순간 내뱉으면 더운 기운이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호흡하면 자연스럽게 감기 기운은 사라진답니다."

그러나 무구 스님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일러준다.

"만병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오래 살아야겠다는 것도 탐욕이고 망상이에요. 탐욕은 마음의 병이지만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거지."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혜암 스님(2)

하루는 혜암 스님께서 아침 공양을 하고난 뒤 대중 모두를 염화실로 모이도록 했다. 마침 동안거를 해제한 뒤라서 사형 사제들이 많이 있었다. 대중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는 일도 많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 공양할 때에는 대중들이 꽉 차는데 마당 청소나 울력할 때에는 기척도 없으니 스님께서 상좌들의 나태함을 깨우쳐 주고, 매사를 대중공사라는 절집안의 전통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하기 위해 모이라고 한 것이다.

원당암에 혜암 스님께서 주석하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스님이 지리산 도솔암에서 해인사로 오시지 않으니까 당시 해인총림 방장이신 성철 스님께서 혜암 스님에게 선방 소임을 맡기면서 원당암을 배려하셨다. 그때도 스님은 상좌들과



그림 · 문병성

의논끝에 원당암을 맡으셨는데, 상좌들이 원당암을 잘 가꾸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니 스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던 것이다.

대중공사에서 스님은 한마디로 단언하셨다. 공연히 절집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죄만 키우지 말고 아예 원당암을 관리 잘 할 스님에게 맡기자는 말씀이었다.

그때의 원당암은 마당 여기저기에 돌이 솟아 있었으며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암자 운영을 했다. 그러니 스님 눈에는 날이면 날마다 일해야 할 것이 널려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 눈에는 무심하게 지나칠 일이지만 스님에게는 하루종일 일거리였다.

스님께서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삼복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밀짚모자를 눌러 쓰고 호미로 도랑의 풀은 모조리 뽑으셨다.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상좌들이 안거 해제했다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게으름을 피우면 원당암은 사중에 넘기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공부만 열심히 하자고 하시니, 어느 상좌도 토를 달 수 없도록 모범을 보이셨다. 원당암에 오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오지 말든지 해야 했다.

하지만 스님을 모시고 살아보니 당신께서도 일정한 기준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시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지적까지 하면서 꾸중하고 엄격하게 가르치시는데 시봉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배려해 주셨다.

원당암은 지금도 재가 불자들의 선수행처로 유명하다.

그렇게 된 이유는 혜암 스님께서 직접 죽비를 들고 경책을 해주며 수행을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매달 첫번째와 세번째 토요일은 신도들에게 개방해서 스님께서 직접 참선을 지도하고 법문을 해 주셨다. 첫번째와 세번째 토요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날은 대부분 쉬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정했다고 하셨다. 당신께서 직접 철야정진을 하시면서 죽비로 경책까지 해주니 신도들의 신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아직 스님생활이 몸에 배지않은 나는 밤새도록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무릎도 아프고 골반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말 그

평생 일종식 · 장좌불와 실천 게으름 피우면 절 떠나라 혼쭐

대로 죽을 지경이었다. 최소한 졸지는 말아야지 하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어지면서 고개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떨어지는게 다반사였다. 그런데도 혜암 스님은 하루에 한번만 공양하는 일종식을 하면서도 눕지 않는 장좌불와를 평생동안 하셨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존경스러웠다.

처음 오는 신도들에게는 화두를 주시는데 만원씩을 직접 받고 화두를 내려주신다. 스님들이 내게까지 와서, 큰스님이 화두를 돈받고 파신다고 뒷 이야기들을 했다. 그런데 큰스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그렇지 않으면 화두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공부를 안하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선을 어떻게든 생활화 시키려는 큰스님의 뜻이 애틋하게 느껴진다.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일주일 동안 상좌들과 단식을 하며 용맹정진을 할 때의 일화도 유명하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젊은 수좌가 몰래 떡을 먹다가 탈이 났다. 스님은 단식으로 탈이 났으면 단식으로 고쳐야 된다며 함께 공부하는 대중에게 다시 일주일간 단식 용맹정진할 것을 권했다. 몰래 떡을 먹었던 수좌가 회복할 때까지 당신도 함께 단식 정진하고 나서는 조용히 타일렀다.

그 수좌는 단식약속을 어긴 것을 스님에게 꾸중들을까 싶어서 장에 출혈이 있는데도 말을 못했는데, 스님이 그것을 아시고 대중들이 함께 해야만 그 수좌도 무사히 회복되고 용맹정진도 마칠 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었다.

구례 수미정사 주지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컨자종틀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및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왼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원광식

● 문의처 : (주)비엔비기업
032-772-5451(代)
02-733-6141(代)

●제 품 명 : 가릉빈가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엠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품기능 : 출력 (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 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가능, 예 :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엠프 기능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저있습니다.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잉체포함)
●종제작업체 : 성종사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밝이 윌등이 밝고 잘견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6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시

대지 딛고 깨달음의 세계로

모란미술관 '조각가 류인 5주기 추모전'

조각전문 미술관인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미술관은 2월 18일부터 3월7일까지 '조각가 류인 5주기 추모전' 을 연다. 추모전에는 모형작품 11점 등 모두 22점이 전시된다. '조각가의 혼' '입산(入山)III' '지각의 주(柱)' '숨소리II' '하산(下山)'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특히 불교적 색채가 강한 '입산III' **(사진)** 은 대지로부터 창공을 향하는 인간의 역동적인 모습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충실한 사실적 묘사와 전형적인 조소기법으로 형성됐으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체를 이용한 공간표현 형식을 새롭게 완성했다.

류인은 생전에 조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펼쳤다. "조각은 일단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보는 이와 함께 숨쉴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장식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바로,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만 많고 던져짐이 약해서는 이미 조각적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031) 594-800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공연

바람-구름-비와 바다로 간 심청

가족뮤지컬 '퓨전 심청' 18~26일 세종문화회관



극단 '즐거운 사람들' 은 18~2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가족 뮤지컬 '퓨전 심청' 을 공연한다.

'퓨전 심청' 은 '심청전' 의 기본 줄거리에 심청과 바람, 구름, 비의 신이 함께 떠나는 바닷속 여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더한 작품. 특히 제작진들은 이번 작품에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보시한 심청을 통해 '효(孝)사상' 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전자거문고 아쟁 장구 피아노 등 전통악기와 현대악기를 이용한 음악으로 동서양 음악의 조화를 시도했다.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을 접목시킨 것도 이 작품의 특징. 이재상 원작. 이동준 연출. 이진숙 이경열 유학승 김동화 윤상현 등이 출연한다. (02)2232-0997

극장가



콜드 마운틴(Cold Mountain) / 드라마 / 154분
개봉예정일: 2월 20일
감독: 안소니 밍겔라
출연: 주드 로, 니콜 키드먼, 르네 젤위거 등

전미 도서상을 수상한 찰스 프레지어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작품.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세 남녀의 운명과 사랑을 그린 영화다. 르네 젤위거는 이 영화로 '브리짓 존스의 일기' 의 노처녀 이미지를 벗는데 성공하며 2004년 골든 글로브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Lost in Translation) / 로맨스 / 102분
개봉예정일: 2월 20일
감독: 소피아 코폴라
출연: 빌 머레이, 스칼렛 조핸슨, 지오바니 리비시 등

미국인인 밥과 샬롯은 일본에 여행차 방문한다. 이국땅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게 되고 대화와 여행을 통해 가까워진다. 관객을 눈물짓게 만드는 이 로맨틱 코미디는 2003년 베니스영화제 최우수감독상, 여우주연상, 뉴욕 비평가협회 최우수감독상 등 평단과 관객의 호응을 모두 얻었다. '대부' 로 알려진 거장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딸이 직접 각색하고 메가폰을 잡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



그녀를 믿지 마세요 / 코미디 / 115분
개봉예정일: 2월 20일
감독: 배형준
출연: 김하늘, 강동원, 김지영 등

깜찍한 외모를 무기삼아 사기와 거짓말을 일삼는 영주는 어느 날 어수룩한 시골약사 희철을 기차에서 만나게 된다. 소매치기 당한 희철의 약혼반지를 돌려주기 위해 희철의 마을로 가지만 그의 가족은 그녀를 약혼녀로 오해한다. 김하늘의 표정연기와 강동원의 어눌한 연기가 이 영화의 감상포인트.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 부산 FM 89.9 MHZ / 광주 FM 89.7 MHZ / 대구 FM 94.5 MHZ / 청주 FM 96.7 MHZ / 춘천 FM 100.1 MHZ)

06:05 불교강좌
08:55 우리들의 찬불가
11:10 행복 스튜디오
14:05 김용우의 국악발견
16:45 룸비니 동산
20:05 다시듣고 싶은 노래
23:05 불교강좌

Btn 불교TV <ch 32>

18일 20:20 차문화 산책
19일 08:30 생활 속의 아함경 강의
20일 16:05 디지털 동의보감
21일 12:40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1편
22일 14:00 오늘은 좋은날
23일 12:00 향토음식 기행
24일 12:50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김용우의 국악발견(2월 22일 14:05~14:45)- 젊은 국악인과 국악의 새로운 소리를 만나본다. 이날 방송에는 팔도가락을 만나는 '우리가락 따라잡기', 국악의 최신 동향을 알아보는 '새바람 국악이야기' 등의 코너가 마련됐다.

■**불교텔레비전**: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입보리행론2 (2월 21일 12:40~14:00)- 지난 1월 설날특집에 이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두 번째 시간. 달라이 라마의 <입보리행론>의 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 설법을 만나본다. 설법을 통해 달라이 라마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 보리심을 실천하는 마음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르친다.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말씀 배워볼까

전국 90곳 3월 개강
장례문화 · 비교종교학 등
커리큘럼 다양화 '눈길'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습니까? 그럼 불교대학으로 오십시오!"

오는 3월 개강을 앞둔 전국의 불교대학이 야무진 교과과정을 선보이며 신입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새 학기를 맞는 불교대학의 특징은 단연 커리큘럼의 다양화. 교리 강좌는 기본, 장례문화학과, 비교종교학, 사회복지학, 여성, 다도, 사진, 전통무용, 생활 수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수강 시간도 확대됐다. 조계사 불교대학은 직장인 불자를 위한 야간반과 토요일반을 개설을,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통신반 규모를 늘렸다.

■ **대학 리스트(도표)**

지역	불교대학	접수마감	연락처	특 징
서울 (02)	조계사불교대학	2월 21일	720-1390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토요일반 운영
	화계사불교대학	3월 3일	902-2663	교리강좌 및 수행방법
	불광사불교대학	2월 27일	413-6062	기본적인 불교 소양~포교사과정까지
	봉은사불교대학	3월 31일	516-5652	발우공양, 선수행, 천도재, 사찰답사
	도선사 실달학원	3월 15일	993-3161	수련회, 생활예절, 다도특강, 자원봉사활동
	능인선원 불교대학	3월 2일	577-5800	근본불교, 비교종교학, 사찰 기본예절, 사찰과 관련한 모든 기초 강의
	정토불교대학	3월 2일	587-8994	자원봉사 강의 및 실수
	불교사회복지대학	선착순(16명)	723-5101	불교사회복지 강좌
	동방불교대학	2월 18일	745-2030	범패학과, 불교미술학과
	삼화불교대학	2월 20일	511-2026	중국유학준비과
	대원불교대학		754-1613	기본교리 및 수행법강좌
	한국불교법사대학	2월 25일	720-1836	법사양성과정 - 불교학 이론 및 의식실기
	삼보불교대학	수시접수	913-2859	삼보사이버불교대학 (www.sambobuddha.org) 운영
	동산불교대학	3월 4일	732-1206	불교문예창작학과 및 경전대학원 운영
	만해대학	3월 3일	738-3386	전통개금, 단청 등에 관한 강좌 (중급 · 고급반만 운영) 초급자를 위한 불교생활기초 한자반 운영
	광운불교대학	수시접수	389-8966	과정별 세부교육
부산 (051)	여여선원 불교신행학교	3월 10일	853-5486	참선수련, 전통무용
	부산불교교육대학	3월초	867-9944	생활수화 강의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2월 28일	866-7277	주 · 야간 강의
	대광불교대학	2월 28일	816-2245	사회복지학과
	금화사불교대학	3월 9일	582-5916	기초교리 강좌
	동국불교전법대학	2월 26일	642-6242	태국의 마하툴라롱큰불교대 분교(4년대 학부과정), 와프마사지 과정(11주 과정)
	금정불교대학	2월 28일	866-7277	전문교육과정(주,야) 경전 4개반 운영
	대한불교교사대학	2월 24일	852-0852	아동상담 및 어린이법회 관련교육
울산 (052)	울산불교교육원	수시모집	261-1285	사회복지학과
	정토불교대학	3월 12일	258-9944	수련, 유적탐방
대구 (053)	경북불교대학	3월 20일	792-1353	2년재, 비교종교론, 성지순례
	보리불교대학	3월 5일	522-7611	경전중심
	대구영남불교대학	3월 11일	474-8228	원격 화상 강의 인터넷반 운영
	법왕사불교대학	수시접수	766-3747	기초교리과정, 매주 토요일 신묘장구대다리니 기도
	대구불교대학	2월 28일	256-3725	불교교리 및 명찰기도순례
	직지불교대학	3월 11일	588-3599	기초교리반 중심
대전 (042)	광제사 불교대학	3월 5일	627-8600	기도의식, 불자예절, 여름 참선교실
	보현불교대학	수시모집	624-6555	미얀마 마하시수도원, 대만 불광산사와 정기적인 친선교류법회
	백제불교문화대학	2월 28일	537-8214	스님 교리 특강, 회화 · 건축특강
	보현불교대학	3월 9일	624-6555	우수 강사진의 경전강좌
충주 (043)	해동불교대학	3월 30일	853-3169	신도포교반, 승가반 별도운영
광주 (062)	광주불교대학	2월말	375-7633	사찰순례 수련회, 서예, 산악회
	향림사 불교대학	2월말	375-7633	불교권국가 불교사 강의
	광주불교문화대학	3월 말까지	228-9098	주2회 수업, 염불수행 동아리
인천 (032)	인천불교대학	3월 1일	576-9741	포교방법론, 참선수행
	보명사 불교대학	3월 3일	815-6610	야간반
강원도 (033)	강릉불교대학	2월말	643-2985	1년과정 기초교리 강좌
	원주불교대학	3월 10일	732-4800	불자한자교실 운영
	신흥사 불교대학	3월 9일	635-0106	강의 선택 자유, 포교사 과정
경기도 (031)	봉선사 불교대학	3월 3일	527-1951	기본교육에 충실 특징 없음
	안양 불교대학	3월 11일	444-5935	기초교리, 경전반
경남 (055)	영축불교대학	3월 11일	242-8393	통도사 현장교육, 108사찰 순례
	통도사 불교대학	3월 9일	382-7182	포교사반, 여성 분야 과목 개설
	금강불교대학	2월 28일	253-0108	장례문화학과, 포교사고시 선문반
	진주불교교양대학	3월 4일	747-0108	기초 · 중급 · 경전반
	경남불교대학	3월 15일	266-8150	문화사 및 포교론 특강
	영축불교대학	3월 11일	242-8393	전공반 외 교양반 별도 운영
경북 (054)	구미불교대학	3월 9일	453-0571	기초교리 강좌
	은해사 불교대학	2월 24일	335-3318	사찰예절, 가람에 깃든 의미 강의, 참선
	축서사 불교교양대학	3월 10일	672-7579	다도, 사진반 운영
	포항불교대학	2월 28일	247-4688	불교교리, 경전, 포교사고시
	만대교학대학원	3월초	535-1987	종교음악, 국악, 장례문화
	전남 강진불교대학	2월 21일	437-7781	경전중심
해남 (061)	불교대학	3월 6일	534-5502	불교기본 교리
	남원불교대학	3월 2일	632-6936	남원요천수 살리기 방생체험
전북 (063)	이리불교대학	2월 28일	854-1578	기본 불교교리 과정
	화엄불교대학	수시접수	277-3497	불교사회복지 특강
	전북불교대학	2월 28일	226-7878	인터넷반 운영
제주 (064)	서귀포 불교대학	3월 7일	733-8882	사찰순례 수련회, 서예, 산악회, 봉사활동
	제주불교문화대학	3월 6일	722-2829	산상법회, 성지 순례, 오름등반(산악회)
충북 (043)	충북불교대학	3월 14일	274-2159	불교 기본예절, 불교기초교리, 경전반
	광명불교대학	3월 14일	294-6196	성지순례, 불교신행 특강

3·1절 기념 만해백일장 열린다

대불청 주최 동국대서 3·1절을 맞아 조국사랑과 민족 자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25회 전국 만해백일장' 이 3월 1일 동국대 중강당 및 만해광장에서 펼쳐진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가 주최하는 만해백일장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 일반부 주부반 등으로 나눠 시 · 시조부문, 산문부문으로 진행된다.

각 종목별 대상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 및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장원 및 우수상 등에게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동국대 총장상 등이 수여된다. 참가신청은 2월 27일까지 대불청으로 전화 · 이메일 접수를 하면 된다. (02)735-1930, kyba@kyba.org **김은경 기자**

통도사 박물관대학 문화 강좌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기 과정의 교육을 통해 불교문화 포교사를 양성해온 통도사박물관대학은 2004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199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과 함께 시작된 통도사박물관대학은 불교문화과, 불교회화과(불화반 · 단청반), 전통공예과(서각반 · 자수반)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한다. 박물관 대학 수강증 소지자에게는 통도사 및 박물관 무료 입장, 통도사 개산대재시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갖는 특전이 주어진다. 등록마감은 3월 13일까지. (055)384-001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게시판

공부합시다

대불청 불교 교사단 교육 대불청 경기지구가 불교청년회의 교육과 수행, 신앙을 지도할 '교사단' 을 2월 28일까지 모집, 오는 3월부터 1년 2개월간 불교의식과 수행, 한국불교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불청공동체 구현을 서원하는 청년불자면 모두 참가가능하다. (032)251-1778

중앙승가대 영육아 보육강좌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은 3월 14일부터 1년 동안 레크리에이션 및 영 · 육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주 ·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하며, 고졸이상의 학력자이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각 반 선착순 100명. (02)929-5004

전지공예 · 닥종이인형교실 국립민속박물관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 전지공예교실, 목요일 닥종이 인형교실, 금요일 한국복식교실 등을 운영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참가가능. 참가비 10만원. (02)734-1341

함께 해요

부산에 책 보내주세요 부산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도서기증운동' 을 펼치고 있다. 아동 · 일반 · 전문서적에 관계없이 95년도 이후의 출판도서이면 모두 기증 가능하다. (051)264-9033

박물관 자원봉사자 선발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부지에 건립예정인 박물관에 대비해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닌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3월 31일까지 선발한다. 사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의 관련 전공자나 외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자격증 취득자 등이면 모두 지원가능하다. 나이는 60세까지. (02)398-5076

남산 문화탐방 국립극장이 전국의 학생들을 위해 무대탐방과 공연관람을 동시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남산문화탐방' 을 각 지역의 공연장 및 학교에서 실시한다. 단, 단체에 한해 접수받는다. (02)2274-1172

중국인형뮤지컬 인어공주 의정부예술의전당이 한중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인형뮤지컬 '인어공주' 를 2월 21일 오후 2시 의정부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중국북경인형예술단이 선보이는 초대형 인형극. (031)828-5941~2

어린이공연 '국악이 좋아요' 부천문화재단이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복사골문화센터 6층 어린이실에서 겨울방학특별 어린이공연 '국악이 좋아요' 를 진행한다. 지루하고 어렵게만 여겨지던 국악을 동요, 만화영화 주제곡, 최신가요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 (032)325-6923


'국악이 좋아요' 공연.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경기도 박물관이 2월 21일 오후 3시 박물관 중앙홀에서 경기도립 팝스 오케스트라 초청 무료공연을 갖는다. (031)288-5300

즐겁게 떠나요

신라 천년역사 시간여행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 이 2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신라 천년 역사의 고도 경주로 역사여행을 떠난다. 불국사 등 신라의 숨은 역사를 샅샅이 찾아볼 이번 여행은 초등학생과 그의 학부모들이면 참가 가능. 참가비 성인 10만원, 초등학생 9만원. (02)725-1284

전라도 문화유적 답사 나의 문화유산 답사(www.cafe.daum.net/7116)팀이 2월 22일 전북 망해사, 심포항 등지로 문화유적 답사를 떠난다. 참가자격 제한은 없으며, 홈페이지 답사신청게시판에 연락처 및 간단한 개인정보들을 적으면 된다. 참가비 1만 5천원. 018-607-6467

안동일원 답사 기차로 떠나는 문화유적답사회는 오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가장 오래된 전탑인 안동 신세동 7층 전탑을 비롯 의성, 안동 등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전탑과 석탑답사여행을 떠난다. 참가비 성인 6만 7천 5백원, 중 · 고등학생 5만 2천원, 초등학생 3만 9천원. 011-455-1181

휴휴암으로 떠나는 순례법회 능인선원은 2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강원도 휴휴암으로 신묘장구 대다리니 철야기도를 떠난다. 참가비 2만원. 011-751-8787

오쇼 비파사나 겨울캠프 오쇼명상클럽이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봉인사로 겨울명상캠프를 떠난다. 커피, 담배, 술, 독서 등을 일체 삼가며 묵언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5만원. 011-660-0445

20면 상식 퍼즐 정답

입	금		지		부		지	옥
춘	부	대	인		추	상	명	사
	나		용	화	전		타	
방	장	산		산		감	자	국
		신	선		회	사		
이	화	령		실		관	광	단
	개		시	의	회		대	
부	장	검	사		화	학	무	기
공	터		회		체		변	압

클릭! 불교문화상품

비장탄 숯단주

검은 다이아몬드의 숯 '비장탄 숯 단주'. (한정품) 세계 최고의 고강도 숯을 깍아 만들어 체내에 침투하는 유해물질을 정화시키고, 기도나 참선시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 크기 20mm, 재질 숯 100%. 9만 8천원. (02)732-1520



엄마는 동화나라 '목소리 마술사' 인가봐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동화구연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다보면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모습을 본 엄마라면 누구나
'나도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왕이면 더욱 재밌고 실감나게 읽어 줄 수는 없을까?
이번 기회에 동화구연을 한번 배워보자.



아이들을 위해 동화구연을 선보이는 엄마들. 사진제공=옥수종합사회복지관

● 동화구연 어디서 배우나

일반적인 동화구연은 어린이도서관, 복지회관, 관련 단체의 문화교실 등에서 배울 수 있다. 대부분 아이와 엄마가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동화구연 지도자 과정 등 전문적인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동화구연 교실은 1998년부터 운영된 색동회의 동화구연 아카데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과정, 전문가과정, 지도자과정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동화구연에 대한 이론과 함께 상황에 알맞은 표현, 구연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등 실습도 한다. 또 동화구연과 연계해 '나의 주장 발표하기' 등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도 배운다. 전문가과정까지 보통 6~8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동화구연 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02)3141-5504

서울 옥수동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매주 목요일 3~4세 아동과 엄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엄마랑 동화나라' 프로그램이 있다. 동화구연과 함께 율동, 감상 발표하기 등을 배우게 된다. (02)2282-1100

서울 동대문 꿈틀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 형식의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첫 주 토요일, 책을 좋아하는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1~2권의 동화를 들려준 뒤 주인공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의 독후활동이 열린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슬라이드를 이용해 그림책도 읽어준다. (02)2243-2315

● 동화구연 무엇이 좋을까?

말하기 · 듣기 능력 늘고
창의력 · 정서 함양에 좋아

10개월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들 재혁이(5)와 함께 동화구연 교실에 참가한 김지란 씨(36)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고 발표력이 늘어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화구연은 아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 특히 대부분의 동화구연 프로그램은 책 읽기에 그치지 않고 감상발표, 주인공 표현해 보기 등 연계 수업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듣기와 말하기를 함께 공부하게 되며 바른말을 습득하게 된다. 또 동화를 흥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다.



이승아 꿈틀도서관장(36)은 "컴퓨터 게임, 비디오 등 공격적인 매체에 노출된 요즘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는 정서 함양에 좋다"며 "엄마의 마음과 감정이 담긴 목소리는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게 도와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여성 2천명 일자리 지원

서울시가 여성취업지원을 위해 올해 2천명의 여성인력을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9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상 · 하반기 각각 1천명씩 모두 2천명을 시 산하기관, 복지시설, 민간단체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센터 5곳과 여성인력개발센터 15곳에서 전산회계, 웹디자인 등 7개 전문기술 및 직업교육을 마친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조건은 60일간 주 5일 하루 6시간 일당 3만원의 급료가 제공된다. 또 이들을 고용하는 민간업체에는 시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기업은 여성발전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2월 14일까지 업무분야별 필요인원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 가장 1천만원 융자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최고 1인당 1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50만원)의 150%이내인 여성 가장이면 신청가능하다. (02)2274-9637

아동성폭력센터 사업자 공모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사건수사를 위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칭) 사업자를 2월 23일까지 공모한다. 의료관련 기관과 비영리법인이면 응모가능하다. (02)3703-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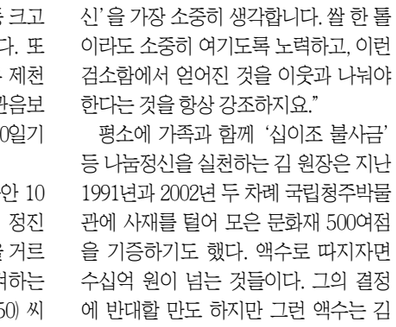
NGO센터 입주 희망 당체 공모

서울여성은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 입주 희망단체를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책상, 책장, 의자 및 전화기 등 기본시설을 갖춘 이 센터는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02)810-5043

"우리집은 작은 불교센터"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3>

김 연 호 한국예총 제천지부장 가족



지난 1월 한국예총 제천지부장 취임식에서 기념 촬영한 김 지부장 가족.

가정법회 등 모임 자주 열어 아버지와 두 아들 대불련 동문

"일요법회로만 끝나는 불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자가족이라면 사회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명예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불법을 따르도록 이끌어야지요."

지난 1월 27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천지부장에 취임한 김연호 진주동물병원장(52 · 충북 제천). '수행은 곧 신행'이라고 말하며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강조하는 그는 1972년 대학생불교연합회 경남지부장을 시작으로 조계종 포교사, 제천불교거사림회,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장 등 지역 불교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 왔다. 김 원장이 이처럼 불교계 안팎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가족과 함께 신행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자신의 가정을 '작은 불교센터'라고 표현한다. 김 원장네 집에서는 종종 가정법회 등 크고 작은 불교모임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는선우 제천지역 가족 50여명은 문수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릴레이 100일기도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지난 1998년 50일 동안 10만배 정진을 하기도 했다. 10만배 정진을 비롯해 지금도 매일 아침예불을 거르지 않도록 김 원장을 옆에서 독려하는 가장 무서운 스승(?)은 부인 권선(50) 씨다. 불교청년회 시절에 만난 김 원장과 권 씨는 정기법회는 물론 집에서도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다.

김 원장의 두 아들 영종(26 · 경희대 의과대학), 영돈(23 · 동국대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씨도 각각 의대와 불교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어린시절부터 우리는선우 불교학생회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두 사람은 김 원장의 대불련 후배이기도 하다. 특히 둘째 영돈 씨는 1년 뒤 졸업과 함께 군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우리 가족은 '가난정신'과 '나눔정신'을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 쌀 한 톨이라도 소중히 여기도록 노력하고, 이런 검소함에서 얻어진 것을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지요."

평소에 가족과 함께 '십이조 불사금' 등 나눔정신을 실천하는 김 원장은 지난 1991년과 2002년 두 차례 국립청주박물관에 사재를 털어 모은 문화재 500여점을 기증하기도 했다. 액수로 따지자면 수십억 원이 넘는 것들이다. 그의 결정에 반대할 만도 하지만 그런 액수는 김 원장 가족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부처님 말씀처럼 준 것은 영원히 남고, 가진 것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현재 가진 것에 족함을 느끼고 다른 이들과 함께 회향할 줄 알아야 진정한 무소유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김 원장. 그는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우리 사회에 불행이 싹트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 따뜻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가족을 위해 발원했다.

한상희 기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빙의령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업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4학년도 봄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모집과정

과 정 명	세부과정명	과 목 (반) 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구분
교 양 불 교	불교란무엇인가?	Ⅰ	최 종 석	1학기	주 간
		Ⅱ	배 상 환	1학기	주 간
	참 선 수 행	Ⅰ (참선법의 이해와 실제)	신공스님	1학기	주 간
		Ⅱ (참선공안의 참구와 실참)	신공스님	1학기	주 간
	불 교 영 어		원 병 관	2학기	주 간
불 교 연 구	경 전 연 구	금강경	계환스님	2학기	주 간
	불 교 한 문	초발심자경문	심 재 동	2학기	주 간
	초 급 한 문	명심보감	심 재 동	2학기	주 간
	한 문 해 석 법	大學, 中庸	심 재 동	2학기	주 간
	공자와현대사회	논어	이 종 찬	2학기	주 간
불 교 전 문	불교전문교육	대승불교의 이해	김 종 욱	5학기	주 간
		비교종교	최 종 석		
		아비달마 불교	우 제 선		
		한국불교의 이해	고 영 섭		
종무행정최고지도자과정	종 무 행 정 최 고 지 도 자	현대화된 종무행정 교육	조기룡外 (팀티칭)	2학기	주 간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문 명 대	2학기	주 간
문화 · 예술	불교정통꽃꽂이		정 진 희	2학기	주 간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 (불교전문교육과정은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에 한함)
원서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04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접 수 처 : 사회교육원 교학과 (학술관 1층)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원 소정양식), 사진 1매
불교전문교육과정 : 주민등록등본과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각 1부 추가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 02) 2260 - 3728~9 / FAX : 02) 2260 - 3730
홈페이지 : http : //dgucc.dongguk.ac.kr/~soedu

스님들만을 위한 활인 침술법 전수강좌
- 덕운스님의 활인침법을 배웁시다 -

덕운스님은 30여년동안 영험하신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의 공덕(公德)」을 온세상에 펼치고자 "활인(活人)의 도(道)"를 깊이 연구하시어 많은 중생들에게 "활인법(活人法)"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온갖 병고소멸을 통해 「약사 부처님의 은덕(恩德)과 중생구제의 원(願)」을 가지고 불법(佛法)에 정진하고 계시는 스님들에게 놀라운 활인의 침술법을 전하므로, 삼천대천 세계에 계시는 약사부처님의 은덕을 대대손손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일체중생 병고소멸 활인공덕 사바하!!

강좌안내
■ 강좌내용 : 덕운스님의 활인 침술법(鍼術法) 전수
■ 강좌기간 : 2004년 3월부터(3개월간)
■ 강좌대상 : 활인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스님
35세 이상 ~ 50세 미만
득도 3년미만
■ 모집인원 : 10명에 한함 (특별교육)
■ 회 비 : 무료
■ 장 소 : 활인정사(活人精舍)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사당역 5분 거리)
■ 문의전화 : 02) 3487-2311~3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시고자 합니다.

활인정사 덕운선원 주지 덕운 합장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티월드 페스티벌'은 차 관련 단체 100여 곳이 참가해 전시와 세미나, 차 음식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 1만5천여의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제공=티월드 추진위원회

'제2회 티월드 페스티벌'

우리 차! '세계로, 세계로'



김정순 추진위원장

우리나라 차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는 5월 2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로 가보자.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티월드 페스티벌(Tea World Festival, 국제차문화대전)'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차 생산자들과 차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며 동분서주 하고 있는 김정순 추진위원장(47)을 지난 9일 만났다. 그가 그리고 있는 올해 티월드 페스티벌의 밑그림을 들여다본다.



지난해 처음 열린 행사는 국내 최대의 차 박람회이자 차문화 잔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티월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차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차산업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장을 마련해 보자는 뜻으로 2002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차 관련 단체나 생산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흔쾌히 참여해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차 축제 한마당을 꾸려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차인들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차문화는 '어렵다', '비싸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티월드는 누구나 차를 '쉽게' 마시고 '함께' 차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차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뜻에서 '차생활의 모든 것'을 컨셉으로, '우리차 생활차'를 슬로건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 차문화와 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과 함께 국내 차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를 평가한다면?

"처음 개최하는 행사라 외형 갖추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차문화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대장치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은 스스로도 후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웃음) 그동안 해외에 우리 차 알리기는 차 관련 단체나 차회 차원의 교류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국가 혹은 공인된 기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티월드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 차문화를 접해보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좀 더 다채로운 볼거리와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쉽고, 함께하는 차문화 보급위해 마련
지난해 홍보 큰 성과, 행사 운영은 미흡
'짱 세대'에 맞는 다양한 공연 준비
'차의 날' 제정으로 국민축제 되길

■올해 행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큰 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시와 세미나, 제다실습, 이벤트 무대에서의 공연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 인도, 스리랑카 등의 차 생산업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차 비교전시 등도 마련됩니다. 하루 유동인구 15만 명에 달하는 전시장의 특성을 살려 '짱세대(젊은 세대)'들이 차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코엑스몰 공연장에서도 차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또 하나 올해부터는 '티 아카데미'를 운영해 일반인들이 차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인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티월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티월드의 목표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차산업박람회이자 차문화축제의 마당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차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장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죠.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차와 차도구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차'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루고 싶은 것은 차인들이 힘을 합해 '차의 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물의 날', '농업인의 날'처럼 국민이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차의 날'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티월드 페스티벌 2004' 5월 25일 부터 6일간 열려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티월드 페스티벌'은 '차문화의 생활화'를 모토로 전국의 차 생산자와 차단체, 다기 · 다구 생산자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차문화 축제였다. 6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1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관한 이 행사는 산업관과 문화관, 월드관, 교육관 등으로 꾸며졌으며 이 밖에도 학술심포지엄과 차음식 경연대회, 차음악과 차춤 공연, 차예절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02년 10월 꾸려진 '티월드 추진위원회'는 최각규 무역진흥기금위원장(前 부총리)이 고문으로,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과 한국차인연합회 박동선 회장,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 등 차 관련 단체장들과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 김정옥 씨, 대한민국도예명장 59-19호 천한봉 씨 등 각계 인사 2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오는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 열리는 '티월드 페스티벌 2004'에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2월 28일까지 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02)6000-8000

현대훼미리콘도 99만원 VIP 상품 한정모집

99만원으로 콘도고객 - 무료숙박권 22매 선착순 증정



국내레져산업의 선두주자 현대훼미리리조트에서 창립 16주년기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내걸고 알뜰형 레져상품인 VIP 상품을 성황리에 모집중에 있다.

이번 VIP 상품은 업계최초로 보증금없이 99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회비까지 면제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477실 규모의 설악 현대훼미리콘도를 비롯해 청평, 평창, 도고, 충주, 해운대, 덕구, 지리산, 경주, 제주, 해외 25곳 에 직영 및 체인콘도,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유명 스키장의 리프트권이 최고 25-50% 할인된다. 특히 행사기간중 설악 23평, 청평콘도 무료숙박권 22매를 선착순 한정으로 증정하고 있다.

무료숙박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설악콘도는 설악의 수려한 풍경, 아름다운 외관과 함께 동해의 일출 광경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다.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가족의 행복한 대화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현대훼미리콘도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곳이다.

미래지향적이고 저렴한 고품격의 VIP 고객에 맞게 그 내용이 풍성하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홀리데이하우스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 주위환경과 잘어울리는 아름다운 외관 자연친화성, 격조높은 레져문화 현대훼밀콘도만의 고객서비스로 풍부한 내용구성을 고객에게 베푸는 셈이다.

이상품의 가입기간은 5년으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가입은 신용카드로 1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여행 및 레져비용이 증대되는 시기에 많은 비용절감과 레져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02-549-0415
www.hyundaivip.net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직통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세요

자기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끄달리지 마라

대화하면서도 놓치지 않으려면

문 항상 끊어지지 않게 근본을 지켜보면서 놓치지 않고 나오는 모든 것을 굴려 놓으려고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잡념이나 생각들은 굴려 놓는다고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대화에 빠져서 놓치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여일하게 근본을 놓치지 않고 관할 수 있는지요.

답 처음 공부할 때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자기 주인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송장이라면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할 필요 없이 대화는 그대로 해도 그 대화하는 거는 체가 없습니다. 상대가 방구를 한번 뽕 뀌었을 뿐이고 내가 방구를 한번 뽕 뀌었을 뿐입니다. 방구는 양쪽에서 다 뀌었는데 죌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사이가 없지마는 아주 철저하게 대화를 한 겁니다. 하긴 했는데 한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공이 있고 저쪽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말을 하긴 했는데 한 사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있다는 증거요, 주인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살아나가는 것도 자기가 있기 때문이지 자기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인이 자기를 형성시켜 놓고 앞장세워 놓고선, 자기는 그 앞장세워 놓은 물질로 인해서 다니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차를 사 놓고 거기 들어앉아서 차를 앞장세우고 다니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이 갈 겁니다.

하루 24시간 자기 주인공 생각을 안 하고 일에 몰두를 했어도, 시간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일을 다 끝마치고 생각이 문득 났다 이겁니다. 문득 생각이 난 고 시간에 바로 24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순간 생각난 그 자체가 바로 24시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냥 참나다 이겁니다.

뭐든지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색으로만 본다면 24시간은 24시간대로 있고, 또 내가 일에 몰두한 고 시간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틀 사흘을 일에 몰두를 하느라고 주인공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고것은 한 번 생각났을 때 벌써 사흘이고 이틀이고 하루고 몰두했던 그 자체가 한 참나에 한데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붙잡는 생각을 내려놓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편안해질 겁니다. 왜? 누구와 얘길 한다든지 무슨 일을 했다든지 간에 그 모든 게 그 자리로 인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거기서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다면 급한 일이 생기거나 우환 가환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개서 생각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 동안 놓쳤다 안 놓쳤다 할 것 없이 24시간을 일 초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 초도 24시간이 되고 24시간이 일 초도 될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시간적으로 정해 놓고 끄달리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거를 정해 놓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긁어서 부스럼을 내 놓고선 피를 내며 사느냐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사십시오. 일체를 거기서 한다는 것만 믿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면요.

정성만 들이면 되는지요?

문 저는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절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스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정성을 지극하게 들이라고 하십니다. 스님 말씀처럼 정성만 지극하게 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나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 이거 보십시오. 정성을 들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급해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할 거를 스스로 알면 거기도 안 가셨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르니까 그 스님께서도 정성을 지극히 하면서 자주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첫째 자기 주인공, 참 자기 마음의 근본이 있으니 거기에다 모든 걸, 병이든지 생활하는 거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뒤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뒤가 생각되는 것도 놓으시라는 얘깁니다. 그 생각이 나오는 거기다 다시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산천초목은 푸르고 조화를 이루고 물은 유수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똥물이 들어가든지 구정물이 들어가든지 아랑곳없이 그냥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만 믿고 살 수 있다면 어찌 가정에 비바람이 치며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마음의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앞뒤를 생각하고 거기 내가 했다는 것이 붙어 돌아간다면 공심의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성이라도 공덕이 되어야 하니까 자기 마음의 근본을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져야 가정도 화목하고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쉬운 방편으로 공부해도 되나요

문 스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 초도 일 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 초를 일 년만큼의 간절함이나 진실함의 무게를 가지고 놓을 때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볍게 그저 놓는다고 그것이 일 년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일 년 못지않은 무게와 힘과 아주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스님을 뵈면 스님께서 갖고 계신 그 간절함이나 지극함,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중생일 수밖에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깨닫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저처럼 근기가 낮은 사람이 처음부터 차원이 높은 공부를 단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을 찾아서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 되는지요.

답 그렇게 생각으로 자꾸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 병이 나요. 나는 여러분이 병나는 거 싫어요. 다 내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물레방아 돌듯이 얼마나 돌았으며, 물이 흐르듯이 얼마나 울었던가 하는 걸 생각하면 난 아예 그런 건 싫어요. 그러니까 그저 순수하게 그냥그냥, 애쓰지 말고 믿고 놓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냥 하세요. 신경 쓰고 그러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우니까 말입니다.

이게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더딘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편으로 좌선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러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20년이 가도 고만이고 30년이 가도 고만이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날 짓지를 못하고 그것만 들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소로길인데 나중엔 점점점 들어갈수록 길이 넓어집니다.

방편을 써서 수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넓은 길 같은데 갈수록 좁아지다가 나중엔 막다른 골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화두를 잡는다 또는 좌선을 한다 이러는 것이 길은 처음에는 넓은데 나중엔 점점 좁아지면서 막다른 골목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넓은 길은 나중에 점점 더 좁혀지고 처음에 좁은 길은 나중에는 점점 넓어진다는 얘깁니다. 왜? 자기가 공했으니까요. 자기를 주인공이라고 해라 하는데 그걸 왜 못 믿습니까? 그게 화두인데요. 자기 생긴 게 화두인데 뭘 화두를 또 잡습니까, 글쎄. 그러니 겉껍데기에다 겉껍데길 또 붙잡으니 그림자를 또 붙잡고 헤매는 셈이 되는 겁니다.

> "순수하게 그냥그냥 애쓰지 말고 믿고 놓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냥 사세요!"

그러니까 직통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세요. 생긴 대로 자기가 화두인데 아니 왜 걱정을 합니까, 글쎄. 애당초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배 밖에 나올 때에 바로 방편으로 가지고 나왔는걸요. 내가 공했으니깐 공에서 나오는 거, 나한테서 모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나한테서 나오는 거 나한테다 되놔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나한테서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내가 공했으니까 주인공을 믿어라, 그럼으로써 잠재의식의 근본이 홀연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 바깥에서는 참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꿈이자 생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방편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꿈이자 생시고 꿈도 생시이자 꿈입니다. 생시에 있었던 모든, 내가 살아나오던 얽히고설킨 상대성 원리가 바로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꿈에 다른 모습으로 해 가지고 다짜고짜 모르는 인연이 돼서 나와도 바로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자기의 인연줄이니까 모든 거를 자기로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로만 본다면 '아, 그것도 나지.' 그러면 통과예요. '그것도 나지.' 그러면 통과입니다. 마구니가 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꿈에 그랬어도 '너도 난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다 그렇게 없어져서 쫓기지를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로만 봐야지, 하다못해 동물들이 보이더라도 그것도 바로 나입니다. 인간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온 걸로만 따진다 해도 하여튼 그런 모습을 다 거쳐서 나왔으니까 그거는 어느 때 연분에 자기가 그 모습을 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자기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잠재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있던 것이 자꾸자꾸 풀어지는 거니까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놓게 되면 바로 필름 지워지듯이 그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들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자꾸 상대성으로서 그게 엉켜져서 인과응보로서 또 닥쳐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놔라 이겁니다. 그저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는 그 자리에다 놔야지 다른 자리에다 놓으려고 앨 쓰면 그것이 놔지지 않습니다. 누가 가난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마음 쓰는 거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는 걸 대신 갖다 없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 놓은 거 내가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장님은 지팡이를 짚어야 길을 갈 수가 있듯이 고것이 한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히 지팡이가 없어 허전하면 스승을 붙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 뜬 사람을 붙들고 가다가 눈이 떠지면 그때는 '어,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기에 지팡이도 없는 걸 가지고 그랬구나. 알고 보니 내가 그냥 지팡이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는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알아지니까 그냥 '아, 스님이 스님이 아니요, 내가 내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사람이든지 다 그럭하라는 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정히 어디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나가다 보면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걸 알고 그것 또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에 바로 나의 마음도 거기 같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자기가 알아질 때는 우주 전체가 바로 주인공 한 떡으로다가 화하는 겁니다. 떡 하나 얻어먹으려면 그만큼 모든 거를 한데 종합해서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로 뭉쳐야지 둘로 된다면 안 돼요. 참선이라는 건 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그 하나마저도 쪼개고 쪼개서, 그 하나도 고정되게 있지 않으니깐 '무(無)'다 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전자란 얘깁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 놨을 때 고것이 유전자고 고 하나도 세울 게 없다 할 때 무전자로서 이 세상 어느 곳에 아니 닿는 데가 없다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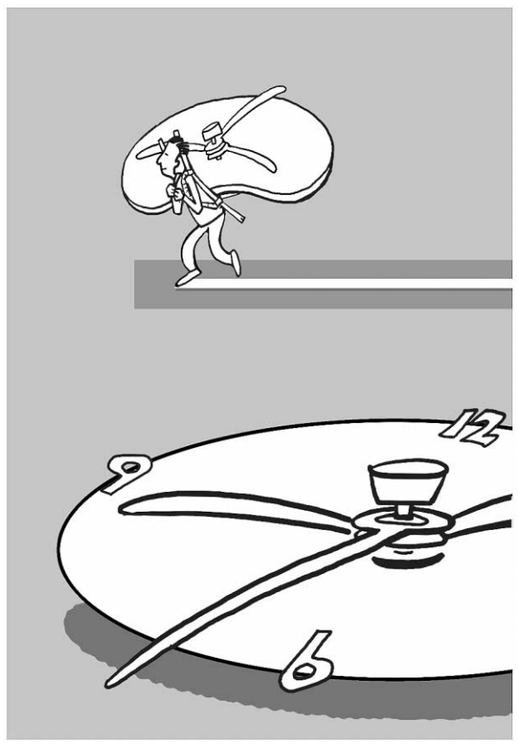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생긴 게 화두인데 뭘 또 잡습니까

수많은 계율을 어떻게 지키나요?

문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의 실정을 보면 대승 불교권임에도 불구하고 비구 스님들의 250계라든가 비구니 스님들의 348개 계율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살펴보면 과연 계율을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계율을 받고 오신 스님한테 가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스님, 250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외워나 보십시오." 그랬더니 20계도 못 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우지도 못할 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250계뿐이 아닙니다. 250계라는 그 뜻은 250계가 아니라 전체 계율이에요. 전체가 계율 아닌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든다, 또 무엇을 보는데도, 보는 눈도 잘못 보고서 잘못 생각하면 그것도 계율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은 한군데서 나는 걸 알면 전체 계율을 지키는 거고, 한군데서 나고 드는 걸 모른다면 전체 계율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계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건 두루 얘깁니다.

어떠한 목적에서 요건 요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부처님의 계율은 이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하다 보면 나빠지고 나쁜 거라도 자기 용도에 따라서, 자기 분수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술을 먹는 데도 삼합을 딱 볼 때 '아, 내가 이걸 요만큼이라도 먹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먹어 주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안 먹는 게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할 때는 먹어서 계율을 지키고, 안

☞30면으로 계속

성품 밖에서 法 구하는 건 모래로 밥을 짓는 일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먹어야 할 때는 안 먹어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고, 해야 될 일은 함으로써 계율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없는 그 반면에 우리는 부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고, 그대로 두루 진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계율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걸어도 소가 가든지 개가 가든지 사람이 가든지, 보이지 않는 데 모습을 해 가지고 웅크리고 앉았든지 또 스치고 가든지, 이런 모든 걸 겸해서 그것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데에는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체득하고 싶은데…

문 주인공을 관해 보지만 '스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체험을 해 보지 못해 아직도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뭔가 빨리 체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신체적으로 힘든 극한 상황에 놓는다든가 하는 고행을 하면서 주인공을 관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관하는 것보다 더 느끼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답 우리가 수 해를 두고 이렇게 수행해 오고, 이날까지 봐 왔고 이날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복으로만 많은 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그것이 아주 배어서 인제는 바깥에서 빌고 또 바깥에서 구하고 그러는 일들이 아주 습으로 남아 있어서 녹이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가도, 만약에 바깥에서 구하고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구하고, 만약에 성품이라 하면, 성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품에 의해서 역시 팔자 운명이나 인과응보에 끄달리는 이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 바깥에서 법을 구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도 안 되거니와 법을 구해도 안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나가 이 몸으로써 내가 고행을 해서 법을 구하겠다고, 또 옛 성현들이 마음을 깨달아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좇고 그 분들을 좇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서는 절대, 그것은 바깥에서 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내 몸으로써 하루 종일 앉아서 눕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머리를 짜내서 대경(大經)을 쓴다고 해도 아니 되고, 또는 내 몸을 잘라서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부처를 구하
지 못하고 법을 구하
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분주히, 발이 부르터서 디딜 수가 없이 만들어서 고행을 하면서 정말 몸을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이리 잘라지고 저리 잘라지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그렇게 겁을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의 참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한 자기 몸을 화두 삼아 일상생활에서 끊어지지 않게 참선해야

그렇기 때문에 옛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찾는 자는, 바깥에서 그렇게 법을 구하는 자들은, 또 몸을 패대길 치면서 그렇게 고행을 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법을 구한다면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런 소립니다. 모래로 밥을 지어서 밥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항상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되, 어느 절이든 가 보면 말과 뜻과 행을, 세 가지를 종합해 봐서 견해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을 진실히 믿고 따르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 부처를 구하고 자기 성품 안에서 법을 구하는 그런 이치가 틀림없는 사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되 기복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는 견해가 밝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복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히 믿는다 해도 그것은 십중팔구 마구니로 빠지기가 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견해가 밝아야 밝게 보고 옳게 행을 하면서 믿음을 진실하게 마음 안으로 굴려서 자기를 자기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은 앉는다 선다 생각 없이 자기 몸을, 공한 자기 몸을, 즉 말하자면 화두를 삼아서 일상생활에 일분일초도 끊어지지 않게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넓으나 점점 가면서 좁아들고 막다른 골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좁되 점점 가면서 넓어지면서 이 천지만물이 다 화창하게 빛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심원 안에, 온 누리에,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모든 법이 찰나찰나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법이 한마음 심원에 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갖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따지지 않아도 무슨 경에는 무슨 말씀, 무슨 경에는 무슨 말씀 하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나, 또 그 뜻 자체나, 그 하나하나의 이름이나 그 심원 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 눈 따로 코 따로 귀 따로, 눈은 뭘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이렇게 봐야 하고 이렇게 따지자고 본다면, 눈으로 보는 것 따지고 또 귀로 듣는 것 따지고 이러다 보면, 내 몸 전체의 모든 것을 일일이 따지게 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내고 들이는 것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법이 다 내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법이 있고, 법 안에 바로 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든 많든 이 뜻을 정렬하게 생각해서, 마음 밖에서 내 부처를 찾아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는 성품 안에서 법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 보다 보면 빨리 체득하고 싶다는 그 생각마저도 저절로 놓고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관하게 될 겁니다.

부처님의 사리에 대해서

문 스님들이 열반을 하시게 되면 다비식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사리가 나오는데 고승은 많이 나오고 도가 적은 사람은 사리가 안 나오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리가 서 말 서 되나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변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리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 석존께서 열반하셨을 때 서 말 서 되의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몸뚱이도 응신이기 때문입니다. 몸뚱이도 응신이거든요. 하나 버릴 게 없는 응신이고 화신이고 법신이고 부처고 이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이 그냥 고대로, 사그러진 그대로 사리다 이겁니다. 털끝 하나 사리 아닌 게 없어요. 아니,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전부 사리죠. 그 몸뚱이 털끝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사리다 이겁니다. 그 뜻은 이 세상의 모두가 자기 아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죽은 것도 없고, 즉 말하자면 사리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 말 서 되라는 말도 그냥 서 말 서 되라고 한 그 액면 고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몸뚱이뿐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의 삼천 하면 삼이 들어가죠. 서 말이란 말입니다. 이 서 말을 한 말로 따진다면 '천' 이렇게 '모은 한마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천지 이렇게 해도 '천' 은, 천지가 전부, 이 우주 전체가 하나거든요. 하나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하나로 돌아가는 게 '지' 해 놓으면 그냥 또 한데 합쳐져 버려요. 아래 위로 합치는 것이 천지요, 또 돌아서 천은 그냥 한데 합쳐서 둥글게 돌아가는 게 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천지가 전부 사리 아닌 게 없으니 부처님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으니 부처님 도량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도량 아닌 게 없으니 전부 모두 사람이 전부 부처 아닌 게 없느니라 이겁니다. 그 가운데에 마음을 한 찰나 이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 넘어서면, 저 언덕을 넘어서면 부처고 법신이고 화신이지마는, 그것도 또 말을 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부로 하나가 되고, 부처가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그냥 법신으로 그냥 이렇게 화해 버려요, 하나로.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전부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고 버릴 게 없고 천칠백 공안이 아닌 게 없고, 돌 하나도 화두 아닌 게 없고 또 공안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량 아닌 게 없는 반면에 부처님 그 자체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야, 그렇구나! 뱀이나 개구리나 소나 이런 거를 건지려면 부처님의 그 마음이 거기 들지 않고는 그 무명을 벗길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합일해서 하나로 뭉쳐서 놓고 돌리고서는, 그러니까 벌써 용탕을 해 먹은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용탕을 수시로 해 잡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는 무명만 딱 그냥 벗긴 겁니다. 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금방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몸뚱이는 그냥 무명이 벗겨진 거죠. 뱀의, 즉 말하자면 습이 많이 남았었는데 부처님의 마음이 확 열어 주니까 거기다 넣고는 체인지가 돼 버리니까 그냥, 그게 그냥 좋은 음식과 같이 나쁜 음식이 좋은 음식으로 화해 버렸죠. 체가 없는 거니깐 화해질 수 있다 이거죠. 체가 있는 거라면 그냥 뭐 잘못된 거를 잘되게 어떻게 그 물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불교와문화



단행본 같은 잡지, 2004년 격월간 『불교와문화』

* 주제를 섹션별(교리, 수행, 문화, 자연과 사람, 정보창고)로 세분화, 집중화하여 단행본 같은 잡지로 거듭납니다.
* 기존 신국판을 변형판으로 전환하고 비주얼(visual) 자료를 좀 더 확대하여 읽는 책과 함께 보는 책으로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 디자인면에서는 본문 크기를 대폭 키우고 단순미와 여백미를 살려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불교와문화』는 각계 저명 필자를 통해 우리시대 문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문화칼럼〉을 신설하고,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을 비롯, 섹션별 기획으로 단장했습니다. 기초교리에서부터 응용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가르침이 일생생활에서 이해되고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1 · 2월호 주요 내용

포토 에세이 | 표정으로 읽는 불교 – 미륵사 영산전 천불상
문화칼럼 | 다비와 화장문화
특집 | 山門을 열고 나온 불교, 세상과 소통하다
열린 산문, 열린 불교 – 불교계 문화포교의 현황과 전망
새 코드로 자리잡은 문화포교, 어떤 게 있나
이웃 종교계의 문화선교 현황
문화콘으로 본 문화포교의 가능성
● 교리 – 지혜의 샘
생활인을 위한 경전 읽기 「유마경」 해설 1 – 보살이란 무엇인가
지상중계 | 보조국사의 『수심결』 강의 듣기
● 수행 –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재가불자를 위한 눈높이 수행, 수행의 ABC〉
지비수관 수행법이란 무엇인가
웰빙시대, 새로 쓰는 사찰음식보감 1
– 사찰음식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기
생각 한모금 –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 문화 속으로
마음을 맑혀주는 세계 음악여행 – 1 인도 음악
성낙주의 석굴암 건축기행 1 – 평면구성(평면도에 감춰진 황금의 원들)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
– 단청이 아름다운 사찰(채천 신륵사 · 검의사)
● 자연과 사람
철집의 나무들 – 소나무
(인터뷰) 등잔 밑을 밝히는 사람들 – 호산 스님 · 도일 스님 · 만춘 스님
● 불교 정보창고
불교잡지에서 고른 명문장(월간 「불교(신)」, 1937)
– 교단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 허영호
한국불교관계논저총합색인(2003년 단행본)
제1회 대원상 수상 소감 – 성타 스님 · 박광서 교수 · 동산만아회(대표 김제일)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 – 719 – 2606, 전송 02 – 719 – 5052, www.kbpf.org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월달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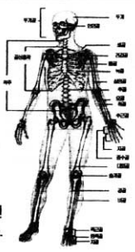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비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이 음식은 이래서 나쁘고 저 음식은 저래서 나쁘고…. 소비자들이 식단에서도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음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자연친화적이고 영양가있는 음식들이라 해서 무조건 쌍수들고 환영할 수는 없는 노릇.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음식들이 독성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해독식품'을 말한다. 몸속으로 무심코 흘러든 '나쁜 성분'들을 자연스레 걸러내 주는 '착한 음식' 해독식품.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쁜성분 걸러주는 식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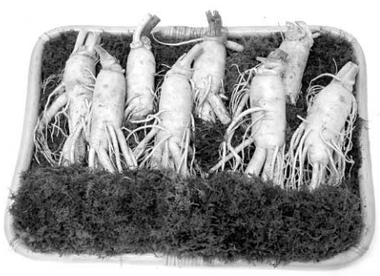
해독의 절대비밀

△**환경호르몬 해독**= 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1g의 양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최악의 맹독성 물질이다. 이 같은 다이옥신의 97~98%는 음식물을 통해 몸으로 유입된다. 화학공장 주변 등의 풀, 또는 그것을 먹은 가축들을 사람이 직접 먹게 되면서 얻는 결과다.

다이옥신 97~98% 음식물로 유입
녹차, 인삼 흡수 억제 성분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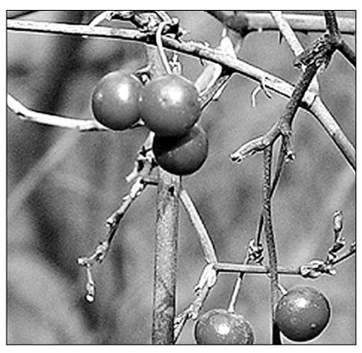
녹차에는 다이옥신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녹차의 식이섬유는 다이옥신을 흡착해 변으로 배설시키고, 녹차의 클로로필(엽록소)은 다이옥신과 결합해 소화기관의 다이옥신 흡수를 막는다. 식이섬유와 엽록소를 그대로 섭취하려면 티백보다는 가루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인삼 역시 다이옥신 계열의 제초제인 고엽제를 해독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김시관 박사는 고엽제와 홍삼에 관한 실험을 통해 "인삼은 환경호르몬에 의한 고환, 간, 신장 기능의 저하를 방어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삼 성분과 만나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철' 성분을 주의하여 유리 그릇이나 약탕기를 이용해 대추, 생강 등과 함께 달여 먹으면 된다.



환경호르몬의 해독에 뛰어난 인삼.

△**중금속 해독**= 불고기보다 우수한 아미노산, 일반 채소보다 10배 많은 엽록소를 가진 클로렐라는 해독효과 역시 단연 으뜸이다. 클로렐라는 호수 등 민물에 서식하는 녹조류 플랑크톤으로, 자체 함유된 칼슘 · 아연 성분들을 이용해 카드뮴의 소장흡수를 저해한다. 또한 카드뮴이 주로 쌓이는 간장이나 신장 등에서 저분자 금속결합 단백질을 생성, 카드뮴의 독성을 중화시켜준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분말 형태의 클로렐라를 구입, 국수나 냉면에 넣어먹거나 다른 식품에 첨가해 먹으면 좋다.



수은 중독을 풀어주는 청미래덩쿨.

채소와 과일도 해독을 돕는다. 사과 속의 펙틴은 장에 젤리 모양의 벽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장 안에서의 이상 발효도 방지한다. 도토리묵의 에이콘산은 중금속,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물질을 중화시켜준다. 미나리의 식이섬유도 유해물질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오염된 하천 옆에 미나리 밭을 만들어 효과를 기대할 정도다. 우엉과 연근에도 중금속을 흡착, 배출시키는 섬유소가 풍부해 해독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산야초 가운데 청미래 덩굴은 수은중독을 풀어준다 해서 민간요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니코틴·알코올 해독**= 니코틴 금단증상은 니코틴을 몸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야 빨리 극복될 수 있다.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에는 니코틴을 해독하는 메틸메티오닌이 들어있어 해독식품으로 인기가 많다. 복숭아와 된장 역시 혈액 속의 니코틴을 분해시켜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돕는다.

미역 다시마로 니코틴 배출하고
감 · 검정콩으로 알코올 다스린다

감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은 혈액 속의 알코올을 분해시킨다. 감의 타닌 성분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교감신경의 흥분도 억제해 술이 빨리 깰 수 있도록 한다. 칡 역시 뿌리를 말려서 달여 먹으면 술독 해소에 좋다.

니코틴과 알코올을 동시에 해독시키는 식품도 많다. 솔잎은 그냥 씹기만 해도 과음으로 인한 속쓰림을 해결해 주지만, 니코틴 독을 제거하는 성분도 다량 함유돼 있다. 다시마 역시 날다시마 채로 질겅질겅 씹어 먹어도 니코틴 · 알코올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 문어를 살짝 데쳐서 날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다. 최근 많은 식품에 응용되고 있는 검은콩도 훌륭한 해독제가 된다. 검정콩과 감초를 함께 달인 '감두탕'은 니코틴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뿐 아니라 다른 약물 중독해소에도 좋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⑦

3도샤 잘 관리하면 심·신 행복

우리 몸을 관장하는 3도샤의 속성 Ⅲ



지난 회에 이어 카파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면 이렇다. ⑦연성(soft)-우리 몸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 ⑧정적(靜的)-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를 말하며, 우리 몸에 힘을 제공하고 안정성을 갖게 한다. ⑨두터움-전기나 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⑩무거움-조직을 형성케 한다. ⑪느림-움직임을 더디고 느리게 한다.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카파는 우리 몸에서 부비강(副鼻腔)과 코, 폐, 대장의 점액과 점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 신념의 정립 등에 관여한다. 카파가 지나칠 때에는 비만을 불러오고 부종이 생기며 당뇨, 고혈압, 폐렴, 비강 울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반대로 결핍 시에는 호흡기 등에 장애를 일으켜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위경련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부비강 코 대장 점막 형성 담당
확고한 마음, 신념 정립에 관여
발병시 울혈 붓는 증상 나타나

그러면 카파 체질의 특성은 어떠한가? 카파 체질의 소유자들은 대개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에 골격이 잘 발달되어 있다. 더러는 큰 키에 장대한 골격의 소유자도 있다. 체중은 비만에 가까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몸무게를 줄이기가 힘들다. 피부는 희고 광택이 나며, 차고 두꺼운 편에 속한다. 눈은 크고 흰자가 두드러지며, 머리카락은 두껍고 기름지며 윤기가 흐른다. 이빨은 크고 튼튼하게 잘 형성되어 있으며 손톱 · 발톱은 부드럽고 하얗다. 관절은 강하고 크며 혈액 순환은 보통 정도이며 입맛 역시 보통이지만 변화가 거의 없다. 갈증도 보통 정도이고 땀은 처음에는 별로 흘리지 않다가 일단 흘리기 시작하면 몹시 많은 양을 흘리게 된다. 소변, 대변 모두 정상이며 소변의 색은 맑다. 습기나 추위, 찬 것에 예민하고 면역력이 높다.

발병하면 보통 울혈과 붓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폐와 점막에 발생하는 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행동은 느리고 참을성이 많다. 잠을 많이 자고 꿈은 거의 꾸지 않는데 어쩌다 꾸게 되면 주로 로맨틱한 꿈을 많이 꾸게 된다. 기억력은 느린 편이나 안정적이다. 말은 느리고 선한 편이다. 성격은 자신의 분수에 맞게 만족할 줄 알고 보수적 경향을 띤다. 카파 체질의 긍정적 감정은 사랑이며 부정적 감정은 집착이다. 한번 믿으면 잘 변하지 않고 견실하며 안정적이다.

이상으로 바타, 피타, 카파라는 3가지 도샤의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3가지 도샤는 우리의 몸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이다. 이들 3가지는 신체 내에서 각각 관장하는 영역이 따로 있으며 계절별, 인생의 시기별로 미치는 영향 또한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 3도샤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육체의 건강은 물론 심리적 컨트롤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회부터는 이들 3가지 도샤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응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포천중문의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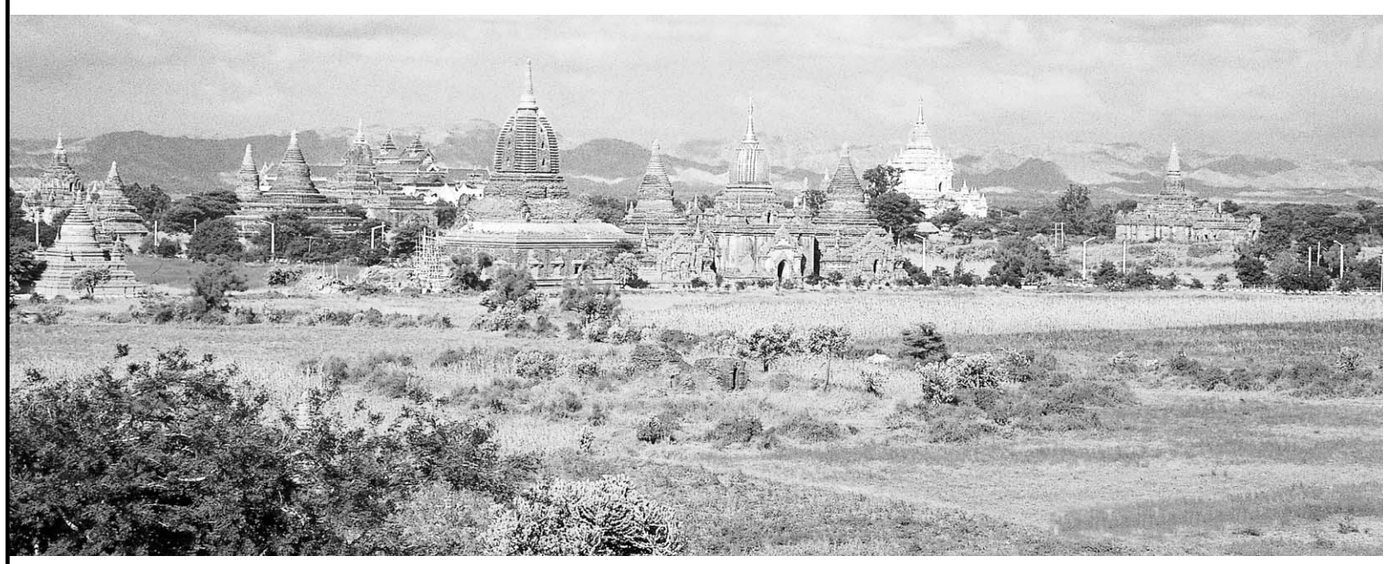
불교방송에서 미얀마 불교성지순례를 실시합니다.

찬란한 불탑의 나라 미얀마!!

불교방송이 미얀마 성지순례에 파격적인 비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부처님과 사리불, 목련존자의 사리를 모신 수도 양곤을 비롯하여 세계 3대 불교유적 중의 하나로, 아름다운 불탑과 사원으로 이루어진 파간과 만달레이를 순례하고, 까바에 파고다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정대불사법회도 봉행합니다.

이번 순례는 5박 6일 일정으로 3월 4일, 3월 8일 2회에 걸쳐 대한항공 전세기로 출발합니다.



BBS 불교방송 문의전화 : (02)705-5301. 3 www.bbsfm.co.kr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일 정 표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3/4 3/8	인 천	KE 전세기	19:00	인천국제공항 집결		
	양 곤		22:35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 후 호텔투숙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3/5 3/9	양 곤	국내선	06:30	아침공양 후	조	호텔식
	파 간		07:50	국내선으로 파간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	중	한 식
				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 이라와디강 석양감상, 저녁공양 후		
				호텔투숙	석	현지식
				HOTEL |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3일 3/6 3/10	파 간	국내선	08:45	아침공양 후	조	호텔식
	만달레이 샤가잉 만달레이		09:15	공파웅왕조의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마하간디용 수도원, 만달레이 언덕순례, 샤가잉 이동 후 쉰우퐁야	중	현지식
				신 우민똥제파고다 순례 만달레이귀환 후 호텔투숙	석	현지식
				HOTEL | MANDALAY HILLRESORT CLASS		
제04일 3/7 3/11	만달레이	국내선	09:30	아침공양 후	조	호텔식
	양 곤		11:05	양곤이동 후 로카찬다 옥불사, 차욱탓지 파고다,	중	현지식
				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 친견/정대불사 봉행), 아웅산마켓 견학, 저녁공양 후 호텔투숙	석	현지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5일 3/8 3/12	양 곤	전용차량 KE 전세기	전 일	아침공양 후	조	호텔식
				쉐다곤파고다, 마하시수도원 순례	중	현지식
			23:35	아웅산기념탑 경유 양곤 출발	석	한 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6일 3/9 3/13	인 천		07:35	인천 도착 후 해산	조	기내식
				굳 성불하십시오 굳		

※ 자세한 문의는 불교방송 전화 705국에 5301번이나 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참 금 : 1,380,000원 (비자비용 25,000원 별도)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3장
- 포함내역 : 여행자보험(1억원), 공항이용료,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2월 24일까지
- 출 발 : 3월 4일, 3월 8일 - 2회

따뜻한 사람 · 아름다운 세상

나누고 손잡으면 이루어 집니다

"자비의 가르침 '생명 나누기'로 실천해요"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10년 대형 캠페인 전개
'나눔의 손잡기' 동참해 '생명을 나누세요' 운동
골수기증 회원 2천명 목표 … 헌혈 · 수술비돕기 등

'나누면 커집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은 커진다. 베푼 사람만이 그 참맛을 알 수 있는 '나눔의 미학'. 본지가 창간 10돌을 맞아 연중캠페인으로 벌이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 조계종 총무원장)가 함께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오는 3월 창립 10주년을 맞아 본지와 함께 장기기증 결연, 골수기증등록사업, 혈액질환자 헌혈증과 혈소판 공여, 불우환자 치료 및 수술비 돕기 등의 기존 사업을 한층 강화해 '생명을 나누세요' 캠페인을 전개한다.

실천본부는 우선,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료복지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삶과 생명을 나누는 참뜻을 전국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골수기증회원 2천명을 목표로 불교계 직장 · 직능단체, 강원, 신도단체, 복지시설 등과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조직 기반도 재정비한다.

실천본부는 현재 제주불교여성합창단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신도회, 조계종 포교사단, 대구 영남불교대학 등과 캠페인 단체협약을 마치는 등 협력 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또 자원봉사 및 후원자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위해 생명나눔연예인봉사단, 장기기증자홍보단, 재가불자 후원결사체 등의 결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실천본부는 본부 기능을 단순 '지원'에서 생명나눔운동의 '센터'로 그 위상을 높인다. 그동안 벌여온 장기기증, 결연사업, 헌혈지원 등의 기본 업무를 생명존중사업으로 한 데 묶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천본부는 올해부터 불교계 장기기증센터 설립을 위한 본부회관 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예 환자발생율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한 가정에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경제난, 제2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가족구성원간의 연쇄적인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혜숙 사무총장은 "운동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참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이 캠페인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교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02) 734-8050

김철우 기자



불자 약사보리회는 회원 약국에 저금통을 비치하고 나눔의 손잡기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사진은 청량리 남녕약국 류남녕 약사가 동전을 저금통에 넣고 있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법장 스님이 자원봉사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 나눠 드립니다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23만여명의 저소득 장애인, 137만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천여명의 미아,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키로 하고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어린 생명에게 '희망을…'

뇌종양 투병 주희의 꿈은 "학교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뇌종양 투병중인 12살의 산골 소녀가장을 도와주세요.

악성 뇌종양에 걸린 산골 소녀가장 조주희(진부초교 월정분교 5학년) 어린이는 몸이 불편한 조부모와 9살짜리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뇌종양 진단은 부모를 잃고 힘겹게 살아온 주희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어렵게 수술을 했지만 병원비 2천만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수술후에도 매달 200만원이 넘는 정기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통의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인근 사찰 땅 2000여 평을 빌려 농사를 짓고, 연등 꽃잎 만들기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희의 소원은 하루빨리 학교에 나가 친구들이랑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월정분교 한기철 담임선생님은 "월정사 주지 스님이 진산식날 화환대신 주희돕기 모금을 하겠다고 밝혀 기쁘다"며 "한 어린이가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33) 332-6559 김원우 기자



할머니와 함께한 주희가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고 있다.

● 함께하는 나눔의 마당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

천태종 니르바나자원봉사회는 죽음을 앞둔 임종 환자들에게 신체적 · 정신적 보살핌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니르바나자원봉사회에 연락하면 된다. 니르바나자원봉사회는 전국 7백여명의 회원이 기초 ·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02) 575-3467

▌보내주세요

가야산 해인사 인근에 위치한 **해인사실버타운(원장 덕운 스님)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가꾸어나가는 보금자리이다. 해인사 실버타운은 5년간에 걸쳐 약 1만여평의 꽃동산을 가꾸기 위해 꽃씨를 기증받고 있다. 동참 문의 (055) 934-0250

▌도와주세요

▲순천 송광사는 조계종 제 26기 행자교육원 개원준비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분야는 방사청소, 설거지 등이며,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다. 문의 (061) 755-5301

▲서울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이미용, 경로당 청소. 이미용은 수시 모집, 환경도우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02) 804-4085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반야원은 행정실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운전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055) 632-1854

▲의정부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곰두리네집은 오는 3월 개소한 단기보호센터에서 일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한다. 봉사 분야는 장애아동 학습 및 보육보조, 산책, 외출, 나들이, 현장학습 도우미 등. 후원은 기금 및 물품후원. 계좌번호 : 농협 126-01-041495(예금주 주간보호센터 곰두리네집). (031) 829-8294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용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생계비지원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금은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및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전달된다. 계좌번호 : 부산은행 083-01-033931-1(예금주 : 용호복지관) (051) 628 - 6737~9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 박봉영 기자 · 김철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동참해 주신분

세계문화전집 세계명작전집 100권-권오남(서울 서초동)
헌혈증-박옥정(서울 잠원동) 옷 5벌-박미숙(서울 서초동)

▌이렇게 참여하세요

①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②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또 봉사자가 필요한 복지단체의 경우 봉사자를 요청하면 보내드립니다.

③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받아갈 개인이나 가게는 연락주세요. 스티커도 함께 드립니다.

④ 마일리지 및 쿠폰 모으기

작은 것도 모으면 큰 재산이 됩니다. 개인이 적립한 소액 마일리지나 쿠폰을 기부해 주세요.

⑤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⑥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⑦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⑧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눔운동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⑨ 자비의 헌혈증 및 골수기증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골수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⑩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